조선전쟁도발의 흑막

금성청년출판사

1995

책을 내면서

미제는 100여년전부터 조선에 대한 침략을 정부의 정책으로 삼고 우리 나라를 탐내여 침략의 기회를 끈질기게 엿보아왔다.

1850년대이전에 선천과 동래에 대한 침입사건을 일으킨 미제침략자들은 1866년 《샤만》호를 우리 나라 대동강에 침입시켰으며 《남연군묘》를 파헤치고 보물을 도적질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1871년에는 5척의 군함과 80여문의 포, 1,230명의 침략군으로 침략함대를 무어 강화도에 침입시켰으며 조선봉건정부에 불평등적인 조약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은 그때마다 조선인민의 애국적투쟁에 의하여 참패를 당하고말았다.

1945년 9월에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침략자들은 공화국북반부를 침략하기 위한 전쟁준비를 미친듯이 다그쳐왔으며 1949년에 들어와서는 《북침전쟁계획도》까지 완성하였다.

침략전쟁준비를 극력 다그쳐온 미제침략자들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조국과 우리 인민을 반대하여 무력침공을 개시하였습니다.》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략전쟁을 도발한 미제침략자들은 우리의 도시와 농촌을 야만적으로 폭격하고 해안도시와 어촌들에 함포사격을 가하여 페허로 만들었으며 평화로운 인민들을 마구 살륙하는 귀축같은 만행을 수없이 감행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이 도발한 전쟁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3년여에 걸치는 간고한 전쟁의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 책에는 조선전쟁의 도발자인 미제가 공화국 북반부를 침략하기 위한 전쟁준비를 어떻게 다그쳤으며 침략전쟁계획은 어떻게 작성완성하였는가, 미제가 조선침략전쟁을 어떻게 도발하였는가 하는데 대하여 력사적사실자료들을 가지고 서술하였다.

차 례

미국과 조선문제

미국은 왜 남조선을 필요로 하였는가

야수의 나라 미국에 있어서 조선은 그지없는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대지였고 《황금덩이》였다.

조선은 아름다운 자연의 극치와 풍부한 자연부원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미제의 탐욕을 불러일으켰고 아세아대륙에로의 진출을 위한 침략의 유리한 발판으로서 그 전략적가치가 대단하였기때문에 미제의 탐욕을 더더욱 불러일으키는 나라로 되였다.

미제에게 있어서 조선은 대륙침략을 위한 아주 중요한 군사전략적거점이였고 발판이였다.

조선은 아세아라는 《고기덩어리》를 잘라내는 《단검》이라고 비유한 존 포스터 덜레스의 떠벌임이 그것을 실증하여주고있다.

미제는 억누를수 없는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고기덩어리》인 아세아대륙을 타고앉으려면 그것을 베여낼수 있는 《단검》인 조선을 손에 거머쥐여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조선을 타고앉지 못하고서는 아세아대륙에로의 침략의 진출을 할수 없었고 그렇게 되면 세기를 두고 익혀온 욕망을 실현할수도 없었다.

미제침략자들에게는 조선이 단순히 잉여상품판매시

장이나 전략자원의 공급기지로서만 요구되는것이 아니였다. 미제에게 있어서 남조선은 전조선을 강점하기 위한 병참기지로서 요구되였고 아세아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교두보로 필요하였다.

미제침략자들에게는 조선이 세계제패를 위한 전략적요충지로 필요하였다.

미제는 제2차 세계대전후 조선을 아세아대륙침략을 위한 발판으로,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적요충지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대조선정책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리해관계로부터 출발하여 작성된 대조선정책은 미제의 아세아대륙침략계획에서 핵을 이루고있었다.

조선은 그 지리적위치로 하여 미제의 아세아대륙침략계획수행에서 아주 중요한 군사전략적거점으로 되였다. 때문에 미제는 《대륙에로의 건늠다리》, 《극동의 전초선》이라고 하면서 참으로 풍요하고 군사전략적의의가 그 어디에도 비할바없이 큰 조선을 타고앉을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있었다.

맥아더는 저들의 이러한 속심에 대하여 《우리들은 쏘베트 씨비리와 남방을 끊어버리고 …울라지보스또크와 싱가포르사이의 전지역을 지배할수 있을것》이라고 로골적으로 줴쳤다.

맥아더의 이 발언은 조선과 아세아대륙에 대한 미제의 침략야망을 적라라하게 폭로하였다.

미제는 침략적목적에서 조선을 군사전략적요충지로 보았을뿐아니라 동서방간의 정치적대결점으로 보았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말로 하여 제놈들이 조선 38도선이남을 강점하게 되면 그 이북에는 필경 공산주의세력이 대두하게 될것이였다.

미제는 원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

신 항일혁명투쟁의 승리를 달가와하지 않았다.

미제는 일제를 군사경제적으로 《원조》하여줌으로써 조선에서의 공산주의세력을 짓뭉개고 1800년대부터 부르짖어온 조선《개방안》을 실현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미국인 씨 월터 양그는 만주의 룡정에서 《…만주에서 조선사람은 국제문제로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만주의 평화가 유린되는것이 일제에 의한 침략책동이 아니라 마치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동에 그 근원이 있는것처럼 사실을 외곡하여 보도하면서 일제의 대륙침략행위를 비호하고 지지해주었다.

미제는 일제를 군사경제적으로 적극 원호하여주었다.

원래 전략물자자원이 극빈하였던 일제는 《대동아공영권》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거의 모든 군사전략물자들을 수입에 의존하고있었다.

일본은 군사전략물자중에서 휘발유의 92프로, 철의 70～90프로를 수입에 의존하고있었는데 1937년에 미국은 일본이 필요로 하는 석유의 65프로, 자동차의 91.2프로, 동의 92.9프로, 선철의 41.6프로를 일본에 넘겨주었다.

또 미제는 1935년에는 350만딸라에 해당하는 군수품을 《관동군》에 넘겨주었고 1938년에는 1,700만딸라분에 해당하는 군수품을 《관동군》에 넘겨주었다.

미제는 이렇게 함으로써 조선공산주의운동을 완전히 말살해버리고 장차 조선에 대한 《통치》를 손쉽게 이루어보려고 꿈꾸었던것이다.

미제는 조선에 대한 《개방안》을 들고나온 때로부터 각방으로 조선을 강점할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왔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을 앞둔 시기부터는 더더

욱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미제의 이러한 야심은 조선을《아세아에서의 미국의 모든 성공이 달려있을지도 모르는 리념상의 싸움터》라고 규정한 트루맨의 말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트루맨은 이러한 견해로부터 남조선에 미군을 영구히 주둔시키며 민족을 반역한 남조선괴뢰들에게 《원조》를 주는 등 대책을 강구하였던것이다.

미제에게는 조선이 군사전략적기지로서뿐아니라 잉여상품시장으로, 전략물자공급기지로서도 필요하였다.

바이아스와 루즈벨트

1943년 11월에 진행된 까히라회담에서 발표된 까히라선언에서 3국의 우두머리들(루즈벨트, 처칠, 장개석)은 《조선인민의 노예상태에 류의하고 적당한 시기 조선이 자유독립국으로 되지 않으면 안될것을 결의했다》고 지적하였다.

이 문구는 미국대통령이였던 루즈벨트가 들고나온 기만적인것이였다.

루즈벨트에게 이러한 견해를 정립하여준것은 휴 바이아스였다.

바이아스는 1942년에 제놈이 쓴 책에서 《조선발전의 현단계에 있어서 자치를 하려 하는것은 무의미하다》고 결론하고 때문에 조선에 대하여서는 《신탁통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바이아스의 이 주장은 그대로 루즈벨트의 조선에 대한 견해로 정립되였던것이다.

그러면 까히라회담에서 루즈벨트가 들고나온 기만적인 문구 《적당한 시기》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통치경험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의 어용출판물까지도 루즈벨트는 미국의 필리핀통치경험으로 미루어 조선이 완전한 독립국가로서의 자치능력을 구비하기까지는 약 40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아 미국을 포함하는 2～3개국의 공동후견아래 실시되는 《신탁통치》안을 제기하였다고 썼다.

《신탁통치》에 대한 루즈벨트의 립장이 얼마나 집요하였는가 하는것은 테헤란회담(1943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때의 사실을 가지고도 능히 알수 있다.

11월 30일, 오찬석상에서 쓰딸린은 《조선을 독립시키고 만주, 대만, 팽호섬을 중국에 반환하는것이 정당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루즈벨트는 1944년 1월중순에 《조선사람은 아직 독립정부를 유지하고 행사할 능력이 없기때문에 40년간 후견하에 둘것…》이라고 함으로써 기어이 조선을 제놈들의 손아귀에 거머쥐고 식민지화하려는 침략의 검은 속심을 터놓았다.

루즈벨트는 1944년 2월에 있은 얄따회담에서 조선을 쏘련, 미국, 중국 대표 각 1명으로 되는 《신탁통치》하에 두는것이 좋겠다고 주장하였다.

루즈벨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쓰딸린은 《조선사람들이 그들자신의 만족할만한 정부를 세울수 있다면 왜 〈신탁통치〉가 필요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루즈벨트는 미국의 경험은 필리핀인의 자치를 위해서 준비시키는데 약 50년을 필요로 했다고 떠벌이면서 조선의 경우는 20～30년으로 끝날것으로 생각하고있다고 제놈의 립장을 집요하게 들고나왔다.

루즈벨트가 《신탁통치》안을 이처럼 집요하게 들고나온

데는 그럴만한 《리유》가 있었다.

미국은 조선에 대한 《개방안》을 1800년대초에 제기하고 여러차례의 침략책동을 감행하면서 조선을 제놈들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책동하였었다.

그랬으나 그 침략적야망을 실현할수 없었던 미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고있는 때에 어떻게 하나 조선을 제놈들의 식민지로, 아세아대륙침략을 위한 발판으로 타고앉으려고 꾀하였다.

그런데 문제로 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조선인민혁명군의 결정적타격에 의하여 일제침략자들이 격멸될 운명에 처하게 된것이다.

이것은 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강점하려던 미제의 야욕을 실현할수 없게 할것이였다.

때문에 미제는 조선에 대한 신식민지적지배체제를 고안해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고 그 산물로서 《신탁통치안》이 나왔던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제는 조선의 어느 한 지역이라도 강점하여 아세아대륙침략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방향으로 침략적야욕을 지향시켰던것이다.

바이아스의 《신탁통치》설에 대혹되여 조선을 류혈이 없이 타고 앉으려고 끈질기고 집요한 책동을 하던 루즈벨트는 1945년 4월 어느날에 죽음을 앞두고 부대통령이였던 트루맨을 불러놓고 선행정책을 이어달라고 넉두리를 하고는 죽고말았다.

그리하여 조선에 대한 루즈벨트의 침략적야망은 트루맨에 의하여 계속 집요하게 추구되였다.

《3성조정위원회》의 사명

1945년 8월 10일부터 미 국무성, 륙군성, 해군성의 3성조정위원회라는것이 운영되였다.

러스크나 본스틸과 같은 인물들로 구성된 3성조정위원회에서는 갑론을박하며 제시된 문제에 대한 의견일치에로 거리를 좁혀나갔다.

결국 그들은 일제의 무장을 해제할 이전 쏘련과 미국 두 지상군의 분담선을 북위 38도선으로 하자는데로 의견을 도달시켰다.

그러면 저주롭고 원한스러운 38도선을 그은 《3성조정위원회》라는것이 어떻게 되여 조직운영되였는가.

포츠담에서는 이전 쏘련과 미국의 수뇌자회담과 함께 군사회담이 진행되였다.

이것은 이전 쏘련의 대일전선참전이 확정되였기때문에 열리는 회담이였다.

여기에서 량자간에 지상군의 작전분담선은 토의되지 않았으나 미제는 일방적으로 조선을 강점할 흉계를 꾸미면서 서울 북방에 일제의 무장해제를 위한 이전 쏘련과 미국 량군의 분담선을 그으려 하였다.

미제는 도저히 버릴수 없는 침략의 야망을 품고있으면서도 당장 침략군을 움직일수 있는 형편이 못되였다.

그때 미군은 조선에서 600마일이나 떨어진 오끼나와섬과 1,500~2,000마일이나 떨어진 필리핀에 있었다. 했지만 미제는 그 미군을 조선에 빨리 수송할 능력이 없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조선강점은 그야말로 물거

품이 되고말것이였다.

이러한 실태에 대하여 트루맨은 후에 《우리는 그곳에 병력을 가지고있은것도 아니고 또한 반도의 남반부의 일부에 대한 이외에는 지상병력을 보낼수 있는 선박도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국무성은 조선 전령토의 일본군의 항복을 미군이 접수할것을 주장하였으나 미군은 일본본토에 최초에 진입시킬 상륙부대의 안정성을 희생으로 하지 않고서는 북조선에 병력을 보낼 시간적여유가 없었던것이다.》라고 실토하였다.

이러한 처지에 빠져있었던 미제는 교활하게도 조선인민혁명군의 진격을 그 어떤 국제적협정으로 저지시키고 조선의 남쪽만이라도 타고앉으려는 견해를 세우게 되였다.

전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고싶으면서도 당장 군대를 파견할 형편이 못되였던 미제는 조선의 절반땅이라도 타고앉을 《묘안》을 찾아 모대기였다.

후에 트루맨은 38도선을 조선의 분할선으로 하는것은 미국측에서 제안한 실제적인 《해결책》이였다고 썼다.

그 《해결책》의 고안자가 바로 트루맨의 명령에 따라 조직된 《3성조정위원회》였다. 이 《3성조정위원회》는 당시 조선을 강점하고있던 일제침략군의 구성에 따라 분할선을 긋기로 하였다.

일제는 패망을 앞두고 조선주둔군을 해체하고 그 지휘권을 나누어 38도선이북에 있던 침략군은 《관동군》 사령관의 지휘밑에 두고 그 이남에 있던 군대는 일본대본영직속부대인 제17방면군의 지휘밑에 두었다. 그리고 제놈들이 패망하는 경우에는 38도선을 기준으로 하여 《관동군》은 이전 쏘련극동군사령관에게 항복할데 대한 안을 세웠다.

한편 일제의 100만 《관동군》은 전투에서 련전련패하였

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은 조국진군작전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면서 진격속도를 더욱 높이고있었다.

이러한 정세는 전조선을 강점하려는 미제에게 커다란 불안을 주었다. 트루맨놈은 될수록 저항을 받지 않고 조선을 먹으려고 꾀하였으며 《3성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과업을 주었던것이다.

《3성조정위원회》는 일제침략군의 군사지휘권이 나뉘여진 38도선을 기준으로 그 이북의 《관동군》은 이전 쏘련극동군사령관에게, 그 이남의 제17방면군은 미극동군사령관에게 각기 항복시킬 《안》을 작성하여 트루맨에게 제출하였다.

트루맨은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서울을 포함한 38도선이남을 타고 앉을수 있게 된데 대하여 매우 만족해하면서 《일반명령 제1호》를 발표하여 조선의 절반땅을 제놈들이 타고앉을것을 문서화하여 련합국들에 통보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조선강점을 기성화하였다.

이전 쏘련과 미국 량군회담에서 륙해공군의 작전분담문제가 토의된 조건에서 저들의 욕심대로 전조선을 강점할수 없게 되자 미제는 조선의 남쪽만이라도 강점하고 이 지역을 아세아대륙침략의 발판으로 리용할것을 목적하여 38도선을 그었다.

결국 《3성조정위원회》라는것은 미제의 조선침략정책의 산물로 발족된것이며 저주로운 북남 분할선인 38도선을 조작하기 위하여 조직된것이였다.

강점군은 무엇을 하였는가

미군은 강점군이였다

해방된 조선은 감격과 기쁨으로 설레였다.

온 조선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새 조선 건설에 떨쳐나섰다. 헐벗고 굶주리며 천대받던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건국로선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섰다.

그러나 미제는 그것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겼다.

1945년 8월 20일 맥아더는 일제의 조선총독이였던 아베에게 남조선에서의 《치안》을 미군에 넘겨주기전까지 현지의 《치안》을 책임지고 《유지할것》이며 만일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엄격히 책임을 추궁할것이라는 《특별명령》을 보냈다.

약삭빠른 아베는 일본으로 들구뛰려던 애초의 결심을 바꾸어 서울에 그냥 눌러앉아 미국인들의 지시에 복종할 결심을 내리고 맥아더의 《특별명령》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맥아더는 이에 앞서 8월 19일에 비행기로 《전시첩보부》의 첩보원들을 서울에 보냈다.

이자들은 남조선에서의 《미군정》실시문제와 일본관리들의 《치안》에 대한 협력문제에 대하여 일본인들과 모의했다. 또 제놈들이 써먹을수 있는 반역자들을 장악하였고

정치활동가 및 《사상범》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한편 하지는 8월 21일에 비행기로 남조선 각지에 남조선 《군민에게 고함》이라는 《포고문》을 살포하였다.

하지는 《포고문》에서 남조선에 대한 미군의 강점을 선포하고 《주민의 경솔, 무분별한 행동은 의미없이 인명을 잃고 아름다운 국토도 황폐되여 재건이 지체될것》이라고 하면서 《장래의 남조선을 위하여서는 동란을 발생시킬 행위가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다고 남조선인민들을 위협하였다.

미제는 9월 7일 일본놈들의 물길안내를 받으며 침략군의 선발대를 인천에 상륙시킨데 이어 9월 8일에는 미 24군단 7사단 병력을 인천에 상륙시켰다.

이에 앞서 하지는 9월 6일 준장 해리스를 서울에 파견하였다.

비행기로 서울에 날아든 해리스는 일제《총독부》의 정무총감 엔또와 재무국장 미즈다, 체신국장 이또 등 놈들과 모의를 벌렸다. 이 모의에서 일본인들은 조선통치에서 필요로 되는 모든 자료들을 미국인들에게 넘겨주었다.

하지로부터 받은 명령을 《원만히》 수행한 해리스는 9월 8일 인천에서 하지를 희색이 만면하여 맞이하였다.

9월 8일 오후 1시부터 미 제7사단의 상륙으로 시작된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상륙은 10월중순까지 계속되였는데 그 병력은 미 제7사단, 6사단, 40사단의 주력 7만여명이나 되였다.

미제는 남조선에 상륙한 미군을 《해방자》라고 자화하였지만 미군은 실제에 있어서 침략자였다.

남조선에 강점상륙한 미군중에서 두개 사단은 38도선 전구간에 배치되였다. 38도선상에 설치된 미군초소는

108개였으며 괴뢰경찰초소는 132개였다. 이것은 매 1.3키로메터에 하나의 초소가 설치되였다는것을 말하여 준다.

일제가 《철통의 경비진》이라고 떠들던 압록강, 두만강 국경경비초소도 2키로메터 구간에 하나의 초소가 있었다는것을 고려할 때 미제가 설치한 38도선 초소의 성격을 과히 짐작할수 있는것이다.

미제는 38도선을 일제침략군의 무장해제를 위한 이전 쏘련과 미국 량군의 분담선으로 묘사했지만 그것은 분담선이 아니라 미제가 38도선 이남지역을 강점하고 이곳을 제놈들의 식민지로, 아세아대륙침략을 위한 군사전략의 발판으로 만들기 위하여 조작해낸 조선을 둘로 갈라놓는 선이였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군은 일제침략군의 병영, 비행장, 항만, 훈련기지들을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고스란히 넘겨받았으며 학교, 창고, 문화시설들을 강제로 빼앗아 침략군의 리용물로 만들어버렸다.

미군의 이런 행위가 《해방자》라는 명색에 어울리는것인가.

남조선에 와서 그 현실을 본 마크 게인은 《우리는 해방군이 아니였다. 우리들은 점령하기 위해서, 조선사람이 항복조건에 복종하는가, 안하는가를 감시하기 위하여 온것이다. 우리는 상륙 첫날부터 조선인민의 적으로 행동하였다.》고 실토하였다.

이처럼 침략적목적을 안고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미제는 남조선에 군정을 실시하였다.

군정은 두 대전국간의 싸움에서 패한 나라에 이긴 나라가 실시하는 하나의 통치형식이다.

38도선 이남 남조선지역에 군정을 실시한것은 미군이 《해방자》가 아니라 강점자, 침략자였다는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실증하여주는것이다.

미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패국인 일본에 대하여서는 군정을 실시하지 않고 간접적인 통치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에는 일제의 총독통치를 그대로 두고 그것을 리용하여 남조선을 통치하려고 하였다.

때문에 8월 20일 맥아더가 일제의 조선총독이였던 아베에게 남조선에서의 《치안》을 유지할것을 명령하였으며 그후 아베만은 일본으로 보내고 총독부의 정무총감이였던 엔또와 다른 국장들은 《고문》의 명목으로 남조선에 그냥 남겨두고 군사통치를 실시하였던것이다.

미24군단장 하지는 아베와 일제의 대본영직속 제17방면군 사령관 우에쯔끼로부터 총독통치의 구체적인 내용 즉 그 경험을 들었다.

서울에 기여든 하지는 9월 12일에 《총독부는 일본인이 통치한 기관이기는 하지만 당분간 쓸 기관이 따로 없으므로 이 기구를 리용한다.》고 선포함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각지에 수립되여 활동하던 인민위원회들을 무시하여버렸다.

하지는 9월 20일에 발표한 군정청조직에 관한 명령에서 군정청이라는것은 《민주주의정부》를 수립할 때까지의 《과도적기간에 38도선이남의 조선지역을 통치, 지도, 지배하는 련합국군총사령관의 밑에 미군에 의하여 설립된 림시정부》이라고 선언하고 남조선인민들에게 군정의 《명령에 순종 안하면 독립의 날을 지연시키며 처벌의 원인을 만들뿐이다.》라고 위협하였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의 침략적성격은 맥아더의 《포고》에도 로골적으로 내포되여있다.

맥아더는 《포고》 제1호에서 《…본관은 본관에게 부여된 태평양미륙군의 최고권한을 가지고 이로부터 조선 북위 38도이남지역과 국민에 대하여 군정을 실시함.

…조선 북위 38도이남의 지역과 동국민에 대한 모든 행정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하에 실시함. 주민은 본관 및 본관의 권한하에서 발표한 명령에 즉속 복종할것.

점령군에 대하여 반항행동을 하거나 또는 질서보안을 문란히 하는자는 용서없이 엄벌에 처함》이라고 선포하였으며 《포고》 제2호에서는 포고나 명령, 지시를 위반하거나 미국인 또는 기타 련합국의 인명과 소유물, 《보안》을 해한자, 《공동치안질서》를 교란한자, 《정당한 행정》을 방해하는자, 《련합군》에 대하여 고의로 《적대》행위를 하는자는 《점령군 군률회의에서 유죄로 결정한후》 그 결정에 따라 사형 또는 다른 형에 처한다고 위협공갈하였다.

이것은 완전한 자주독립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로골적인 위협이였다.

하지는 우에쯔끼에게 미군이 주둔하지 못하고있는 지역에는 일제침략군을 그대로 주둔시키며 그 병력의 25프로에 해당하는 인원들에게는 무기를 휴대시키며 일제침략군장교들에게는 군도를 그냥 차고다닐것을 허락하고 주둔지역의 《치안유지》를 책임질것을 명령하였다.

미제는 《군정장관》으로 악명높은 아놀드놈을 임명하고 《군정장관 최고고문》으로 친일매국자들인 송진우, 김성수, 김동원 등을 비롯한 9명의 매국역적들을 임명하였으며 1946년 2월에는 만고역적 리승만을 《의장》으로 하는 《군정》의 자문기관을 조작해냈다.

이렇게 되여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적통치기구인 《군정》에는 극악한 민족반역자들이 들어앉게 되였으며 미제는 《군정》을 더욱 강화해나갔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군은 민주주의교살의 괴수로 등장하여 남조선에서 일체 민주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 압살해버렸다.

1945년 10월에 들어와서 하지는 《군정청은 남조선의 유일한 정부》라고 줴치면서 남조선각지에 조직되여 활동하던 인민위원회들을 총칼로써 탄압해산해버렸다.

미제는 남조선의 모든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금지, 제한하였다. 그리고 1946년에 일어난 남조선인민들의 9월총파업과 그후의 10월인민항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마크 게인은 《우리들(미군)이 인민공화국(인민위원회)에 빨갱이딱지를 붙여 그것을 지하에 몰아넣는데 옹근 2개월이라는 시간을 쓸모없이 보내버렸다.》고 하였으며 당시 미국의 한 출판물은 《우리들(미군)이 조선을 점령하여 얻은것에서 가장 중요한것의 하나는 우리가 여기에서 혁명을 저지시켰다는것》이라고 로골적으로 씀으로써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의 성격을 스스로 드러내놓았다.

이러한 사실은 미군은 《해방자》가 아니고 침략자였으며 군정은 남조선에서의 자유독립국가건설을 도와주는데 그 목적을 둔것이 아니라 남조선을 식민지화하고 군사전략적발판으로 하여 아세아대륙의 《고기덩어리》를 먹어보려는데 목적을 두고있은 침략기구였다는것을 적라라하게 말해주고있다.

《극동의 전초기지》는 왜 건설했는가

미군으로 하여금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게 한 트루맨은 아이젠하워, 니미츠, 리히 등 장성들에게 남조선의 전략적가치문제에 대하여 연구하도록 명령하고 한편으로는 웨드마이어를 남조선에 보내여 현지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정립하도록 하였다.

아이젠하워와 리히 등은 남조선에 2개 사단의 병력만을 두어서는 그것은 오히려 군사적부담으로 된다는데 대하여서와 미 24군단은 본격적인 무력증원을 받지 않으면 위험에 빠질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보고서를 국무성에 제출하였다.

한편 트루맨의 지시에 의하여 남조선에 왔다간 웨드마이어는 《현실적인 행동지침》이라는것을 트루맨에게 제출하였다.

《현실적인 행동지침》의 중점적인 내용은 조선을 군사적으로 영원히 강점하되 이전 쏘련군이 먼저 철수하는 경우에 미군이 그냥 남조선을 강점하고있으면 국제적인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미군이 철수하는 시기를 옳게 정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남조선괴뢰들을 무장시켜야 한다는것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조선에 무기 및 장비 공급을 포함한 군사원조를 주어 《북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할수 있는 충분한 력량을 마련해야 한다는것이다.

트루맨은 아이젠하워, 리히, 니미츠 등이 제출한 보고

에 대하여서는 미국이 남조선에 적은 무력을 주둔시켜가지고는 전략적으로 리로운 점이 없다는것으로 리해하였으나 웨드마이어의 견해에 대하여서는 완전히 공감했고 그의 의견을 따르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미군이 강점한 남조선에서는 괴뢰무력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였다.

미제는 1945년 11월 13일에 《군정법령》 제28호를 공포하고 그에 따라 《군정청》안에 군사국을 내왔다.

이 군사국에는 륙군부와 해군부를 두고 경무국과 함께 《국방사령부》의 지휘를 받게 하였다. 그리고 1945년 12월 5일에는 《군사영어학교》를 새로 내왔다.

이 《군사영어학교》에는 채병덕, 정일권, 장창국, 원용덕, 백선엽, 리후락, 장도영, 송요찬 등 알쭌한 민족반역자 110여명이 망라되였다.

이자들은 모두 일제의 륙군사관학교와 학도병, 지원병 출신이거나 괴뢰만주군, 장개석군대 출신들이였다.

미제가 조작한 《군사영어학교》에서는 참모학, 륜전기재학, 병기학 등 군사학을 기본으로 교육하였는데 그 기한은 40일이였다.

미제가 《군사영어학교》를 조작한것은 앞으로 조작하게 될 《국방경비대》의 《핵심》을 육성하기 위해서였다.

《군사영어학교》는 그후 페지되고 그대신 《국방경비대사관학교》가 나왔고 1948년 9월 5일에는 《륙군사관학교》가 설치되였다.

미제는 이처럼 군사교육기관들에서 괴뢰군사인원들을 키워내는 한편 1946년 3월에 《국방사령부》에 종속시켰던 《경무국》을 독립시키였다. 그리고 1946년 1월 14일에 《국방경비대》를 조작하였으며 15일부터는 9개 련대에 달하는 무력을 조직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조직된 무력의 통수권은 미국인들이 다 장악하

고있었다.

미제는 1948년 9월 1일 5개 려단(15개 련대)과 제1기갑련대, 《해안경비대》를 기본으로 하여 괴뢰군을 편성하였다.

미제는 1948년 8월말까지 10만에 달하는 8개의 보병사단(1, 2, 3, 4, 5, 6, 7, 8 보병사단)과 수도사단, 3개의 독립대대(1, 2 독립대대, 영등포학원, 호림부대), 2개의 독립련대(기갑련대, 포병련대), 3개의 단(의무단, 공병단, 통신단) 등을 조직하였다.

한편 미제는 1948년초부터 공군조작을 준비해오다가 9월에 이르러 《륙군항공군사령부》를 내오고 미국제와 일본제 비행기로 장비한 1개의 비행단과 기지보장부대를 조직하고 괴뢰공군사관학교를 내왔다.

뿐만아니라 총 79척의 함선을 가진 4개의 해군정대(1, 2, 3 정대와 3훈련정대)를 비롯하여 9개(인천, 군산, 목포, 부산, 영등포, 묵호, 포항, 제주, 진해)의 괴뢰해군기지와 괴뢰해군사관학교 등으로 편성된 괴뢰해군무력도 창설하였다.

미제는 1949년 한해동안에 1억 9,000만딸라에 해당하는 10만 5,000정의 미국제보총과 4만정의 일본제보총, 2,000문이상의 각종 포, 2,000여정의 기관총, 4,900대의 군용차량들을 남조선괴뢰군에 넘겨주었다.

한편 미제는 남조선에서 군사기지건설을 대대적으로 벌렸다.

미제는 1947년 10월 이전에 150만딸라를 투자하여 서울—인천간, 서울—부산간 도로를 대대적으로 확장하였으며 김포비행장을 경유하는 서울—인천사이의 군용도로와 38도선 이남지역에 횡단도로를 새로 건설하거나 확장하였다. 또한 제주도의 모슬포비행장을 비롯하여 김포, 원주, 함안, 남원, 수원, 광주, 대구 등지에 침략적

공군기지를 신설 또는 확장하였다. 그리고 38도선 이남 연선지대들에 수많은 비행기착륙장을 건설하였다.

그리고 300만딸라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들이밀어 포항항구를 군항으로 개축확장하였고 인천, 부산, 진해, 려수 등의 항만을 개축하였으며 목포, 군산, 묵호항을 군항으로 건설하였다.

이리하여 남조선에는 불과 3~4년사이에 71개에 달하는 군사기지가 건설되여 온 남녘땅이 침략기지로 전변되였다.

미제는 남조선괴뢰군의 통수권을 《미군사고문단》을 통하여 저들이 틀어쥐고 괴뢰군을 미군의 야수적기질로 길들였다.

미국출판물인 《뉴욕타임스》지의 서울특파원은 남조선괴뢰군에 대하여 《미국장교들이 훈련시킨 모든 외국군대들가운데서 남조선군대는 가장 미국화된 군대이다. 그들은 미국제군복을 입고있으며 미국제자동차를 타며 미국제무기를 휴대하고 여러해에 걸치는 맹훈련》을 한 결과 《미국인처럼 행동한다》고 썼다.

미제는 이처럼 남조선을 《극동의 전초기지》로 전변시키고 침략전쟁준비를 다그치는 한편 일단 유사시에는 남조선을 지원할수 있도록 남조선 가까운곳에 해외기지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였다.

미제는 일본의 고베, 요꼬스까, 아오모리, 아끼다, 야모도, 데미즈, 삿뽀로, 도시까, 고무아께, 오끼나와에 륙군기지와 함께 공군기지를 건설하였으며 마샬군도, 카롤린군도, 마리아나제도, 류뀨렬도, 오가사하라제도, 류오렬도 등에는 공군 및 해군 기지를 건설하였고 괌도에는 400여척의 현대적군함들을 동시에 수용할수 있는 군항을 건설확장하였다.

그리고 사이판도에는 중폭격기기지를 건설하였고 필리

핀의 스비크만에는 대규모의 해군기지를 건설하였다.

한편 미제는 제8군관하의 7, 24, 25사와 제1기갑사단은 일본에 주둔시키고 제29독립련대는 하와이에 배치하였다. 괌도, 마샬군도, 필리핀에도 각각 1개씩의 독립련대를 배치하였다.

남조선을 비롯한 그 주변에 배치한 미군의 총병력은 14만 9천명이였는데 그중에서 12만 7백여명의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고있었다.

미제는 공군 및 해군 무력을 배치하는데 있어서도 조선전쟁의 경우와 아세아대륙에 대한 침략적야욕을 고려하였다.

놈들이 일본본토와 그 주변의 섬들 그리고 필리핀에 배치한 비행기는 1,200여대에 이르렀는데 그중 700여대가 일본에 있는 기지들에 있었다.

미제는 륙군과 공군 무력뿐아니라 해군무력도 가장 짧은 시간내에 조선에 닿을수 있는곳에 배치하였다.

이 모든 사실은 미제가 건설한 《극동의 전초기지》가 어떤 사명을 띠고있는가 하는것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태평양전쟁에서 맥이 빠진 미제는 당장 탐욕스러운 《고기덩이》 아세아대륙을 평정할 침략전쟁을 일으킬 형편에 있지 못하였기때문에 유리한 시기를 노리면서 침략무력의 배비를 조선과 가까운곳에 하였던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세아대륙에로의 《건늠다리》를 확보하기 위한 조선침략전쟁에 제놈들의 무력을 신속히 기동투입하여 속전속결할것을 타산하였으며 또 대륙침략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려고 하였던것이다.

무엇에 필요한 작전계획인가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미제는 《까또》라고 명한 기관을 조작하였다.

미제는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략계획작성을 위하여 조작한 비밀기관을 《까또》라고 명하였는데 그것은 이 기관에 고용하였던 전 일본륙군참모본부 차장이였던 중장 가와베 도라시노와 참모본부 정보부장이였던 중장·아리스에 세이조, 소장들이였던 다나까 싱이찌와 오노 데라의 이름 첫 글자를 따서 영어로 표기한데서 나온 명칭이다.

미제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제의 전범자들을 처벌할 대신에 그들을 비밀리에 규합하고 보호해주면서 저들의 새로운 침략전쟁준비의 하수인으로 리용하였다.

당시 쏘련 하바롭쓰크국제공판에서는 일제의 전범자들이 국제법에 따라 응당한 처벌을 받았으나 미제의 손에 들어간자들은 털 한오리 상하지 않았을뿐아니라 오히려 보호를 받으며 미제의 침략정책수행에 적극 복무하였다.

일제의 조선《총독》이였던 아베, 대본영직속 제17야전군사령관 우에즈끼, 하또리를 비롯한 20여명의 장성들, 일제의 731부대 부대장이였던 이시이 시로를 비롯한 세균전 전범자들은 미제의 비호밑에 다시 부활의 길을 걸게 되였다.

미제가 패망한 일제의 전범자들을 규합하고 보호해준것은 그자들이 조선문제에 대하여 밝았을뿐아니라 《대아세아전략가》들이였고 세균무기개발의 《권위자》들이였기때문이였다.

미제는 아세아대륙에 생소하였고 또 세균무기개발에서

도 일제의 세균무기전문가들보다 뒤떨어져있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조선과 만주, 연해주 지방에 대한 깊은 파악과 실전경험까지 쌓은 일제의 군사전문가들이 미군에 필요하였고 일제의 세균무기개발기술이 또한 미군에 필요하였던것이다.

그리하여 미제는 《까또》기관과 《력사반》이라는것을 조작하여 처벌받아야 할 전범자들을 규합하고 보호하면서 저들의 침략정책작성에 복무하도록 하였던것이다.

《까또》에 망라된자들은 미극동군사령부의 극동전략구상과 일제침략군의 재무장에 관한 대책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자들의 연구대상은 전범자들에 대한 석방, 《적색숙청》, 《경찰예비대》조작 등 일제의 재군국화문제였다.

한편 하또리를 중심으로 한 《력사반》은 명목상으로는 《전쟁사》를 편찬한다는것이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전문적으로 전쟁계획을 연구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1830년대전반기부터 이러저러한 구실을 걸고 조선 동서해연안에 침입하여 해도작업을 은밀하게 하긴 하였으나 그것은 현대전의 작전계획에 리용할 가치를 가지고있지 못한것이였다.

그러므로 남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략전쟁을 도발하여야 할 미군에게 있어서 북반부는 지리나 풍속에 있어서 전혀 생소한것이였으며 더우기는 해도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도 가지고있는것이 없었다.

이런 미제에게 있어서 조선의 지리와 풍속에 밝고 해도에 대하여서도 잘 알고있으며 조선과 만주, 연해주에서의 실전경험을 가지고있는 일본인들이 절실히 필요하였던것이다.

때문에 미제는 전범자로서 응당 처리를 받아야 할 자

들을 비밀리에 빼돌려 그들을 보호해주었다.

미제의 이러한 《관대한 처분》에 감지덕지함을 금할수 없었던 쪽바리 왜놈들은 미국인의 사타구니에 착 달라붙어 상전을 위하여 《멸사봉공》을 맹세하고 미군의 아세아대륙전략계획작성에 적극 가담하였다.

미제는 이 수급 졸개들에게 저들의 극동전략에 대하여 주입시켰다.

일본이 《장래의 도약대》라면 《조선은 대륙에로의 건늠다리》라고 하면서 조선의 전지역을 점령하여야 《우리들은 쏘베트 씨비리와 남방을 련결하는 유일한 보급선을 산산이 끊어버리고…울라지보스또크와 싱가포르사이의 전지역을 지배할수가 있을것이다.》라고 한 맥아더의 떠벌임은 《까또》와 《력사반》 활동의 지침으로 되였다.

그것은 이놈들이 작성한 《A, B, C 계획》이 그대로 실증해주고있다.

1949년에 완성되였던 《북벌》작전계획도 《까또》와 《력사반》이 중심이 되여 작성한것으로 알려져있는 (A)계획의 기본내용이다.

1949년 10월에 하또리가 이전 일제의 특무기관의 장교들을 데리고 서울에 기여들었고 뒤이어 일본 나가노학교 졸업생 20여명이 또 남조선에 기여들었다.

이자들은 일본을 떠날 때에는 미군이나 남조선괴뢰군 군복을 입고 《외국인》으로 행세하면서 비밀리에 일본을 떠났고 남조선에 와서는 미군이나 괴뢰군으로 행세하면서 제놈들을 위장하였다.

여기에 괴뢰군의 정일권과 김석원이 관계하면서 《북벌》작전계획이 완성되였으며 이것은 맥아더사령부를 거쳐 트루맨에게 제기되였고 그의 비준을 받아 남조선에 넘겨졌다.

미제는 《까또》와 《력사반》에 의하여 세 단계로 갈라서

작성한 작전계획을 《A, B, C 계획》이라고 명명하였다.

그 첫째 단계인 《A계획》은 《대륙에로의 건늠다리》의 절반부분인 공화국북반부를 무력으로 점령함으로써 《대륙에로의 건늠다리》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추는것이였다.

이 계획은 38도선에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 10개 사단을 집결하고 2개의 작전구역 즉 서부와 동부로 갈라서 작전구역분담을 한다는것이였다.

서부의 작전구역의 부대들의 임무는 평양으로 곧바로 진격하며 평안남도의 한천에 상륙한 부대들과 협동하여 평양을 일격에 점령하는것이며 동부작전구역의 부대들의 임무는 《좌익》은 원산을 향하여 진격하며 《우익》은 양덕으로 공격성과를 확대하여 평양과 원산사이의 련락을 유지하는 한편 함경남도의 정평에 상륙부대를 투입하여 협동을 이룩함으로써 단시일안에 전조선을 점령함으로써 첫단계의 작전목적을 이룩하는것이였다.

둘째 단계인 《B계획》은 《대륙에로의 건늠다리》를 완벽하게 마련한 다음 《잔존부대》에 대한 《추격》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조중국경을 돌파하는것으로 시작하며 이 단계의 《작전》에는 재무장된 일본군과 장개석군대도 정식으로 전투에 개입함으로써 둘째 단계의 작전적목적을 이룩하게 되여있다.

셋째 단계인 《C계획》은 미제의 아세아대륙전략의 최종목표인 이전 쏘련의 씨비리지역을 군사적으로 강점하는것이였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울라지보스또크로부터 싱가포르에 이르는 《고기덩어리》를 차지할수 있을것이였다.

이 《계획》의 실재의 여부는 미군사고문단의 미국인들이 괴뢰군들에게 거의 매일과 같이 《북조선》을 무력으로

《점령》해야 할뿐아니라 《만주까지도 점령》하여야 한다고 열을 올리면서 사병들의 《사기》를 돋구기 위하여 광분하였다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이 작전계획은 두말할것도 없이 공격적성격을 띤 침략계획이였다.

놈들이 표면에 내들었던 《공산군의 침입》은 미제자신이 부인한 사실이다.

맥아더사령부의 정보국이 제출한 보고를 검토한 미국무성은 《북조선의 침략의 가능성은 없》는것으로 인정하였으며 미군부 우두머리들도 《현재 북조선으로부터의 침공가망은 박약》하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방어가 아니라 공격적성격의 작전계획인 《A, B, C 계획》을 세운것은 전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고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중국을 침략하며 울라지보스또크로부터 싱가포르에 이르는 광대하고 자연부원이 풍부한 동아세아를 타고앉을 침략적욕망때문이였다.

《후방안정》의 본질

미제는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후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략전쟁계획을 2번에 걸쳐 작성하였다.

그 하나는 1949년에 북반부에 대한 침략전쟁을 일으키게 되여있는 계획이였다.

미제가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략전쟁계획을 작성해놓고는 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였는가.

그 하나의 원인은 1949년에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략전쟁을 일으키도록 작성된 침략전쟁계획을 가지고는 전쟁도발의 책임을 공화국북반부에 넘겨씌울수 없었기때문이였다.

놈들의 그 침략전쟁계획은 38도선에서의 전면적인 무력침공과 함께 평안남도의 한천과 함경남도의 정평에 침략군을 상륙시켜 평양이북과 평양을 차단하고 인민군대를 《포위소멸》하도록 되여있는것이였다.

평안남도나 함경남도의 해안에 상륙하는 식으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는 결코 공화국북반부에서 《남침》하여 조선전쟁이 발발되였다고 세계를 속일수 없었다.

다른 하나의 원인은 적들의 후방이 《안정》되여있지 못한것이였다.

미제는 1948년 10월 16일, 괴뢰군려수주둔 14련대(1948년 5월 4일 조직)에 한개 대대를 동원하여 제주도 인민항쟁을 탄압할데 대한 명령을 내렸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괴뢰군안의 애국적사병들은 《제주도출동거부병사위원회》를 조직하고 격문을 만들어 뿌리고 폭동을 일으켰다.

그들은 격문에서 《우리는 조선인민의 로동자, 농민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제주도인민들을 무차별학살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출동시키려는 작전에 조선사람의 아들로서 조선동포들을 학살하는것을 거부하고 조선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총궐기하였다.》고 강조하였다.

폭동군인들은 려수를 해방하고 순천으로 진격하였다.

여기에 려수군인폭동진압을 위하여 동원되였던 광주주둔 괴뢰군 4련대(1946년 2월 15일 조직)의 300여명 괴뢰군사병들이 합세하였으며 뒤이어 이 련대의 250명 사병들이 또 합세하였다. 폭동군인들은 세개 방향으로 진격하면서 적들을 쳐부시였으며 8개 군을 완전히 해방하고 4개 군의 일부를 해방하였다.

인민들은 손에손에 공화국기를 들고 폭동군인들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폭동군인들은 주동적인 유격전술로 넘어가 전라남북도

와 경상남북도, 남조선 강원도의 일부 지역을 포괄하는 근 38개의 군에서 무장투쟁을 줄기차게 벌렸다.

여기에 괴뢰군 15련대(1948년 5월 4일 조직)의 1대대 2중대 1소대 군인들아 합세하였고 뒤이어 부산 5련대(1946년 1월하순 조직)의 300여명, 대구주둔 6련대(1946년 2월 18일 조직)의 800여명과 이 련대의 포항주둔부대 괴뢰군사병들이 합세하였다.

이러한 속에서 1949년을 맞이한 남녘땅은 더더욱 세차게 타오르는 인민적항쟁의 불길속에 휩싸였다.

이처럼 《안정》못된 후방을 가지고는 결코 전쟁을 일으킬수 없었던 미제는 침략전쟁계획을 다시 세우는것과 함께 《후방숙청》놀음을 대대적으로 벌렸다.

미제에게는 남조선의 애국적민주력량이 그야말로 《우환거리》였다.

이 《우환거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1949년 4월에 서울주재 미국대사였던 무쵸는 《내무장관》 김효석과 경찰고문 뻬아드에게 《당신들은 국내치안의 유지를 위한 중심인물들이다. 대통령각하는 조선전쟁준비에서 후방안정에 대하여 각별히 주의를 돌리고있다. 그런데 현 내무사태는 락관적이 되지 못하고있다. 특히 군부내에 좌익세력이 횡행하고 유격대의 활동이 도처에서 벌어지고있다.

조선전쟁을 일으키는것은 기정사실로 되여있다. 그런데 후방안정은 매우 위험하다.》

무쵸놈은 계속하여 《정권》을 유지하고 《치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고 훈시하고 김효석이 《내무부장관》으로서 《치안》을 유지하려면 《남로당계렬을 근본적으로 궤멸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이 모든것은 〈트루맨주의〉를 실현하기 위한것》이라고 력설했다.

무쵸는 또한 1948년 6월상순에 로버트, 뻬아드, 신성

모, 권승렬, 김효석을 미국대사관에 불러다놓고 《앞으로 7, 8월에 북벌을 단행할 그때에 있어서는 다른 준비도 필요하지만 국가보안법을 가혹히 적용하여 반정부세력과 남로당계렬을 대량 검거하여 내부충돌을 철저히 방지하는것이 더욱 필요하니 이 검거에 치중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전 괴뢰내무부장관이였던 김효석의 1950년 9월의 증언)

무쵸의 지시에 의하여 놈들은 《국가보안법》을 마구 휘둘러 남조선 전역에서 전대미문의 체포와 투옥, 학살 만행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남조선의 애국적민주력량과 남로당계렬에 대한 이러한 야수적만행은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략전쟁도발시 있을수 있는 《내부충돌을 철저히 방지》할것을 목적으로 하여 감행된것이였다.

때문에 놈들은 그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미제의 대조선정책에 유해롭다고 인정되면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놈들의 이러한 탄압만행을 다음과 같은 부류로 갈라볼수 있다.

첫째 부류는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일단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면 가차없이 체포구금하는 탄압만행이다.

김효석은 《투망전술》이라는것을 고안해가지고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체포, 투옥 하였다. 그것은 한개 구획에 불의에 달려들어 완전히 포위한 다음 《류숙신고제》를 내걸고 집집을 수색하면서 주민대장에 등록되여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가두는 《전술》이였다.

놈들의 이러한 야만적만행에 의하여 1949년 1년간에만도 11만 8,621명이나 체포, 투옥 되였다.

둘째 부류는 정치적인 사건을 날조하여 정치적적수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하는것이였다.

매국역적 리승만도당은 남조선에서의 미군의 철수와 북남통일을 주장한 《국회의원》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법

원프락치야사건》, 《경찰프락치야사건》, 《국회프락치야사건》을 날조하였으며 이 과정에 13명의 《국회의원》들을 체포하였다.

놈들은 정치적적수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치공작대사건》, 《남로당 남조선정치공작위원회사건》 등 사건들을 조작하였으며 100여명의 애국자들을 체포, 투옥, 학살하였다.

정치적적수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놈들은 개인테로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김구와 려운형을 비롯한 애국적민주인사들에 대한 암살만행은 모두 미제의 지시에 의하여 《후방안정》의 명목하에 감행된 인간살륙만행이였다.

그것이 얼마나 야만적이였던지 리승만괴뢰정부의 부대통령이였던 리시영은 《헌법은 무력한것으로 되고있다. 나는 테로와 학살을 두려워한다. 관리의 어느 하나도 그 지위에 있을 보증을 받을자는 없다.》고 공포의 비명을 올렸다.

세번째 부류는 남조선인민유격대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만행이다.

놈들은 《유격대토벌사령부》를 조작하고 그 아래에 지리산지구, 태백산지구, 오대산지구, 동해안지구, 중앙지구로 된 《토벌사령부》를 설치하였으며 인민유격대 《토벌》에 6만의 병력과 비행기, 땅크, 장갑차, 박격포, 로케트포까지 대대적으로 투입하였다.

그리하여 항쟁의 남녘땅은 애국적인민들의 피로 물들었다.

놈들은 1949년 7월부터 1950년 1월까지사이에만도 10만 2천여명의 애국적인민들을 무참히 학살하였으며 침략전쟁도발직후에는 서울에서만도 1,200여명의 남로당원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네번째 부류는 언론에 대한 야수적인 탄압이다.

출판물을 통한 사회적여론의 환기를 몹시 두려워하였

던 미제와 리승만괴뢰도당은 《신문지법》을 휘둘러 《서울신문》을 발행정지시켰으며 《세계일보》와 《국제신문》을 페간시켰다. 또 《국민신문》과 《대한일보》는 판권을 빼앗겼고 《수도신문》은 반리승만기사를 실은것으로 하여 페간되였으며 《화성매일신문》은 조국전선의 호소문을 실은것으로 하여 강제페간되였다.

놈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신문을 통하여 인민들에게 진실이 알려지지 못하게 하며 신문들을 어용화하여 제놈들의 반동적인 정책의 추종자로 만들려고 하였다.

마지막 부류는 《숙군》책동이다.

당시 괴뢰군내부에서는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우선 괴뢰군내의 애국적군인들은 침략적인 미제의 식민지정책에 도전하여 악질적인 반동장교들을 처단하고 투쟁에 궐기하였으며 그들은 인민유격대에 합류되여 반미애국투쟁을 줄기차게 벌렸다.

다른 한편 미제의 《북침》침략전쟁정책을 반대한 많은 애국적군인들은 집단 혹은 개별적으로 계속 공화국북반부에로 의거하여왔다.

1948년 6월 7일 목포에 기지를 둔 해안경비함정인 《고원정》의 함장 이하 29명 전원이 치욕스러운 괴뢰군살이를 박차고 공화국북반부에로 함선을 몰고 의거해왔다.

그들은 한나산유격대에 보총탄알 수천발과 기타 수많은 군수물자를 보내주는 등으로 유격대를 도왔는데 이사실이 탄로되여 탄압의 마수가 뻗쳐오자 용단을 내려 공화국북반부로 의거해왔던것이다.

또한 묵호에 기지를 둔 《통천정》의 선장이하 29명의 함성원 전원이 배를 몰고 의거해왔으며 괴뢰군 8려단소속 춘천주둔 제1대대 대대장이하 대대 전원이 1949년 5월 5일에 공화국북반부로 의거해왔다. 그리고 괴뢰군 6려단소속 홍천주둔 8련대 2대대도 전 대대가 의거입북하였으며 영

등포 여의도에 기지를 둔 괴뢰군비행사는 1948년 11월 18일 비행기를 몰고 공화국북반부로 의거입북하였다.

계속되는 군인폭동,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의거입북사건들은 괴뢰군내부를 심히 혼란시켰으며 괴뢰군의 전투능력을 약화시켰다.

이러한 사태를 수습하고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략목적을 실현하게 하며 극동침략정책의 돌격대이며 아세아에서의 저들의 리익을 보호해줄 충실한 번견인 괴뢰군의 《내부정돈》을 위하여 미제는 《숙군》소동을 벌렸다.

《숙군》은 괴뢰군내부의 《공산주의자》를 제거한다는 명목을 전면에 내들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애국적진보력량을 군대내에서 제거해버리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미제는 정보국장이였던 백선엽을 두목으로 하고 김창룡 등 악질분자들로 《조사반》을 조작하였으며 광범한 범위에서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숙군》만행을 감행하였다.

놈들의 이러한 만행으로 하여 근 8,000명의 장교들과 사병들이 체포, 투옥되였으며 무참히 학살당하였다. 그들 대부분이 사병들이였으나 그중에는 려단참모장, 련대급의 장교들, 대대급의 장교들과 중하층장교들도 수백명이나 포함되여있었다.

미제가 이처럼 《숙청》과 《숙군》만행을 감행하여 《후방안정》을 도모한것은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전쟁을 도발한 다음 그들 자신이 말한것처럼 《내부충돌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치였다.

이것은 미제가 침략전쟁준비를 위하여 얼마나 악랄하게 책동했으며 또 모든 준비를 얼마나 빈틈없이 갖추었는가를 말하여주며 결국 미군은 《해방자》가 아니라 강점자이고 침략자이며 조선전쟁의 도발자라는것을 반박할 여지없이 실증해주고있다.

전쟁의 전주곡은 언제부터

1945년 9월,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한 미군은 그 해말까지의 사이에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무장침입은 6차례, 총포사격은 5차례에 걸쳐 감행하였다.

이것은 조선전쟁도발의 전주곡이였다.

이에 대하여 도서 《조선전쟁:대답없는 질문》의 필자는 《조선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전례없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충돌의 결과가 아니였다.》고 쓰고 계속하여 《전쟁이 일어나기전 여러해동안 반도 량쪽사이의 충돌은 계속되였으며 1949년에는 서울의 압력에 따라 그 격렬성이 더해졌다.》고 까밝혀썼다.

여기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조선전쟁의 전주곡은 미군이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울리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날이 갈수록 더욱 열기를 띠였다.

미제는 1945년 9월 이래 이해말까지 10명의 미군을 포함하여 모두 61명의 악당들을 38도선 이북에 침입시켰으며 2명의 인원을 살해하고 1명에게는 부상을 입혔다.

이 기간 미군의 조종하에 감행된 적들의 무장침입으로 하여 우리 측이 입은 피해는 총 217점에 달한다.

여기에는 략탈당한 집짐승과 방화나 파괴로 하여 손실된 건물도 포함되여있다.

미군은 륙군부대들과 함께 함선 및 비행기를 동원하여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군사정찰을 감행하였는데 이것은 미 제24군단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감행되였다.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무장도발은 1946년에 들어서면서 더욱 로골적이면서도 대규모적으로 감행되였다. 1946년에 공화국북반부에 침입한 미제침략군수는 62명으로서 1945년의 6배에 달하였다.

1947년에 들어와서 적들의 무장도발은 더욱 우심해졌다. 이해에 적들이 공화국북반부에 침입한 회수는 지상과 해상, 공중을 포함하여 모두 454회인데 그중 미제침략군이 공화국북반부에 침입한 연 인원수는 143명에 달하였다.

1947년에 적들이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무장공격을 감행한중에서 대표적인 사건은 5월 9일에 감행한 황해남도 청단군 화양리(당시 벽성군 신왕리)에 대한 무장공격이다.

적들은 1947년 4월부터 5월 8일까지의 사이에 청단북쪽 20키로메터의 전선에서 끊임없는 도발책동을 감행하면서 우리 측에 대한 총포사격을 감행하였다.

적들은 이러한 도발행위로 우리 측의 주의를 그곳에 쏠리게 한 다음 군사인원들을 파견하여 우리 측 구암저수지와 당시 면소재지였던 방아다리마을에 대한 면밀한 정찰을 하게 하였다.

한달 남짓한 기간에 걸쳐 총포사격과 무장도발행위를 감행하면서 구체적인 정찰자료를 수집한 적들은 5월 9일 오후 4시 30분에 우리 측에 대한 공격을 단행하였다.

적들은 방아다리마을 전면에 기본 무장악당들을 은밀히 전진배치해놓은 다음 방아다리마을로부터 5키로메터정도 동쪽으로 떨어져있는 구암저수지의 아군초소에 대한 기관총사격을 미친듯이 해댔다.

그랬으나 적들의 잔꾀를 미리 간파하고있었던 방아다리마을 38선보안대원들과 면의 당, 정권기관 일군들은 있을수 있는 적의 공격에 대처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

였다.

그런줄도 모르는 적들은 방아다리마을 38선보안대초소와 분주소, 면급 당, 정권기관들에 저격무기집중사격을 가했다. 화력으로 우리 측을 제압했다고 생각한 적들은 7시 40분경부터 산개대형으로 방아다리마을을 정면으로 공격하였다.

이때 38선보안대원들과 분주소원들은 이미 마을 서쪽의 65고지와 마을 동쪽의 46고지를 차지하고있었다.

기세등등하여 방아다리마을에 달려들던 적들은 38선보안대원들의 집중사격에 걸려 공격을 저지당하게 되였다. 그러나 적들은 저들의 수적우세를 믿고 발악적으로 달려들었다.

38선보안대원들은 침착하게 적들을 집중적인 조준사격으로 소멸하였다.

이날 전투에서 적들은 12명의 시체와 2정의 카빙총, 200여발의 총탄을 버리고 황급히 38도선 이남으로 도망치고말았다.

적들의 이러한 도발책동은 우리 측 중요지점들을 장악함으로써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략전쟁을 도발할 때 유리한 공격위치를 장악하기 위한 목적밑에 감행된것이였다.

때문에 놈들은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우리 측에 대한 무장공격행위를 감행하였다.

방아다리마을에 대한 공격에서 참패를 당한 적들은 이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저들의 침략적야욕을 어떻게 하나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측에 대한 무장공격을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적의 잡지 《사회와 사상》 1990년 6호는 《주로 북조선경비대와 남조선정규군간에 련대병력과 중무기까지 동원되여 전개되였던 38선에서의 전투는 다분

히 남조선측의 전쟁로선에 의해…악화되였다.》고 까밝혔다.

적들은 방아다리마을에 대한 공격에 앞서 1947년 4월 20일 강원도 화천군 마평리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미제에 의하여 민족분렬선으로 된 38도선에 의하여 마평리는 북과 남으로 갈라지게 되였다.

미제는 1945년 가을부터 남쪽 마평리에 미군과 괴뢰전투경찰대를 배치하고 감시정찰과 화력정찰을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적들은 춘천과 화천사이의 도로와 산길을 지배하고있는 480. 4고지와 말고개를 장악함으로써 장차 있게 될 대규모의 공격작전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려고 꾀하였다.

4월 20일, 저녁 10시경에 적들은 38도선 이북 마평리에서 동쪽으로 5키로메터정도 떨어져있는 송암리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적들은 송암리에 대한 허위공격을 함으로써 38선보안대원들의 주의를 그쪽에 쏠리게 한 다음 38도선 이북 마평리를 불의에 공격하여 일거에 점령해버리려고 타산하였다.

38도선을 은밀히 극복하여 마평마을 어구에까지 접근한 적들은 10시 30분부터 우리 측 38선보안대초소에 불의적인 집중사격을 가하였다.

화력으로 우리 측을 완전히 제압하였다고 인정한 적들은 이어 공격으로 이전하였다.

적들의 작전적기도를 미리 간파한 38선보안대원들은 돌격해오는 적을 반격하기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있다가 정면과 익측에서 적들에게 불의적인 사격을 가하였다.

만단의 방어전투준비를 갖추고있던 보안대원들의 강력

한 화력타격에 질겁한 적들은 황급히 38도선을 넘어 도주하고말았다.

이에 당황한 미제침략군 장교들과 괴뢰전투경찰대 장교들은 뿔뿔이 패주하는 졸개들을 멈춰세운 다음 총칼로 위협하여 다시 돌격에로 내몰았다. 총칼의 강요에 못이겨 다시 공격에로 이전한 적들은 마을 어구에까지 접근하였으나 38선보안대원들의 강력한 화력에 의하여 공격을 좌절당하였다.

적아간에는 맹렬한 화력전이 벌어졌다.

적들은 수적우세를 믿고 검질기게 달라붙었다.

이런 화력전이 계속된다면 우리 측에 결정적으로 불리하였다. 우리 38선보안대원들의 수는 그야말로 몇명 안되였던것이다. 그러나 보안대원들은 침착하게 적을 겨냥하여 사격하면서 차지한 계선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러한 때에 480.4고지에 배치되여있던 38선보안대원들이 적을 익측으로부터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정면과 익측으로부터의 강력한 화력타격을 받은 적들은 여러개의 시체를 남긴채 38도선 이남으로 도주하고말았다.

적들의 이러한 공격은 1947년 7월 12일에 있은 오늘의 황해남도 옹진군 진해리의 141고지에 대한 공격을 비롯하여 개성시 룡흥리(현재명칭)에 대한 공격, 1947년 8월 4일부터 5일사이에 감행한 장풍군 천마산에 대한 공격, 1947년 10월 5일부터 8일사이에 있은 강원도 련천군 청산면 대전리(당시 지명)와 그 북쪽의 127.5고지에 대한 공격, 1947년 11월 26일부터 27일사이에 있은 련천군 창수면 금주리에 대한 공격을 비롯하여 1947년에만도 총 454회나 되였다.

이 기간에 침입한 적 인원은 미제침략군 143명을 비롯하여 4,477명에 달하며 우리 측 인원을 살해, 랍치, 부상시킨 인원수는 282명이나 된다. 그리고 적들은 이

기간에 234마리의 집짐승을 략탈하였으며 117동의 건물을 파괴, 방화하였고 502점의 재물을 략탈하였다.

1947년에 감행된 적들의 무장공격은 그 어느 지역에서보다도 강원도 양양과 린제 지역에서 더욱 대규모적으로 감행되였다.

적들이 중요 공격목표로 노린것은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에 있는 해발 100메터의 고산봉과 강원도 린제군 남면 관대리였다.

적들은 이 지역을 차지함으로써 양양—강릉사이의 도로와 통천—린제사이의 도로를 장악하고 앞으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략전쟁도발시 양양과 린제에 대한 공격의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려고 꾀하였다.

고산봉에 대한 적의 공격은 1947년 4월 10일 새벽에 감행되였다.

고산봉은 38도선 이북 500메터, 동해바다가로부터는 800메터 서쪽에 위치하고있다.

고산봉에는 38선보안대 1개 분대가 배치되여있었다.

적들은 1947년 2월초순부터 고산봉과 그 일대에 대한 정찰을 진행하였다. 적들은 2월 10일과 3월 15일에 군용비행기를 침입시켜 고산봉에 대한 정찰을 감행하였으며 3월에는 함선을 침입시켜 정찰을 하였다. 그리고 2월초부터는 18키로메터에 달하는 구간에서 수차의 감시정찰을 한데 이어 3월 9일부터 4월 9일사이에는 6회에 결쳐 괴뢰전투경찰대원들과 정탐군들을 우리 측에 침입시켜 정탐을 하고 주민들을 랍치해가는 행위를 감행하였다.

적들은 고산봉에 대한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한편 고산봉으로부터 서쪽으로 4키로메터 되는 지점에서 8키로메터 되는 지점사이의 38도선 이북지역에 3차에 걸쳐 총포사격을 감행하였다. 적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38선보안대원들의 주의를 그쪽에 쏠리게 한다음 고산봉에 대한

공격을 단행하여 일격에 점령하려고 하였던것이다.

1947년 4월 10일 새벽, 1개 분대력량의 습격조를 고산봉 38선보안대초소에 파견한 적들은 미군 1개 소대와 괴뢰전투경찰대 2개 소대를 동원하여 공격출발위치를 차지하고 습격조의 차후신호를 기다리고있었다.

이른새벽에 38선보안대초소를 습격하여 우리 측 인원들을 살해함으로써 주력의 공격을 손쉽게 보장할 임무를 받고 은밀히 기여들던 습격조놈들은 38선보안대원들의 매복에 걸려 모조리 체포되고말았다.

저들의 작전적기도가 파탄되자 적들은 4월 10일 아침에 2차, 오후에 1차의 공격을 들이댔다. 그러나 38선보안대원들의 용감한 전투행동에 의하여 그때마다 공격을 좌절당한 적들은 오후 5시에 또다시 미군 1개 소대의 화력지원밑에 2개 소대의 괴뢰전투경찰대를 공격에로 내몰았다.

여기에서도 목적을 달성할수 없었던 적들은 예비대로 남겨두었던 미군 1개 소대까지 공격에로 내몰았다.

그러나 적들은 수많은 사상자만 냈을뿐 저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고산봉에 대한 공격에서 성공하지 못한 적들은 관대리에 대한 공격작전에 달라붙었다.

관대리는 강원도 양양군의 고산봉에서 서쪽으로 55키로메터 상거해있다. 린제군 남면 관대리는 38도선으로부터 북쪽으로 800메터 정도 떨어져있는 마을이였다.

관대리는 린제—양구사이의 도로와 통천—린제사이의 도로분기점에 위치하고있었다. 그러므로 관대리는 군사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지역이였다.

관대리의 이러한 군사전략적의의로 하여 적들은 남조선강점 초기부터 관대리에 눈독을 들여왔다.

적들은 1947년 8월에 들어서면서 관대리에 대한 무력

침공의 구실을 마련하여 저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길에 들어섰다.

1947년 8월 3일, 3명의 무장한 적병들은 정상적인 경비근무를 수행하는 38선보안대원들에게 쌍욕을 퍼붓고 돌을 던지면서 도발을 걸었다.

38선보안대원들은 적들의 그러한 행위를 단죄하면서 빨리 38도선 이남으로 돌아갈것을 요구하였으나 적병들은 오히려 무기까지 내대면서 오만하게 굴었다.

더는 수수방관할수 없었던 38선보안대원들은 미제침략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놈들을 우리 측에 억류하였다.

이렇게 되자 적들은 이 사실을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미군병사들에게 가해진 폭력행위》라고 걸고들면서 관대리에 대한 무장공격을 감행해나섰다.

그날 오후 2시 반경에 미제침략군은 괴뢰군전투경찰대를 총알받이로 앞세우고 38도선을 돌파하고 소양강을 건너 관대리남쪽에 산개한 다음 우리 측을 향하여 맹렬한 사격을 가했다.

38선보안대 1개 소대는 적의 정면에 전투서렬을 전개한다음 무모한 도발행위를 당장 그만두고 38선 이남으로 물러갈것을 요구하였으나 적들은 우리 측의 요구를 무시하고 관대리북쪽 무명고지와 322고지를 공격하였다.

38선보안대원들은 적들에게 집중사격을 퍼부었다. 그랬으나 수적으로 우세한 적들은 공격을 계속하여 오후 5시가 될무렵에 322고지 남쪽릉선에 달라붙었다.

만약 적들에게 322고지를 빼앗긴다면 정세는 결정적으로 우리 측에 불리하게 될것이였다.

관대리인민자위대원들은 즉시 322고지의 38선보안대원들을 지원하여 전투에 진입하였다.

그랬으나 여전히 적들은 수적으로 훨씬 우세하였고 기술적으로도 무장장비가 월등하였다. 적들은 이것을 믿고

집요하게 공격을 계속하여왔다.

38선보안대원들과 관대리인민자위대원들은 적들을 80메터 거리에까지 접근시킨다음 드세찬 집중사격을 가했다.

이에 질겁한 적들은 322고지에서 무질서하게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관대리북쪽 무명고지를 공격하던 적들은 우리 측의 완강한 방어를 돌파하지 못하고 무질서한 퇴각을 시작하였다. 일이 이렇게 되자 미제침략군 장교놈들은 권총을 뽑아들고 사병들을 위협하면서 공격에로 내몰았다.

그랬으나 이미 혼비백산한 사병들은 소양강기슭까지 무질서하게 퇴각해갔다.

미제침략군은 여기에서 혼란을 수습하고 미군 1개 분대와 2개 분대의 괴뢰전투경찰대, 20여놈의 《서북청년단》의 무장악당들을 다시 공격에로 내몰았다.

적들은 어둠을 타서 무명고지의 38선보안대의 방어전연 50메터 정도의 거리까지 접근하였다.

이때 38선보안대원들은 적들에게 강력한 집중사격을 가하여 적의 공격을 좌절시키고 반돌격에로 넘어가 적들을 38선 이남으로 몰아냈다.

이 전투에서 38선보안대원들은 20여명의 적을 소멸하고 수십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9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리였다.

이리하여 관대리에 대한 적의 공격기도는 산산쪼각이 나고말았다.

38도선 이북에 대한 적의 무장공격은 대체로 그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않았으나 놈들은 장차 공격작전에 유리한 지역들과 고지들, 기동에 유리한 도로들을 지배하고있는 지점들에 공격의 예봉을 돌리였다. 적들은 분산적인 무장공격이라는 인상을 남기도록 38도선 전지역에서 산발적으로 공격을 했으나 사실에 있어서는 그 모든 작전

이 미제침략군 장교들의 지휘밑에 계획적이며 조직적으로 감행된 목적지향적인 작전이였다.

그것은 1948년에 감행된 미제침략군의 무장도발책동이 더욱 여실히 확증해주고있다.

미제침략군은 1948년 9월 22일에는 고산봉에 대한 공격을 다시 감행했으며 11월 5일에는 관대리에 대한 보다 대규모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군사전략적으로 유리한 지역들에 대한 공격을 끊임없이 반복감행하여 이 지역들을 타고앉으려고 집요하게 책동한것은 미제침략자들이 저들의 침략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얼마나 발악했는가를 적라라하게 말해주고있다.

적들은 1948년 9월 22일 새벽에 고산봉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적들은 고산봉에 대한 공격에 앞서 고산봉전연의 넓은 구간과 고산봉동쪽해안의 약 20리 구간에서 끊임없는 무장도발을 감행하였으며 총포사격을 해댔다.

적들은 고산봉공격의 당일에도 먼저 그 동쪽의 기사문리를 해안선을 따라 공격했으며 제방산을 정면으로 공격하였다. 적들이 거의 같은 시간에 두곳에서 무장공격을 감행한것은 우리 측의 주의를 그곳에 집중시키고 기본주력은 고산봉에 대한 공격을 하여 손쉽게 무장도발의 목적을 이루어보려는 상투적인 수법이였다.

해안선을 따라 기사문리로 기여들던 적들은 해안경비대원들의 강력한 화력에 어쩌지 못하고 도망쳐버렸으며 제방산에 기여들던 적들도 38선보안대원들의 용감한 전투행동에 의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미군사고문단의 장교놈은 여기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이날 아침녘에 괴뢰들을 내몰아 고산봉을 서쪽릉선과 정면으로 공격하게 하였다.

미군사고문단 장교놈은 먼저 괴뢰들을 고산봉정면공격에로 내몰았다. 적들이 38선경비대의 방어전연 30메터

지점까지 기여들었을 때 38선보안대원들은 적들에게 수류탄벼락을 안기고 저격무기집중사격을 가하여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간신히 살아남은 적들은 황황히 도망쳐버렸다. 미군사고문단 장교놈은 고산봉정면에서 전투가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에 다른놈들을 고산봉 서쪽에서 공격에로 내몰았다. 이것은 정면공격을 막느라고 고산봉의 38선보안대원들이 그곳에만 력량을 집중하고있을 때 서쪽릉선으로부터 강력한 공격을 가하여 고산봉을 타고앉으려는 어리석은 전술적기도였다.

서쪽릉선으로 공격하던 적들은 아군의 강력한 화력타격에 견디지 못하여 공격을 좌절당하였다.

38선보안대원들은 증원구분대와 함께 과감한 반돌격으로 넘어가 육박전투를 벌렸다.

이날 적들은 33명의 사상자를 내고 38도선 이남으로 황급히 도망쳐버렸다.

관대리에 대한 공격에서도 적들은 45명의 유생력량을 소멸당하고 60여정의 저격무기와 4정의 경기관총을 아군에게 로획당한채 남쪽으로 도주하였다.

1948년에 미제침략군이 감행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무력침공의 특징은 그것이 모두 군사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반복적이면서도 보다 큰 규모로 진행된것이다.

1948년 3월 20일부터 3일간에 걸쳐 진행한 38도선 서부 치악산에 대한 공격, 1948년 9월 15일에 감행한 전선중부의 126.2고지에 대한 공격 등 적들이 감행한 모든 무장공격행위는 그 어느것이나 그 규모로 보나 동원된 무장장비로 보나 1947년보다 방대하였으며 또 집요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48년에 들어와서는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무력침공

을 더욱 적극화하였으며 황해도의 치악산과 강원도의 고산봉 일대에 대한 무력침공을 계속 감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일대에서는 매일과 같이 적아간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적들은 1949년초부터 전쟁도발책동을 더욱 로골화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옹진반도의 국사봉과 까치산, 금천앞의 송악산, 황해도의 은파산, 강원도의 양양 일대를 비롯하여 38연선 전연에서 대규모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여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적들은 1949년에 들어와서 년초부터 대대적인 무력침공을 계속적이면서도 집요하게 감행하였다.

지금까지 적들은 앞으로 감행할 침략전쟁의 개시에 유리한 지역을 획득하는것과 함께 실전경험을 체득하기 위한 방향에서 무장도발책동을 감행하였지만 1949년부터는 그것을 련대, 사단 급의 대규모적인 범위에서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였다.

실례로 1949년 5월 4일부터 7일사이에 감행된 송악산전투를 들수 있다.

송악산은 38도선이북의 금천지역과 그 이남의 개성지방을 지배하는 고지로서 적들은 이 고지를 차지하면 공화국북반부를 침략할 때 매우 유리한 공격출발위치를 차지하게 되며 반면에 이 고지를 타고앉지 못하면 무력침공기도는 시초에 쉽게 격파당할수 있었다. 그러므로 적들은 어떻게 하나 송악산을 장악하려고 발악하였다.

적들은 송악산에 대한 공격을 위하여 1949년초부터 5월초순까지의 기간에 근 170차의 위장공격과 지상 및 공중 정찰을 감행하였다.

적들은 1월하순에 들어와서 개성시 해선리(현재의)일대의 아군진지들, 1월 31일에는 개성시 룡흥리(현재의)일대의 아군진지들, 2월 5일에는 청단군 갈산리(현재의)의

75고지를, 3월 18일에는 송악산의 292.1고지를, 이틀후에는 개성시 룡흥리를 공격하였다.

한편 적들은 괴뢰1보병사단 11련대의 2개 대대, 12련대의 1개 대대, 련대직속 하사관교육대, 《서북청년단》 등의 무장악당 1,000여명, 경찰 300여명, 57미리반땅크포 2개 중대, 105미리곡사포대대 등 4,200여명의 병력을 개성지구에 집결시켰다.

미군사고문단 단장 로버트자신이 여러명의 미군사고문들을 거느리고 송악산공격작전을 지휘하였다.

개성시 동북방향의 107.5고지로부터 서쪽의 미륵당까지의사이에 병력을 집중배치한 적들은 주타격을 이미 공격했던 292.1고지에 지향하고 1949년 5월 4일 불의의 공격을 개시하였다.

적들은 이날 5시 반부터 105미리곡사포와 57미리반땅크포, 81미리박격포 등으로 송악산에 배치된 38선보안대 진지들에 강력한 포사격을 감행하고 중기관총과 경기관총으로 292.1고지와 255고지에 집중사격을 가했다. 그리고 제놈들의 행동을 은폐할 목적으로 빙고동에 소이탄과 예광탄을 마구 쏘아댐으로써 마을이 불길에 휩싸이게 하였다.

이때 일부 적들은 빙고동의 38선보안대초소를 공격해왔다. 빙고동초소의 1개 분대 38선보안대원들은 수십배나 우세한 적의 력량에 당황하지 않고 박격포사격과 저격무기집중사격으로 공격하는 적서렬에 무자비한 복수탄을 안기였다. 장교놈을 비롯하여 30여명이 아군의 총탄에 쓰러지고 살아남은 놈들은 황황히 도망치고말았다.

한편 292.1고지와 송악산주봉에 대한 여러차례의 공격에서 실패한 적들은 서울로부터 2개 포병대대를 개성에 끌어다 포병무력을 증강하였다. 또한 1,800여명의 괴뢰군들을 군용렬차로 실어다 급히 공격작전에 내몰았다. 적

들은 3개 대대의 105미리곡사포와 2개 중대의 57미리반땅크포, 90여문의 박격포를 동원하여 포병준비사격을 가하고 지원사격으로 넘어감과 동시에 다시 송악산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으나 38선보안대원들은 저격무기집중사격과 박격포화력으로 적의 공격을 격퇴하였으며 과감한 반돌격전을 진행하여 적들을 무자비하게 소멸하였다.

1949년 5월의 제1차 송악산공격은 이처럼 적들의 참패로 끝났다.

그랬으나 적들은 침략계획수행을 위한 전략적지역들을 타고앉으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고 다시 송악산을 공격할 준비에 달라붙었다.

두달반이상 제2차 송악산공격준비를 다그쳐온 적들은 7월 25일 새벽 4시 근 5천 7백여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괴뢰내무부장관이였던 김효석은 미군사고문단 단장 로버트가 괴뢰군 참모총장에게 《금번 단행할 북침은 멀지 않아 일으킬 내전을 위한 좋은 시험대》이라고 말한 사실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1949년 7월 25일이 밝아올무렵에 로버트가 직접 공격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괴뢰군 1사단 11련대 2대대 6중대에 복무하다 1949년 9월 16일에 우리 측으로 의거입북한 배용석은 《38선에서의 11련대전투를 련대고문으로 있던 1명의 미군대위와 세명의 미군중위가 지휘했다.》고 증언하였다.

적들은 제2차 송악산공격전투에서 600여명의 유생력량과 수많은 전투기술기재들을 잃었다.

적들이 패전을 거듭하면서도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무장도발책동을 계속 감행한것은 장차 전면적인 침략전쟁을 일으킬 경우 실전능력을 키우며 유리한 공격출발위치

를 차지하기 위해서였다. 때문에 적들은 1949년 한해동안에 황해도 벽성군의 국사봉은 2차에, 은파산은 3차에 걸쳐 공격하였다. 특히 은파산에 대한 3차 공격때에는 근 한달반사이에 39차례나 반복 공격하면서 어떻게 하나 이 지역을 차지하려고 발악하였다.

적들은 38도선 전 전연에서 중요 지역들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작전을 벌렸다. 전선 중부의 련천, 철원 지역에서의 공격작전과 린제일대에서의 공격작전, 양양지역에 대한 공격작전은 그 모두가 현대전의 전략전술적요구에 맞게 실전능력을 키우기 위한것이였다.

그것은 1949년에 또다시 감행된 관대리지역 공격전투가 잘 말하여주고있다.

적들은 1947년부터 감행하여오던 관대리에 대한 공격을 1948년에 이어 1949년에도 집요하게 감행하였다.

관대리에 대한 공격전투는 괴뢰군 6보병사단이 담당수행하였으며 이 사단과 괴뢰군 8보병사단의 미군사고문들이 동원되여 전투를 지휘하였다.

미군사고문들은 공격개시에 앞서 관대리에 대한 지휘정찰부터 진행하였다.

여러차례에 걸친 침투정찰과 지휘정찰을 통하여 관대리에 대한 필요한 자료들을 종합분석한 적들은 중대들이 담당하게 될 구체적인 전투임무까지 확정하여주었다.

공격전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끝낸 적들은 주타격방향을 린제—통천사이의 큰 길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두고 여기에 괴뢰군 6보병사단의 1개 련대와 105미리곡사포대대를 배치하였고 보조타격방향은 린제—현리사이의 큰 길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두고 여기에 괴뢰군 1개 중대와 전투경찰대들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괴뢰군 6보병사단의 1개 련대는 제 2제대로 홍천에 배치하였다.

적들은 관대리에 대한 공격을 위하여 이미 7월부터 괴뢰군들속에서 《북벌》에 대한 《정훈교육》을 진행하였다.

적들은 괴뢰군사병들에게 한개의 주머니에 하루분의 식량을 넣은 주머니 3개씩을 휴대시키였다. 그리고 식량주머니에는《원산에 가서 먹을것》,《평양에 가서 먹을것》,《신의주에 가서 먹을것》이라고 쓰게 하였다. 전쟁을 개시하여 3일만에는 신의주를 타고앉아 그곳에서 세번째 주머니의 쌀로 밥을 해먹는다는것이다.

또 운수차들을 비롯한 기동기재들에는 《원산행》,《평양행》,《신의주행》이라는 패쪽을 붙이게 하였다.

괴뢰군 6보병사단에서 벌어진 《정훈교육》의 내용과 전쟁준비책동은 1949년 7월 28일 관대리일대에 침입하여 정탐행위를 감행하다 우리의 38선보안대원들에게 체포된 괴뢰군 6보병사단 수색중대사병의 실토를 통하여 폭로되였다.

공격준비를 완전히 끝낸 적들은 1949년 8월 4일 새벽 3시부터 포병준비사격을 시작하였다.

한개 대대의 105미리곡사포들과 약 40문의 박격포들로 20분간 포병준비사격을 해댄 적들은 득의양양하여 돌격하여왔다.

포로한 놈을 통하여 놈들의 기도를 미리 알고있은 38선경비대원들은 사전에 철저한 방어준비를 하고있다가 돌격해오는 적들에게 강력한 화력타격을 안기였다.

적들은 공격이 좌절되면 다시 근 20분정도 포사격을 해대고는 돌격해오군하였다.

아침 5시에 38선경비대원들은 주동적으로 반돌격으로 넘어가 적들에게 큰 타격을 가하고 놈들을 38선 이남으로 쫓아버렸다.

적들은 이날 작전에서 패하자 1개 사단에 가까운 무력을 동원하여 8월 7일부터 19일까지사이에 매일 여러차

례의 공격을 감행하였으며 19일에는 5,000여발의 각종 포탄을 퍼부어대면서 14차례나 공격해왔다.

그랬으나 적들은 이 전투에서 1,300여명의 유생력량을 살상포로당하고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고말았다.

적들은 1949년 한해 동안에 지상에서 총 2,617회나 무장도발책동을 감행하였으며 130여척의 전투함선과 97대의 군용비행기를 우리 측에 불법 침입시켰다.

여기에 동원된 적들의 수는 무려 67,398명에 달하며 적들이 우리 측에 입힌 인명피해는 살해, 랍치, 부상을 포함하여 2,583명에 달하였다. 이 기간 적들은 678마리의 집짐승을 략탈해갔으며 1,666동의 건물에 불을 지르거나 파괴하였고 7,360점의 재물을 략탈해갔다.

이 모든것은 미군이야말로 부인할수 없는 침략군대이며 남조선괴뢰군은 미제침략군의 충실한 개, 아깝지 않은 총알받이였다는것을 여실히 말해주고있다.

이처럼 미제침략자들은 1945년 9월 8일 남조선에 침략의 첫 발을 디딘 그때부터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략의 전주곡을 연주하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더더욱 대규모적이면서도 맹렬해졌다.

1950년상순

북침전쟁준비의 완성

남조선 괴뢰내무부장관이였던 김효석은 《…로버트가 계획한 1949년 7, 8월의 북벌음모는 7월 25일에 단행한 개성작전(1949년 5월과 7월에 있은 3차례의 송악산에 대한 공격)의 실패와 또한 남조선 각지에서 불길처럼 일어나는 빨찌산의 무장진출로써 부득이 림시 보류하게 되였다.》고 증언하였다.

김효석이 증언한것처럼 미제는 1949년에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전면공격의 서곡으로 진행한 송악산에 대한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 실패의 원인을 찾고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착수하였다.

이 북침전쟁계획수립에는 트루맨의 지시에 의하여 진행되였으며 맥아더의 지휘밑에 미군사고문단 단장 로버트, 리승만괴뢰군 우두머리들, 패망한 일본군의 참모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일본인들속에서 여기에 참가한자들은 제2차대전후 전범자로서 이미 교수대에 매달렸어야 할 이전 일본군참모본부 차장이였던 가와베 도라시로(중장)를 비롯하여 아리스에 세이조(참모본부 정보부장, 중장), 다나까 싱이찌(소장), 오노 데라(소장)를 비롯한 《까또》기관과 이전 일본군 대본영륙군본부 작전과장 하또리가 관여한 《맥아

더사령부 력사반》 성원들이였다.

《까또》기관과 《력사반》에 망라된 일본인들은 조선전쟁도발을 위한 작전지도 및 첩보작전계획을 작성제공한 장본인이였다.

미제가 이자들을 제놈들의 비밀사업에 인입한것은 이들모두가 조선의 지형과 해도, 중국동북지방과 이전 쏘련연해주의 지형을 잘 알고있는 반면에 저들은 아직 이곳에 생소한 사정을 고려하여 취한 조치였다. 주구는 언제나 주인앞에서 꼬리를 치기마련이라는것이 미국인들이 일본인들을 리용할수 있었던 《믿음》의 기초였다.

그러한 《믿음》속에 일본인들은 미군 군복이나 괴뢰군 군복을 입고 서울에 기여들군하였다.

이렇게 작성한 침략전쟁계획에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작전안이 1차적인것으로 되였다.

이 전쟁계획에는 1949년의 침략적도발책동에서 얻은 《교훈》에 근거하여 남조선의 《후방안정》을 철저히 보장하며 괴뢰군의 전투태세를 완비하는 문제, 미군의 전쟁개입문제, 일본군이 전투행동에 참가하는 문제, 38도선돌파작전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였으며 정치공세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게 강조되여있었다.

미제는 수정완성한 침략전쟁계획에서 함경남도 정평해안과 평안남도 한천해안에 대한 상륙기도를 포기하고 38도선돌파를 기본타격방법으로 택하였다.

적들은 이 작전계획에서 주타격을 개성—금천—평양에 지향하고 옹진—신천—사리원방향과 련천—철원, 화천—금화, 양양—고성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으로 넘어감으로써 38도선 전 전선에서 38선경비대(이전의 38선보안대)의 방어진지들을 돌파하고 공격성과를 급속히 확대함으로써 가장 빠른 기일안으로 공화국북반부 전 지역을 타고앉을것으로 타산하였다.

적들은 이러한 작전안의 실현을 위하여 1제대에 괴뢰군 5개 사단을 배치하고 3개 사단을 예비대로 장악하였다. 그리고 침략전쟁개시의 첫날부터 미 공군과 해군을 전투작전에 진입시키며 미 제 24사, 25사, 7사와 1기병사단을 전투에 참가시킬것을 예견하였다. 그리고 1제대사단들의 화력타격을 위하여 105미리곡사포병대대들은 보병부대들의 전투행동을 적극 지원할수 있는 지점들에 이동배치하도록 하였다.

이 침략계획은 미제의 《극동침략계획》에서 첫자리를 차지하는 《A》계획이였다.

1949년 가을, 국무장관 애치슨, 국무성 극동국장 뻐터워드, 호전분자 웨드마이어, 해군작전부장 덴 펠드 등이 참가한 미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 작전계획을 토의비준하였다. 이 회의에는 트루맨이 참가하였으며 그자신이 회의를 사회하였다.

이것은 미제가 조선에 대한 침략을 국가적인 정책으로 삼았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힘을 기울였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이에 대하여 1950년 1월 11일 미국주재 남조선대사 장면은 리승만역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최고수준의 믿을수 있는데로부터 비밀리에 받은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서 《국무성과 군부에서는 미국의 극동정책에 관한 전쟁계획》을 세웠으며 이 계획은 곧 미국대통령에게 제출되여 비준받을것이며 그에 따라 《진주만에서는 대포를 배에 싣게》될것이라고 썼다.

또한 미국신문 《뉴욕 헤랄드 트리뷴》지는 1950년 6월 26일부에 《북벌》침략계획이 《이미 혈씬 이전(1950년 6월 25일)인 1월에 합동참모본부의 만장일치로 결정되였던것》이라고 썼다.

작성비준된 침략계획에 기초하여 1950년 1월말~2월초

에 걸쳐 미제의 합동참모본부 의장 브래들리, 해군작전부장 샤만, 공군참모총장 반덴버그와 같은자들이 일본 맥아더사령부에 파견되였으며 륙군장관 로이얄이 남조선에 파견되였다.

이자들은 현지에서 미군 륙해공군의 지휘체계와 앞으로 있게 될 전쟁에 즉시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실태에 대하여 료해검토한 다음 미해군을 맥아더사령부의 지휘밑에 넣음으로써 통일적인 작전지휘기능을 확립하여놓았으며 전면적인 무력증강대책을 세웠다.

한편 미제침략군은 1950년 5월 15일부터 일본의 사가만에서 《륙해공군합동훈련》을 진행한다는 구실밑에 4월말부터 무력을 대대적으로 일본에 끌어들였다.

미제는 전쟁도발전까지 항공모함 2척, 순양함 2척., 구축함 6척을 끌어다 미 제7함대를 증강시켰으며 3개의 비26과 비29 폭격기련대, 6개의 추격기련대, 2개의 수송기련대를 새롭게 일본에 끌어들였다. 그리고 일본에 주둔하고있던 미 제8군관하의 4개 사단을 땅크와 포, 수송 및 기타 병종들로 증강하여 언제든지 작전지에 투입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맥아더사령부의 작전 및 훈련담당 부참모장이였던 라이트는《도착하고있는 군대는 일본에 이미 있는 군대보다 더 잘 훈련》되였다고 말하였으며 미국잡지 《라이뜨》는《우리는 우리 력사의 전기간을 통해서 이 전쟁이 시작될 때처럼 그러한 정도로 준비되여있은 례를 이때까지의 그 어떤 전례에서도 찾아볼수 없다》고 썼다.

이처럼 미제는 조선침략전쟁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을뿐아니라 간교하고 집요하게 침략전쟁준비를 다그침으로써 1950년 상반년안에는 모든 준비를 완성하고있었다.

덜레스는 왜 남조선에 왔댔는가

1950년 4월초순도 다 지나가고있던 시기에 리승만은 미국무장관 애치슨이 보낸 편지를 받았다.

애치슨이 주구 리승만역도에게 보낸 편지에는 남조선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는 인플레를 안정시키며 《5월에 총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한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 경제 원조》에 대하여 재검토할것이며 그렇게 되면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수정이 가해질수도 있다는 경고와 암시가 담겨져있었다.

1949년은 남조선이 정치, 경제적 위기로 진통을 겪은 해였다. 려수군인폭동과 그에 합세하여 일어난 괴뢰군내에서의 무장투쟁, 인민유격대의 맹활약도 문제였지만 정국도 소란스러웠다.

괴뢰《국회》의원들속에서 《북남협상》을 주장하는 파가 대두하였고 반리승만세력은 1949년 6월에 《국회》에서 《정부불신안》을 통과시키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리승만역도는 《국회》의 이 결의를 《대통령책임제》인 《헌법》을 휘둘러 밀막아버렸다.

그러자 리승만 반대파세력은 1950년 3월에 《내각책임제》를 들고나와 《대통령책임제》로 되여있는 《헌법》을 개정할것을 주장하며 불집을 터뜨렸다.

또 리승만역도가 리윤영을 《정부총리》로 임명했으나 《국회》는 이것을 부결해버렸다.

결국 정계는 반리승만세력의 득세를 보이고있었다.

여기에 경제적파국이 일어나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예속화정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였다.

남조선공업의 기둥이라고 볼수 있는 방직공업은 1949년에 1940년에 비하여 그 생산량이 겨우 36프로에 불과하였으며 경지면적이 해방전의 절반이상으로 줄어들어 알곡생산량은 500만석이나 감소하였다.

이것은 물가폭등을 가져왔고 인민생활을 기아선상에 몰아넣었다. 남조선의 이러한 형편에 대하여 당시 스위스의 한 신문은《남조선에는 북조선에 대한 군사적 침공에서 곤난한 경제문제해결을 찾으려》하는 사람이 많다고 폭로하였다.

남조선의 이러한 실태를 두고 애치슨은 미국의 경제원조가 없게 되면《남조선은 2~3개월내에 붕괴될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리승만역도에게 경고하는 편지를 보냈던것이다.

상전이 보낸 편지를 받은 매국역적 리승만은 파산직전에 이른 경제를 살려내기 위한《긴축정책》이라는것을 떠들어댔다.

그러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춘 예산을 세울것을 《국회》에 호소하고《공무원》들을 대량 해고하는 식으로 리승만역도가 경제적파국을《수습》한다는것은 그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한것이였다.

한편 리승만역도는 1950년말로 연기하려던《선거》를 5월 30일로 앞당겼다. 리승만역도는《선거》를 통하여 반대파세력을 무자비하게 제거하고 제놈의 정치적지반을 공고히 하려고 꾀하였다.

폭압의 란무장으로 화한《선거》분위기에 대하여 미제가 조작하여 끌어들였던《유엔조선위원단》까지 유엔에 보낸 보고에 립후보자들을 지지한 많은 사람들이《경찰, 관리들과 기타 잘 알수 없는 사람들에게 위협과 심지어는 구타를 당하였다.》고 쓰고 계속하여《끔찍이나 많은 립후보자들이 자기의 립후보를 포기하였는데 이것

은 보건대 그들에 가해진 탄압을 말해주고있는듯하다.》고 썼다.

살벌한 탄압속에서 진행된 류례없는 《부정선거》였으나 리승만역도는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보려던 제놈의 정치적지반을 확보할수 없었다.

그것은 괴뢰《국회》210석의 의석가운데서 리승만의 패거리들이 겨우 47석을 차지했기때문이였다.

리승만역도에게 있어서 이러한 후과의 심각성은 《북남협상파》와 《중간파》가 의석의 다수를 차지한것이였다.

이에 대하여 《에이피》통신은 남조선국민들은 《…2년전 조선을 통일하려고 북조선과의 협상에 참가한 중간파(여기에서 중간파라고 한것은 김규식을 비롯한 〈북남협상파〉를 의미한다) 10명을 선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앞으로 있게 될 새 《국회》에서의 《대통령선거》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것을 명백히 시사해주고있었다.

남조선사회의 엄중성을 두고 골머리를 앓은것은 미국이였다. 미국은 남조선괴뢰정부의 붕괴를 막아야 했다.

아세아대륙에로의 진출을 위한 《건늠다리》에 대한 버릴수 없는 침략적야욕으로 지금껏 극력 촉진시켜온 《북벌》준비가 끝난 단계에 와서 남조선까지 포기해야 한다는것은 트루맨의 가슴을 터지게 하였다.

트루맨은 《북진》을 결심하고 국방장관 죤슨과 합동참모본부의장 브래들리, 대통령특사 덜레스를 지체없이 극동에로 떠나보냈다.

미국시간으로 1950년 6월 14일에 워싱톤을 떠난 덜레스가 일본을 거쳐 서울에 도착한것은 6월 17일이였다.

다음날인 6월 18일, 덜레스는 무쵸와 괴뢰들인 신성모, 정일권 그리고 미군사고문단성원들을 거느리고 38도선 《시찰》에 나섰다.

덜레스는 괴뢰군의 배비상태에 대한 료해로부터 시작하여 그것을 직접 검열까지 하였으며 병영과 장갑차부대들도 《시찰》하였다. 그리고 작전지도를 펼쳐놓고 공화국북반부의 38선경비대의 방어진지와 기타 구체적인 자료들을 료해하였다. 그리고 경기도 포천군 초성리의 괴뢰군참호속에서 《아무리 강하여도 당신들을 항거할 적은 없을것》이라고 괴뢰군사병들을 추동하고나서 《당신들의 큰 력량을 보일 날이》 곧 오니 더 노력하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기고 이곳을 떠났다.

이날 덜레스가 38도선을 시찰한 목적에 대하여 1950년 8월 3일 이전 쏘련외무상은 유엔안보리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까밝혔다.

《38선이남 참호속에서 미군사고문관들 및 남조선군대장교들에게 둘러싸여있던 덜레스와 무쵸가 참호속에서 개나리꽃을 뜯어모으고있었다고… 아니다. 덜레스는 그곳에서 자기의 좀더 상투적이고 또 전쟁방화자로서의 그의 성벽에 적응한 일을 하느라고 분망하였다. 덜레스는 북조선에 대한 남조선의 침공준비를 검열하였던것이다.》

6월 19일, 이날은 5월 30일《선거》이후 첫 《국회》가 열리는 날이였다. 《선거》결과에 겨우 47석의 의석밖에 차지하지 못한 리승만역도의 패거리들이 맥을 쓰지 못할 《국회》에 트루맨의 특사 덜레스가 나타난것은 경이적인 것이였다.

《남조선에서 수행하여야 할 특별임무》를 지니고 서울에 기여든 덜레스는 미국을 떠나기에 앞서 미국무성차관보 러스크를 비롯한 해당 전문가들의 세밀한 검토를 거친 《연설문》을 꺼내들고 장내를 쌀쌀한 눈길로 휘둘러보았다.

이제 하게 될 제놈의 말이 이자들에게 얼마나 슴배여들것인가를 타진이라도 해보려는듯이…

그러던 덜레스가 연탁옆에 나서더니 《연설》을 시작하

였다.

덜레스는 《자유세계의 시선은 당신들에게 집중되여있다.》고 하면서 《정신적 및 물질적 지지》를 줄것이요, 《공산주의는 결국 북조선에 대한 지배를 잃어버리게 될것》이라고 떠벌였다.

덜레스는 우리는 《공산주의와의 타협이나 양보를 거부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내가 금번에 트루맨의 특사로 남조선에 오게 된것은 우리가 극력 추진시켜온 북진준비정형을 검토하고 만일 부족점이 없다면 지체없이 북진을 개시하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기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본바에 의하면 모든것이 만족스럽다. 〈이제는 우리의 수확기가 되였구나〉 하는 생각에 나는 지금 매우 흥분되여있다. 준비가 된 이상에는 하루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북조선에서 먼저 침공하였다는 역선전과 동시에 공격을 개시하라.

…만약 2주일만 견디여낸다면 이동안에 미국은 북조선이 남조선을 공격하였다고 제소하여 유엔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륙해공군을 동원하지 않을수 없게끔 모든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할것이다.》

덜레스는 서울을 떠나기에 앞서 리승만역도와 《외무부장관》 림병국에게 편지를 남기였는데 리승만역도에게 남긴 편지에 《지금 전개중에 있는 〈위대한 연극〉가운데서 귀하의 나라가 놀수 있는 결정적역할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있다.》고 썼다.

이러한 사실들은 덜레스의 남조선행각목적이 《북벌》전쟁개시지령을 주려는것이였다는것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이에 대하여 오스트랄리아의 기자이며 작가인 윌프레드 버체트는 《덜레스의 방문은 공격개시를 알리고… 미

국공해군의 원조가 있을것이라는것을 최고수준에서 리승만에게 보증하기 위해서였다는것은 조금도 의심할바 없다.》고 썼다.

남조선《방문》일정을 마친 덜레스는 6월 21일 오전 11시 40분에 일본 하네다비행장에 내렸다. 덜레스는 다음날인 6월 22일 오전 10시부터 맥아더사령부에서 맥아더와 《회담》하였는데 여기에는 미국무성 극동과장 씨볼드가 참가하였다.

6월 24일 오전에 맥아더와 2차 《회담》을 진행한 덜레스는 6월 25일 밤에 맥아더와 3차 《회담》을 벌리였으며 6월 27일 오전에 4차 《회담》을 하고 27일에 도꾜를 출발하여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 기간에 덜레스는 일본의 정계 인물들과 《대일강화조약》문제로 회견도 하였고 교또를 《유람》도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행적을 가리기 위한 위장전술이였다. 덜레스는 6월 24일 오후에 도꾜를 떠나 《주말휴가》의 명분을 걸고 교또에 《유람》을 떠났는데 이것은 자기가 6월 25일 새벽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덜레스가 서울을 떠난후 서울주재 미국대사 무쵸는 괴뢰우두머리들을 모아놓은 최종비밀회의석상에서 다음과 같이 지껄였다.

《오늘 이 회의는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힘을 기울여 준비하여온 북진전쟁을 개시하기 위한 시간을 확정하는 최종회의이다.

트루맨의 특사인 덜레스의 지시는 곧 미국대통령의 지시다. 그는 우리에게 지체말고 북진을 개시하라는 지시를 주었다.

이제 남은것은 북진개시의 시간문제와 개전과 동시에 공산군이 남침했다는 선전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관한 문

제이다.》

이 모든 사실은 덜레스가 남조선을 무엇때문에 행각하였는가 하는것을 의심할 여지도 없이 명백히 말해주고 있다.

상전과 주구

맥아더와 리승만, 누가 더 높은가.

의례적으로 보면 그래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늙은 리승만이 국방장관도 아니고 한개 군사령관인 맥아더보다 더 높을지…

그러나 맥아더와 리승만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

상전인 맥아더는 항상 도고하고 거만하게 리승만을 대했고 리승만역도는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위엄을 돋구면서도 항상 빌붙는 자세를 취했다.

1950년 2월중순에 맥아더는 주구 리승만과 괴뢰참모총장 채병덕을 자기의 사령부로 불렀다.

상전의 부름에 감지덕지함을 금할수 없었던 늙다리 리승만역도와 채병덕은 서둘러 맥아더의 품으로 날아갔다.

2월 17일 주구를 만나준 맥아더는 리승만에게 미군의 통일적인 지휘밑에 미군, 남조선괴뢰군, 일본이 공동작전을 적극 벌려나갈데 대한 《훈령》을 주었다.

한개 군사령관에 불과한 맥아더가 명색이 《대통령》인 리승만역도에게 준 11개조로 된 《훈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리승만은 전체 무력을 맥아더명령하에 둘것.

둘째, 리승만군대는 일본군대와 협동하여 싸울것.

셋째, 일본군과 협동작전을 할 경우에는 이전 일본항공군사령관이였던 리은을 맥아더총사령부 명령하에 사령관으로 임명할것.

넷째, 리승만은 6월말까지 백미 100만석을 일본군대의 군량미로 맥아더사령부에 실어보낼것.

다섯째, 리승만군대는 내전의 도발행위를 할것.

여섯째, 리승만은 일본사람감독밑에 일본에 병공창을 건설할것.

일곱째, 리승만군대의 고급장교들은 일본에서 일본장교들에게서 곧 훈련을 받을것.

여덟째, 다수의 일본군장교들을 리승만군대에 채용할것.

아홉째, 훈련 안된 군대는 전쟁에 도움이 되기보다도 방해가 된다는것을 고려하여 리승만군대의 증원을 중지하고 일본군대를 대량적으로 채용할것.

열째, 맥아더는 전쟁중과 전후에 있어서 리승만의 지위를 보장할것.

열한번째, 맥아더사령부는 조선전쟁에 참가할 일본군대와 그들이 쓸 6개월분의 무기와 탄약을 준비할것.

리승만은 맥아더앞에서 이 11개조 《훈령》을 충실히 집행할것을 서약하였다.

서울로 돌아온 만고역적 리승만은 맥아더의 《훈령》을 《충실히》 집행하기 위하여 괴뢰군장교들을 훈련시키려고 일본에 보낸다, 100만석의 군량미를 맥아더사령부에 실어보낸다 하며 전쟁도발준비에 미쳐날뛰였다.

모든 사실은 미군의 한갖 군사령관이 더 높은 지위에서 리승만역도를 조종하였으며 그 조종은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략전쟁도발에로 지향되였다는것을 말해주고 있다.

무도회는 연막이였다

음탕한 음악에 활기를 띠였는가 술냄새가 광실의 공기를 질게 흐려놓은 장교구락부,

거기에서는 미군사고문단 성원들과 괴뢰군장교들이 괴뢰륙군본부 사무처의 녀서기들과 고관들의 처첩들, 극단의 녀배우들을 끼고 방안을 미끄러지듯 돌며 춤을 추었다.

술기가 오른 사내들의 벌건 얼굴에도 진하게 화장한 계집들의 요염한 얼굴에도 피곤이 실리여있었으나 그것들은 그 어떤 의무감을 지녔는지 춤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악사들이 앉은 바로 옆탁에 앉아 이 피곤한 춤판을 바라보고있는 괴뢰군참모총장 채병덕은 이따금 샴팡을 마시고있었다.

일본군의 개노릇을 하면서 기생들의 맛에 오금을 쓰지 못하던 채병덕은 춤판에 뛰여들 마음이 간절했으나 지금은 그럴수가 없었다. 그는 지금 《륙군본부장교구락부락성식》무도회라는 이 연막뒤에서 벌어지게 될 거사에 대하여 생각하고있었다.

처칠의 본을 따서 늘 려송연을 피워《처칠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있는 채병덕은 푸르스름하게 피여오르는 담배연기속에 북으로 진격하는 괴뢰군의 《용맹》한 모습을 그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있었다.

《이제 이 거사만 성공하면…암, 나는 자유세계의 락광을 받게 될것이다. 그때에 가서는 저 하우스만도 지금처

럼 내앞에서 버릇없는 행위를 하지 못할것이다.

그때 가서 나의 권력은…)

만족한 기분에 흡족해진 채병덕의 꿈을 깨운것은 급작스러이 울리는 전화종소리였다.

수화기에서 《채병덕이냐》 하는 리승만이 위엄을 돋구는 소리가 들려왔다.

《대통령각하, 그렇습니다. 채병덕이 전화받습니다.》

《그래, 어떻냐?》

《각하, 념려마십시오. 모든 면에서 만전을 기하고있습니다. 저도 의기충천합니다. 귀한 옥체를 위하여 수면하십시오.》

《고맙다, 용진하여라.》

송수화기를 놓은 채병덕은 야릇한 웃음을 입가에 담고 생각에 잠겼다.

그의 귀가에 로버트의 말이 울렸다.

《우리가 왜 6월 25일을 택하였는가? 25일은 일요일이다. 기독교국가인 미국이나 남조선은 일요일을 안식일로 정하고있다. 우리가 일요일에 전쟁을 개시하였다는것을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것이다.》

(그 일요일이 바로 밝아오고있다. 이 기회에…)

그의 생각을 부스러뜨리며 전화종소리가 맵짜게 울렸다.

설레이는 꿈나락속에서 헤매이던 채병덕은 천천히 송수화기를 들었다.

수화기에서는 무쵸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나 무쵸입니다. 다른 일 없습니까?》

《없습니다. 일선은 만전을 기하고있습니다.》

《그건 나도 알아봤습니다. 다만 우리가 약속을 지키리라는것을 알리려고 전화했을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사각하, 믿으십시오.》

송수화기를 놓은 채병덕은 《처칠경》의 의례한 동작으로 담배를 꺼내며 《약속이라…》 하고 뇌이며 매우 만족해하였다.

《약속》, 그것은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 미군이 전적으로 도와나선다는 미국인들의 발언이다.

우선 덜레스가 그런 약속을 하였다.

《…만약 2주일만 견디여낸다면 이동안에 미국은 북조선이 남조선을 먼저 공격하였다는것을 제소하여 유엔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륙해공군을 동원하지 않을수 없게끔 할것》이라고.

또 웨드마이어가 그런 약속을 하였다.

1949년 4월 6일, 장면이 리승만역도에게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져있다.

《…조병욱과 나는 륙군참모총장사무실에서 웨드마이어와 긴 회담을 하였습니다.

남조선국방군에 소요되는 물품과 남조선군사 사정을 자세히 분석한 설명서를 첨부한 군사원조에 대한 요구보고를 그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웨드마이어는 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면적침공시에는 우리는 미국의 원조를 응용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웨드마이어가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남조선괴뢰군에 대한 군사적원조를 약속했다는것을 명백히 말해주고있다.

이런 생각의 안개속을 헤치는 채병덕의 마음은 몹시 흡족하였다.

(스타트만 떼자. 그러면 미국이 륙해공군의 그 큰 주먹으로 북조선을 단매에 부스러뜨릴것이다. 그 다음 떨어진 홍시는 이 채병덕이 먹어치워야지.…)

채병덕의 생각은 끝없이 나래쳐갔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저들의 가족 650명을 은밀히 노르웨이선박에 실어 빼돌린것이지, 그것들이야 포화의 불바다구경을 하지 않을수록 좋을테니까.

확실히 미국인들은 모든 일을 통이 크고 재치있게 해치우거든.)

《찰칵, 찰칵…》

시계의 초침소리는 규칙적으로 쉬임없이 울려왔고 그 소리에 좇기여 형제바늘은 4시를 향하여 육박해들어갔다.

그 4시에 있게 될 전쟁개시를 위하여 지금 지칠대로 지친 놈들이 안고돌아가며 춤을 추고있는것이다.

그 춤판이 이제 일으키게 될 전쟁도발의 연막으로 되여 《북조선이 전쟁을 도발했다》는 사실을 세계가 인정하게 할것이다.

6월 24일 저녁부터 시작되여 밤이 지새도록 그치지 않은 춤판은 이러한 목적밑에 벌어진것이였다.

소개는 왜 하였는가

미국도서 《조선전쟁은 누가 일으켰는가》에는 《국무성의 〈조선백서〉는 〈아침 6시반경 북조선의 보병은 옹진지역에서 38도선을 넘기 시작하였다.〉고 쓰고있으나 이것은 미국인선교사가 인천항에 있던 〈라인홀드〉호 존센선장을 깨워 부녀자들을 철수시킬것을 부탁한 시간보다 후의 일》이라고 씌여있다.

그러면 이런 모순적인 일이 왜 생겨났는가.

펜타곤이라고 불리우는 미국방성의 큰 홀에 신문기자들이 모여 특종뉴스를 기다리고있었다.

무더운 그 여름날 기자들이 모인 장소에 나타난 한 부관은 《…침략이 불의의 봉변이 아니였다는 증거로서 남조선에 있던 미군장교와 다른 가족들을 철수할수 있도록 배선준비가 되여있었다는 사실》을 들었다.

이 사실은 미제가 전쟁에 앞서 소개계획을 가지고있었다는것을 말하여주는데 이에 대하여 휘트니는 《그 일요일 늦게 전화가 왔다. 무쵸가 소개계획은 실시되는가고 물어왔다.》고 확인하였다.

이 소개문제는 미제가 침략전쟁의 도발자라는것을 확인하는 증거문제이므로 스쳐보낼 문제가 아니다.

조선전쟁을 도발한 미제침략자들은 전쟁발발의 첫 시기에 소개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저들의 거류민들을 《구출》한다는 명목을 내대고 로골적인 무력간섭의 길에 들어섰다.

남조선에 와있던 미국인들의 소개계획은 이미 1949년 6월에 준비되여있었다. 그 대략적인 내용은 전쟁을 일으킨 다음 즉시 남조선에 있는 미제침략군장교들의 가족과 대사관성원 및 기타 미국인들을 배 또는 비행기로 일본에 철수시키며 《거류민보호》라는 구실밑에 공개적인 무력간섭을 시작한다는것이였다.

1950년 6월 25일 5시 30분경에 한 미국인선교사가 인천부두에 정박하고있던 노르웨이선박 《라인홀드》호 선장 존센을 찾아가 《림박한 위험으로부터 빠져나가려고 하는 650명을 배에 태워 철수시켜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하였다.

이것은 미제가 선전하듯이 《아침 6시반경 북조선의 보병은 옹진지역에서 38도선을 넘기 시작하였다.》는 그 6시반부터 한시간전에 있은 일이다.

랭철하게 이 사실을 따져보자.

여기에서 의문시되는것은 한갖 선교사에 지나지 않는 한 미국인이 트루맨에게도 전쟁개시 6~8시간 이후에 보고된 중대한 사실을 어떻게 사전에 알고있었으며 어떻게 되여 그가 650명이나 되는 미국인부녀자들의 《대표》가 되여 노르웨이선박에 찾아갔는가 하는것이다.

이것은 미제가 소개계획을 미리 작성해놓고있었다는것을 의미하며 소개를 무력간섭의 로골적인 구실로 삼았다는것을 말해준다.

일본도서 《조선전쟁》의 필자 도미오는 자기의 책에서 《영국은 영국인들에 대하여 3주일전에 될수록 피하라고 경고하고있었다는것을 전쟁이 시작된 날 밤 늦게 알았다. 영국대사관에는 6명밖에 없었는데 전쟁이 일어날 기미를 알고있었다.》고 썼다.

호라 도미오는 영국대사관에서 3주일이나 앞서 북조선측의 동향을 알고 재류동포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있었다면 그 정보는 반드시 그리고 신속히 미국측에 전달되였을것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영국대사관은 왜 그 정보를 전달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는가고 자문을 제기하고 그것은 그 정보가 실제에 있어서는 미국과 남조선의 합작에 의한 선제공격기도에 관한것이기때문에 영국으로서는 미국에 통보할 필요가 없었다고 리해할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결국 소개는 전쟁발발의 비밀을 먼저 알고있은자들의 사전대책이였다.

조선전쟁개시이전에 적들속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다는것을 고려할 때 무력상으로 조선인민군에 비하여 몇배나 우세하였던 미군과 그 번견들이 불과 두시간도 《방어선》을 유지 못하고 패주했다는것은 군사상식상으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적들은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략계획의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사전에 소개계획을 세워가지고있었음에도 그것을 전쟁의 도발과 함께 실행하려고 했던것이다.

6월 25일새벽

검은 구름이 태동하며 비줄기를 내리쏟는 그 새벽에 리승만역도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벌개진 눈을 슴벅이며 초조하게 방안을 거닐고있었다.

(이젠 4시가 다 되였는데 어째서 전화가 오지 않을가?)

그때 별스레 소란을 피우며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리승만역도는 76살 되는 늙다리 같지 않게 잽싼 동작으로 송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응, 그래 시작했단말이지. 최선을 다하여라. 믿겠다. 승전후의것은 걱정말어.》

리승만역도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애첩 프란체스카를 찾았다.

《여, 여보 애리스, 우리 국군이 38선을 돌파했다오.》

경무대의 안침한 방에서 늙다리 주구가 희색이 만면하여 돌아가고있을 때 미국의 미주리주에 있는 트루맨의 별장에서도 환희가 일고있었다.

트루맨은 그때 자기의 별장에서 주말휴가를 보내고있었다.

그런데 례사로운 이 주말휴가를 미국의 통신과 출판물들은 요란스럽게 떠들어댔다.

그것은 트루맨이 정사를 보느라 겹친 피로를 풀기 위하여 휴식을 하고있는듯이 선전함으로써 미국대통령의 관심이 조선이 아니라 자신의 휴식에 있는듯이 사실을 오도함으로써 조선전쟁도발과 미국은 전혀 관계가 없는듯이 꾸며대기 위해서였다.

트루맨은 안락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성경책에서 마태복음 7장 7절의 한 대목만을 아까부터 들여다보고있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것이다.》

(그래 강력한 포성으로 북벌의 문을 두들겨놓으면 북조선에로의 문이 열리고 우리는 압록강, 두만강까지 진출하게 될것이며 장차로는 거대한 비게덩이와 같은 아세아대륙을 먹어치우게 될것이다.

우리가 품들여 키우고 길들인 남조선군이 제구실을 바로해야 하겠는데…)

트루맨의 생각을 깨뜨린것은 애치슨이였다.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였음을 알리는 애치슨의 보고를 받은 트루맨은 서두르지 않고 별장을 떠났다. 그것은 조선에서 전쟁이 시작된지 6시간~8시간이후의 일이다. 별장을 떠나면서 트루맨은 여느때없이 늙은 집지기의 비만증에 대하여 걱정을 하였다.

그 태연자약함은 모든 일이 계획대로 추진되여가고있는 만족에서 오는것이였다.

만약 조선전쟁도발이 예상외의것이였다면 잠옷바람 그대로 워싱톤에 날아들 트루맨의 성격에 그처럼 태연자약할수 있었겠는가.

트루맨이 워싱톤 디씨비행장에 내렸을 때에는 그의 얼굴에 근심이 비껴있었다.

이것은 카메라를 들이대는 기자들에게 조선전쟁도발이 미국으로서는 전혀 예상외의 사건이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을수 없다는 인상을 주어 출판물들로 하여금 세계를 속일수 있게 하려는 연극이였다.

그러나 백악관에 들어선 트루맨의 태도는 돌변하였다.

트루맨은 유엔주재 미국대표대리 그로스에게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소집하도록 유엔사무총장 트루그베리에게 요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도꾜 맥아더사령부의 소장 휘이드니를 비롯한 참모성원들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맥아더로부터 특별히 출근하라는 명령》이 있었기때문에 놀지 못하고 사령부에 출근하여 조선에서 날아올 전쟁도발보고를 《초침을 들여다보며 기다리고있었》다.

맥아더는 제놈이 파면당할것도 내다보지 못한 위인인데 그가 어떻게 6월 25일 비오는 새벽에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날것을 예견하였겠는가.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저들이 여러해동안 극력 추진시켜온 조선전쟁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단계에 들어갔으며 그 첫 포성소리를 기다리고있었다는것을 여실히 말하여준다.

리승만역도는 6월 25일, 덜레스가 서울을 떠나면서 써준 전보문을 한통은 제놈의 이름으로, 다른 한통은 《유엔조선위원단》의 이름으로 유엔에 보냈다.

유엔은 이러한 《제소》와 미국의 요구에 따라 6월 25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열고 전쟁의 책임을 공화국북반부에 넘겨씌우려 했으며 6월 27일에는 《조선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조작하였다.

그런데 이 결의안이 어떻게 조작되였는가 하는것이 문제이다.

미국무성 차관보 히카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6월 25일 동틀무렵(조선시간), 즉 워싱톤에서는 토요일의 오후 9시가 지났을 때 관청은 주말휴가중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성에서는 30명의 직원을 특히 휴일출근시키고있었다. 그것은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즉시 〈유엔안보리사회〉에 들이밀 준비때문이였으며 바로 그것때문에 국무성에서는 〈유엔안보리사회〉에 제출할 결의안을 사전에 만들어놓고있었다.》

6월 25일에 벌어진 이러한 사실은 미제가 조선전쟁도발계획을 모든 분야에 걸쳐 얼마나 면밀히 작성하였으며 또 얼마나 은밀히 추진시켰는가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38도선을 넘어선 괴뢰군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리승만역도에게 전쟁도발을 알리고난 채병덕은 각 사단들에 전과에 대하여 보고하라고 독촉하였다.

얼마 있지 않아 사단들에서 38도선을 넘어섰다는 보고가 련달아 들어왔다.

(음, 전반적지역에서 38도선을 넘어섰단말이지.)

희색이 만면하여 방안을 거닐던 채병덕은 송수화기를 들고 《계속 전진하라. 미군이 곧 따라설것이다. 용기를 내여 속도를 높이라》고 기염을 토했다.

리승만괴뢰군은 전쟁도발의 포성을 울린지 1시간이 지난 새벽 5시에는 황해도 벽성군(당시 지명, 이하같음)국사봉방향에서 1키로메터, 은파산방향에서는 1～2키로메

터 침입하였다.

개성방면에서는 연안—봉천, 개성—금천, 장단—구화리 3개방향으로 공격성과를 확대하여 2키로메터나 전진하였다. 련천계선으로 공격에 진입한 적들은 2키로메터, 춘천과 양양계선에서는 약 500메터정도 진격하였다.

채병덕은 하우즈만과 함께 의정부계선의 전선을 시찰하고 공격속도가 뜨다고 사단장들을 다몰아댔다.

그러나 일은 반대로 번져졌다.

먼저 국사봉과 은파산 계선에서 《성과》를 올리던 17련대가 공격을 좌절당했다는 보고가 들어왔고 그 꼬리를 물고 괴뢰군 1사단장 백선엽이, 그 뒤를 이어 의정부계선에서 공격에 가담했던 7사단장 류재홍, 전선동부의 6사단장 김종오, 8사단장 리성가의 보고가 련달아 들이닥쳤다.

특히 채병덕의 부아를 터지게 한것은 춘천과 양양계선에서 공격을 시작한 괴뢰군 6사단과 8사단은 38도선을 넘어 200~500메터정도 밀고들어가다 공격을 좌절당했을뿐아니라 격퇴되여 수치스러운 패주를 시작한것이였다.

채병덕은 남의 마을에 왔다가 그동네의 여러마리의 개한테서 집중공격을 받는 떠살이 개가 필사적으로 발악하듯 송수화기를 틀어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당장 막으라. 물러서면 총살하겠다. 이제 미군이 곧 온다.》

그러는데 곁의 전화기가 소란을 피웠다.

채병덕은 신경질적으로 송수화기를 들었다.

《채병덕이냐?》

《예, 최병덕이 전화받습니다.》

《계획대로 3일후이면 평양을 타고 앉을수 있겠느냐?》

《대통령》이라는게 늙어빠져서인지 남은 속을 썩이는것

도 모르고 앉아서 호통만 치고있으니…

채병덕은 부아가 났으나 어쩌는수 없이 변명을 했다.

《각하, 생각했던것보다 달라져 죄송합니다.

예상외로 북조선군이 완강하여 더는 진공하지 못하고 양양과 춘천계선에서는 38도선이남으로 도루 쫓겨났습니다. 미군이 빨리 참전해야지 야단입니다.》

리승만역도의 불호령이 전화기에서 튀여나왔다.

자신의 존재를 여지없이 짓뭉개놓는 그 욕지거리를 듣는 채병덕은 다리맥이 빠지는듯하여 의자에 앉고말았다.

전화기에서는 리승만의 욕지거리가 계속 울렸다.

《덜레스씨가 2주일간만 견지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만전이요, 뭐요 하더니 어찌된 일이냐?》

했지만 일은 깨여진 물사발이 되고말았으니 리승만역도의 호령이 무슨 맥을 추랴.

미국과 유엔

미주리주의 별장에서 돌아온 트루맨은 유엔주재 미국대리대표 그로스에게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소집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데 대하여 지시하였다.

트루맨이 이렇게 한것은 조선전쟁을 일으키면 유엔에 제소할 문건이 구비되여있음을 알고있었기때문이였다.

미국회 상원의원 파카슨과 유엔담당 미국무차관보 히카슨사이에 있은 담화가 이것을 명백히 증명해주고 있다.

파카슨— 주의를 받고있었다면 어떻게 할 작정이였는가하는데 대하여 계획을 세우게 하였습니까?

히카슨— 예, 그것도 좀 생각하였습니다.

파카슨— 생각하였다고 말하는것은 좀 명백치 않은데요. 문서로 어떤것을 시켰습니까? 어떤계획을 세웠습니까?

히카슨— 유엔에 가지고가서 즉시 행동하여 주도록 계획을 세우고있었습니다.

파카슨— 그러면 결의안이 기초되여 있었습니까?

여기에서 히카슨은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담화가 시작될 때에도 히카슨은 무쵸가 보낸 보고에 기초하여 사실을 숨기고 아무런 《경고》도 없이 《공격》을 받았다고 우겼으나 따지고드는 통에 사실이 드러나자 하는수 없이 파카슨의 질문에 응답하였는데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자 또 대답을 회피하려 하였다.

파카슨이 계속 따지고들자 히카슨은 마지 못해 담화에 응하였다.

파카슨— 그러면 아무런 계획도 없었단말이군요!

히카슨— 유엔에 가지고 간다는것은 정해져있었습니다. 어떤것을 이야기할것인가 하는것도 개략적으로는 정해져있었습니다.

파카슨— 그것은 당신이 담당한 부문이니까 별로 크게 생각할것도 없지 않습니까.

히카슨— 그렇습니다. 결의안의 골자만은 작성하여두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조선전쟁과 관련한 모든 문건을 국무성에서 준비하고있었기때문에 별장에서 돌아오자바람으로 트루맨이 그로스에게 유엔안전보장리사회소집을 요구하라고 지시하였던것이다.

별장에 있던 트루맨이 받은 보고는 짜놓은 각본대로

북조선이 먼저 《공격》을 개시했다는것이다. 그런데 그가 백악관에 돌아오자바람으로 그로스에게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유엔에 제출할 아무런 기초적문건이나 안도 없이 어떻게 트루맨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소집을 요구했겠는가.

그것은 트루맨이 미주리주의 별장에 가서 주말휴식을 하고있었지만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략전쟁을 개시하면 리승만이 덜레스가 써주고 온 전보문을 유엔에 날릴것이고 《유엔조선위원단》도 꼭 같은 내용의 전보를 유엔에 날리리라는것, 무쵸는 또 무쵸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무런 《경고》도 없이 남조선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하였다고 보고하리라는것을 알고있었으며 이에 대처하여 국무성 직원 30명은 주말 휴가를 놀지 못하면서 국무성에 출근하여 유엔에 제출할 문건을 작성하여 놓았으리라는것을 사전에 알고있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결국 히카슨이 《결의안의 골자만을 작성하여 두었다》고 한것은 이 모든 계획이 트루맨의 승인을 받아 실천에 옮겨진것이며 트루맨은 그 누구의 보고를 듣고 어쩌하느라 복잡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아도 모든것이 《순조롭게》 되리라는것을 타산하였기때문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소집을 서둘렀던것이다.

당시 조선문제는 유엔이 개입할 성격이 아니였다.

유엔헌장 제2조 7항에는 문제가 국내적성격이 아니고 국제적성격인 경우에만 안전보장리사회가 간섭하게 되여있다. 즉 유엔은 자기 헌장에서 어떠한 국가의 내정에 대하여서도 간섭하는것을 금지하고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소집되였다.

이것은 유엔헌장에 대한 횡포한 위반으로 된다.

6월 25일과 6월 27일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조선문제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였다.

이것도 유엔헌장에 대한 란폭한 유린으로 된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그 성원국들의 대표가 일치가결하여야 모든 결정이 채택되고 효력을 발생한다고 헌장 제27조 3항에 명시되여있다.

그리고 제32조에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그가 심의하는 분쟁의 당사국이 유엔성원이건 아니건 할것없이 문제토의에 참가시키게 되여있다.

그러므로 이전 쏘련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선문제에 대한 결의》가 《채택》되였다는 것은 유엔헌장 제27조 3항에 대한 엄연한 위반이며 당사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의 참가없이 채택된 《결의》는 유엔헌장 제32항에 대한 유린이다. 결국 유엔이 《채택》한 《결정》은 비법적인것이다. 그러면 트루맨이나 미국무성관리들, 유엔담당국무차관보 히카슨, 유엔주재 미국대리대사 그로스가 유엔헌장을 몰라서 막무가내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소집을 요구했겠는가,

그런것이 아니였다.

미제는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자기의 침략적목적을 달성하려고 발악했으며 유엔은 미국의 압력에 의하여 자기의 신성한 이름을 도용당했고 공정성을 잃었던것이다.

그러면 미제가 유엔에 《기소》한 기초가 무엇인가.

그것은 무쵸가 보낸 보고였다.

무쵸의 보고에는 《…부분적으로 확인된 남조선군의 정보에 의하면 북조선군은 오늘 아침 몇개 지점에서 한국령토에 침입하였다. 전투는 오전 4시에 개시되여 옹진은 북조선의 포화에 의하여 포격되였다.

오전 6시경, 북조선 보병부대가 옹진지구, 개성지구, 춘천지구에서 38도선을 넘기 시작하였으며 동해안의 강릉남쪽에서 수륙으로부터의 공격이 진행되였다고 전해지고있다.

전차를 선두로 한 북조선군은 춘천에 접근하고있다고 전해지고있다. 강릉지구전투의 상세한것은 북조선군이 도로를 차단한듯하다고 하나 명료치 못하다. 나는 오늘 아침 이 전보와 관련하여 남조선군사고문단 및 남조선당국과 협의하였는데 공격의 성질과 그 개시방법으로 보아 남조선에 대한 전면적공격인듯하다》고 씌여져있다.

어느 문장, 어느 자료도 명확한것이 없고 째이지 못한 보고서이다. 무쵸가 대사이기는 하였으나 군인이였기때문에 문장상결함은 용화하더라도 군인출신이 전투정황에 대한 보고를 너무도 어설프게 썼다는 감이 확연히 안겨온다. 전투정황보고도 제대로 쓸줄 모르는 무쵸가 군인으로서 작전은 어떻게 했으며 전투지휘는 또 무슨 수로 했겠는가, 미국의 군부 우두머리들이 다 무쵸와 같은 《실력자》들이란 말인가.

무쵸는 결코 똑똑한 글을 쓸수 없었다.

우선 전쟁을 시작하면 저들의 승리를 의심치 않았기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전쟁을 도발했다는 짤막한 전보문밖에 생각하지 않았을것이다.

다음으로 사실을 외곡하여 꾸며내다보니 명확한 자료를 안받침할수 없었을것이다.

무쵸의 보고에 대하여 한 미국인은 1952년에 다음과 같이 비난하였다.

《…미국대사는 공격의 성격 및 그 실시방법으로 보아 감히 이것은 남조선에 대한 전면적공격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부분 주관적결론을 짓고있다.》

또한 미국인 력사학자 콘데는 무쵸의 보고는《태평양횡단 해저케불에 의한것으로서 미확정정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전쟁이 북조선으로부터 시작되였다는 구체적증거가 전혀 없다는것을 명백히 표시하고있다.

이 보고에는 바로 북조선을 〈침략자〉로 락인할 미국의

주장을 유엔이 정당화할수 있는것이란 무엇하나 없는것이다.》라고 찍어서 자기의 글에 썼다.

또 미국의 한 평론가는《북조선이 남조선을 공격하였다는 1950년 6월 25일의 소식은 리승만과 맥아더의 주머니에서 나왔다》고 평하였다.

때문에 미국무성은 무쵸의 보고를 삭제수정하여 안전보장리사회에 내놓았다. 미국무성은 무쵸의 보고에서《…전투는 오전 4시에 개시되여 옹진은 북조선의 포화에 의하여 포격되였다》는 부분을 빼버린것이다. 이 문장에서 보는바와 같이 새벽 4시에 전투가 개시되였는데 선제공격을 누가 했는가 하는것은 밝혀져있지 않다.

이런 보고를 그대로 안전보장리사회에 내놓으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전쟁의 책임을 넘겨씌울수 없을뿐아니라 그 과학성도 상실하게 된다. 때문에 국무성은 이 부분을《북조선군이 6월 25일 이른 아침 몇개 지점에서 남조선령토를 침략하였다》고 고쳐서 안전보장리사회에 내놓았다.

이렇게 고치지 않으면 4시에 전투가 시작되였는데 인민군대가 6시에 38도선을 넘어섰다는것을 누구도 믿지 않을것이며 인민군대가 먼저 공격하였다는것을 안전보장리사회 회의참가자들에게 납득시키기 어려울것이였다.

때문에 국무성은《오전 6시경 북조선 보병부대가 옹진지구, 개성지구, 춘천지구에서 38도선을 넘기시작하였으며》라는 부분을 완전히 빼버렸던것이다.

그러나 미제가 유엔에 제출한 조선전쟁에 관한 보고는 무쵸의 보고원문이 세상에 공개됨으로써 허위적 날조품이라는것이 날날이 폭로되였다.

당시 유엔사무총장으로 있었던 트루그베 리는 미국무성이 빼버리고 고치고 다듬어 내놓은 무쵸의 보고라는것과 덜레스가 써준것을 그대로 날려보낸 리승만역도의

《전보문》, 역시 미제의 각본에 따라 《유엔조선위원단》이 보낸 《보고》에 기초하여 안전보장리사회를 소집하였으며 《조선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여기에서 문제로 되는것은 《유엔조선위원단》의 《보고》라는 것이다.

《유엔조선위원단》의 《군사감시반》성원들은 6월 25일 새벽에 미군사고문단 숙소에서 자고있었다. 그들은 6월 23일까지 38도선에 대한 시찰을 끝내고 24일에 서울에 돌아와 트루그베 리에게 《어떠한 정보로도 북조선의 침략기도를 확인할수 없었다》는 보고를 냈었다.

그러면 《유엔조선위원단》이 정말로 유엔에 자기의 보고를 하였는가. 그런것이 아니였다.

서울에 기여들었던 덜레스는 두통의 전보문을 리승만역도에게 넘겨주었었다. 리승만역도는 그 하나를 6월 25일 제놈의 이름으로 유엔에 날려보냈고 다른하나는 무쵸에게 넘겨주었는데 무쵸는 그것을 미국무성에 보냈다.

미국무성은 무쵸로부터 온 허위전문을 유엔주재 미국대리대표 그로스에게 주어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하면서 그 전보문이 《유엔조선위원단》이 보내온 《보고》라는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유엔조선위원단》이라는것이 미제의 조작에 의하여 날조된것이긴하지만 어쨌든 유엔이 조작하여 현지에 파견한 유엔의 《대표단》인것만큼 체계상으로 자기의 보고를 유엔에 보냈어야 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여 《유엔조선위원단》이라는 국제기구의 한개 《대표단》이 유엔의 한 성원국인 미국의 국무성에 자기의 보고를 보냈는가.

제반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유엔사무총장 트루그베 리는 제기된 사실에 대한 객관적확인도 없이, 유엔헌장에 밝혀져있는대로 당사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의 참가도 없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성원국인 이전 쏘련과 중국이 결석한 상태에서 서둘러 안전보장리

사회를 소집하였으며 《조선문제에 관한 결의》이라는것을 날치기하여 조작해내였다.

이에 대하여 당시 영국정보국 극동부장이였던 죤 브랫트는 《전투는 6월 25일 미명에 시작되였다. 이날 오후 쏘련(이전)과 중국을 제외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북조선에 유죄를 선언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 결정은 서울로부터 유엔조선위원단이 보낸 어느쪽부터 전투가 시작되였는가 하는 증거가 없는 전보에 기초하여 채택되였다. 서울로부터의 전보의 본문은 감추어져있었다.》고 사실을 까밝혔다.

6월 27일에 유엔이 《채택》한 《결의》도 마찬가지이다.

6월 27일 오전 11시 17분에 미국대통령 트루맨은 맥아더에게 미 해공군을 조선전선에 전면적으로 출동시킬것을 명령하였다. 그런데 유엔은 조선전쟁에 대한 미군의 즉시적인 개입과 전면적인 참전을 그 허울로 가리워주었다.

유엔은 미 해공군을 조선전선에 전면적으로 출동시킬것을 명령한 트루맨의 명령이 떨어진 몇시간후에 안전보장리사회를 소집하고 미제의 조선전쟁간섭을 유엔의 《결정》으로 가리워주는 비법적인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인 력사학자 콘데는 트루맨이 성명을 한 2~3시간후에 《유엔은 남조선에 원조를 주도록 전 가맹국에 호소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고 까밝혔다.

미 륙해공군이 전쟁에 개입하면서부터 미군의 야수성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미공군은 평화적 주민지대와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야수적폭격을 감행함으로써 피비린내나는 살륙을 일삼았으며 미륙군 또한 야수적으로 인민들을 학살하고 재물을 략탈하였으며 모든것을 마구 파괴해버렸다.

세계는 미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미제는 조선에서 피묻은 손을 떼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되자 미제는 저들의 침략전쟁도발의 진상을 가리우며 세계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1950년 7월 7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소집케 하고 《유엔군》조작에 대한 《결의》를 채택케 하였다. 이에 대하여 영국의 문필가 큐원토는 《리사회의 모든 토의에서 지배권을 휘두른것은 미국이였다. 미국은 리사회를 독촉하여 행동을 취하게 하였다》고 하면서 《안전보장리사회가 열렸을 때에는 리사회는 자유롭게 발언할 힘도 가지지 못하고 미합중국의 의사를 따를밖에 달리할수 없었다.》라고 《유엔군》조작의 내막을 까밝혀 폭로하였다.

일본의 한 출판물은 《남조선군이 북조선으로 침입을 개시한 50년 6월 25일 미국은 쏘련의 참가없이 유엔안보리사회를 열게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침략자〉로 비난하는 결의를 채택케 하고… 6월 27일에는 북조선의 인민군대에 〈무력제재〉를 가할 결의를 강제채택시켰다…

쏘련이 결석한채 미국의 강압에 의하여 열린 안보리사회의 결의는 상임리사국의 일치가결을 요구하는 유엔헌장 제27조 3항에 완전히 위반되는 불법적이고 부당한것이라는것은 말할여지도 없다.》고 명백히 지적하였다.

또 뽈스까정부는 《유엔사무총장이 뽈스까정부에 전달한 〈결정〉이라는것은 안전보장리사회의 2개상임리사국 즉 쏘련과 중국의 참가없이 채택된것이다. 때문에 그 결정은 안전보장리사회의 결정으로 간주될수 없는것이며 다만 누구에게도 책임을 부과시키지 못하는 유엔의 6개 성원국의 의견에 불과한것》이라고 그 비법성과 무효성을 주장하였다.

제반 사실은 미제가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엔을 도용하는 한편 교활하고 파렴치하게 책동하였다는것을 여실히 말해주고있으며 미제야말로 야수적인 침략자이라는것을 반박할 여지없이 확증해주고있다.

가면을 벗은 《유엔군》

미군은 언제부터 전투작전에 참가했는가

조선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미국의 《민주주의극동정책위원회》의 성원들은 《조선전쟁은 리승만과 미국과의 협력에 의하여 도발된것이며 조선인민에 대한 미국의 전쟁이였다.》고 그 진상을 발가놓았다.

그러면 1950년 6월 25일 미군은 조선전쟁을 도발한 그때부터 전투작전에 참가했는가.

전면전쟁이라는 개념에서는 그렇게 말할수 있다.

그러나 미군은 1945년 9월 8일, 인천에 피묻은 침략의 발자욱을 찍은 그때부터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국부전쟁에 참가하였다.

1945년에 10명의 미제침략군이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무장공격에 가담했으며 1946년에는 50명, 1947년에는 143명이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무장공격에 참가하였다.

미군이 침략군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 전면적으로 참가한것은 1950년 6월25일부터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출판물은 《맥아더는 이 명령 (1950년 6월 27일 오전 11시 17분에 미 해공군을 조선전선에 출동시킬데 대한 트루맨의 명령)에 앞서 독단적으로 비행

기를 조선에서 활동시키고있었다.》고 까밝혔다.

맥아더는 속전속결로 공화국북반부 전 지역을 타고 앉으려던 애초의 계획이 파탄되자 즉시에 일본 기지들에 있던 미공군 비행기들에 출격을 명령하였다.

맥아더의 이러한 독단적인 행위에 대하여 그의 한 부하가 우려를 표시하자 맥아더는 버럭 성을 내면서 《당신은 명령을 집행할 의무만 지닌 군인이요. 대통령이 언제 유엔결의를 보낸다는거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다 결정해놓은것이란 말이요. 대통령과의 문제는 내가 책임질것이요. 빨리 비행기들을 출격이나 시키시오.》라고 말했다.

맥아더의 명령에 따라 일본에 기지를 둔 미공군 비행기들은 6월 25일부터 조선전선에 본격적인 출격을 시작하였다.

미 제5전술항공군 관하의 68, 339, 25 전폭격기련대들만도 6월 25일 하루동안에 연 163회나 출격하였다.

미공군은 6월 26일 림진강도하장과 문산, 의정부의 인민군 구분대들에 대한 폭격만행을 감행하였으며 115대의 폭격기들을 동원하여 흥남비료공장에 대한 야수적폭격을 감행하여 공장을 완전히 파괴하여버렸다.

미국신문 《뉴욕타임스》는 1950년 7월 2일부에 미공군의 폭격만행에 대하여 《미공군은 6월 26일 이른 아침부터 조선에 대한 폭격을 개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맥아더는 미공군만 조선전쟁에 투입하면 지리멸렬되여가는 저들의 괴뢰군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인민군군인들의 공포를 불러일으켜 전선형편을 역전시키리라고 타산하였다. 그러나 미공군의 야수적폭격도 인민군부대들의 진격을 도저히 막을수 없었다.

한편 미제는 일본 군항들에 있던 함선들을 출항시켜 6월 27일부터는 조선의 해안과 비행장들에 대한 함포사

격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항공모함들에서 출격한 비행기들은 공화국북반부의 중요공업도시들에 대한 야수적폭격을 거듭 감행하였다.

미공군사령관 반덴버그는 1950년 6월에 미공군을 조선전선에 대대적으로 출격시키면 《수주간에 북조선을 지도상에서 없앨수 있다.》고 하면서 트루맨의 신경을 자극하여 트루맨으로하여금 한시 바삐 미공군의 조선전선참전을 명령하도록 추동하였다. 그리하여 트루맨은 1950년 6월 27일의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있기 14시간전에 텔레타이프로 맥아더에게 미해공군의 조선전선참전을 명령하였다.

세계의 량심있는 언론계는 트루맨의 이와 같은 독단적인 행위에 대하여 《…1만마일이나 떨어진 워싱톤에서는 미국의 즉시 간섭을 위한 명령이 내렸다.… 그리고 아예 의회와 유엔에 상담하지도 않았다.》고 사실을 밝혔다.

미제는 《유엔군》의 조작을 평화를 위한것인듯이 선전하면서 세계를 기만하려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평화회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오직 전쟁의 확대와 침략전쟁의 목적달성을 위한데 총력하였다.

미제는 마치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 6월 27일 결정에 따라 미군이 《유엔군》으로 조선전선에 참전한것처럼 세계를 기만하려 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 《유엔군》은 미군이라는 침략군의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너울이였다.

조선전선에 나타난 맥아더

대규모적인 포사격뒤에 공격으로 이전한 괴뢰군은 미군고문들의 《고무추동》을 받으며 38도선을 넘어 북쪽으로 1~2키로메터까지 《공격성과》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38선경비대의 완강한 방어에 부딪쳐 더는 전진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반공격으로 이전한 인민군부대들에 의하여 공격서렬은 혼란에 빠지고 뒤이어 무질서한 패주를 시작하였다.

일이 이렇게 되자 괴뢰군 17련대의 미군고문들은 련락기를 타고 서울로 뺑소니를 쳤다.

덜레스가 《만약 2주일만 견디여낸다면》하고 믿으며 공격에로 내몬 그 《2주일부대》들은 패주를 시작하면서 물먹은 담벽처럼 무너졌다.

하우즈만과 함께 의정부에 나와 무너지는 전국을 수습해보려고 날뛰던 채병덕은 본부를 시흥리에 옮기였다가 미군사고문단 참모장 라이트의 된 추궁을 받고 다시 서울로 되돌아왔다.

적들은 미군의 참전을 기다리면서 한강남안에 방어진을 구축하려고 서둘렀다.

한편 적들은 《오늘 정오에》 미군의 《비29 100대》가 전선에 《래원한다》는 거짓선전을 하여 괴뢰군의 기세를 조금이라도 북돋아주려고 하였으나 그 노력도 허사로 되였다.

미제는 처치준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전진지휘소 및 련락반》성원들을 수원에 도착시켰으며 미아리고개를 《최

후저항선》으로 하여 다시금 공격에로 이전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한갖 시도였을따름이였고 혼란속에 패주하는놈들을 도저히 수습할수 없었다.

미군사고문단의 라이트는 한강다리폭파를 명령하였다. 다행히도 한강다리폭파전에 한강이남으로 뿔뿔히 도주하였던자들은 미군비행대의 폭격에 그만 모두 황천객이 되고말았다.

트루맨은 맥아더를 호되게 추궁하였다.

그리하여 맥아더는 날로 기울어가는 전선형편을 바로잡아볼 심산도 있고 트루맨의 호령도 불같아서 6월 29일 조선전선《시찰》을 떠났다.

맥아더는 미극동군 공군사령관 죠지 스트라이드메이야, 참모장 알몬드를 비롯한 15명의 고위장교들을 거느리고 일본 하네다비행장에 나왔다.

그들이 하네다비행장에 나왔을 때에는 아침부터 내리던 비에 바람까지 불어쳤다. 찬비가 맥아더의 코날이 선명한 얼굴에 휘뿌려졌다.

맥아더는 얼굴에 흐르는 비물을 한손으로 훔치고나서 자기의 전용비행기 《바탄》호에로 발걸음을 옮겼다.

비행기안에 몸을 감춘 맥아더는 비물을 털어버리고 의자에 앉아 물주리를 꺼내들었다. 맥아더가 자신의 5성견장만큼 사랑하는 애용품인 물주리의 사연을 알고있는 알몬드는 야릇한 미소를 입가에 담았다.

맥아더의 그 애용품은 필리핀전선에서 미군이 일본군에 쫓기여 도망칠 때 맥아더가 가까스로 건사한것이였다.

맥아더의 전용비행기 《바탄》이 수원상공에 날아들었을 때 수원비행장은 조선인민군 비행대의 공습을 받은 직후였다.

활주로가 파헤쳐지고 파괴된 비행기잔해들이 여기저

기 널려있었다. 검붉은 화염은 《바탄》을 삼킬듯 널름거리며 타래쳤다.

그 광경을 내려다보는 놈들은 사색이 되여 맥아더의 눈치만 살폈다.

그때의 맥아더에 대하여 일본도서 《조선전쟁》은 맥아더는 《비행기안에서 북조선비행장을 공습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고 야유하여 표현했다.

맥아더의 명령을 받은 미군비행대는 이날 172회나 출격하여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야수적인 폭격을 감행하였다.

간신히 수원비행장에 내린 《바탄》호에서 밖으로 나온 맥아더는 마중 나온 주구 리승만과 무쵸와 짤막한 《회담》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회담》도 여유있게 끝낼수 없었다.

조선인민군 비행기가 급강하로 구름속을 뚫고내리며 비행장에 기총사격을 가했던것이다.

맥아더는 필리핀전선에서 들구뛰던 그 솜씨로 재빨리 안전해보이는곳으로 뛰였으나 리승만과 무쵸는 비행기날개밑으로 어정어정 기여들었다. 기총탄이 발부리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는데 기겁한 무쵸는 괴상한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나 냅다 뛰였다. 두세발자국을 뛰던 무쵸가 허궁 넘어졌다. 기총탄에 부상을 당했는가 하여 두루 살펴보았으나 부상당한곳은 없었다. 무쵸의 눈이 엎드린채 후둘후들 떨고있는 리승만의 다리에 멎는 순간 그는 자신이 리승만의 다리에 걸려 넘어졌다는것을 깨달았다.

후날 무쵸는 뻔뻔스럽게도 자기가 마치도 리승만을 몸으로 덮어 위기에서 구원해준듯이 지껄였다.

겨우 목숨을 건진 맥아더는 얼른 찦차를 타고 비행장을 빠져나갔으며 리승만과 무쵸는 맥아더와의 《회담》이고 뭐고 살길을 찾아 대전으로 줄행랑을 놓았다.

맥아더는 언제나 그러하듯이 운전사의 옆좌석이 아니라 뒤좌석의 가운데 끼여앉았다. 앞좌석에는 라이트를 앉히고 자기의 량옆에는 알몬드와 《시흥지구전투사령부》참모장을 각각 앉혔다.

영등포의 뒤산쪽으로 달리는 찦차차창으로는 패잔병들의 죄죄한 몰골이 안겨왔다. 공들여 키우고 길들인 번견다운 패기를 지닌놈은 하나도 안보였다.

자동차에서 내린 맥아더는 용기를 내여 영등포뒤산으로 걸음을 옮겼다. 거기에서는 전선이 한눈에 안겨왔다.

방어로 이전한 번견들이 저 방어선을 며칠만이라도 지탱해주었으면 하는 간절함이 맥아더의 가슴을 채웠다.

맥아더의 간절한 그 마음도 아랑곳하지 않고 인민군군인들의 공격이 시작되자 번견들은 꼬리를 사타구니에 사리고 달아빼는 촌개들처럼 줄행랑을 놓았다.

그때를 회고하여 맥아더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좀더 전방으로 나가보았다. 눈아래에 펼쳐진 전경은 비극적이였다.…

나는 내가 받은 이 처절한 광경을 한시간이나 보고있었다.》

절망적인 그 현실앞에서 맥아더는 미지상군의 대규모적인 투입을 결심하였다.

맥아더는 수원을 떠나기에 앞서 무능한 괴뢰군우두머리들을 교체할것을 요구하였다.

맥아더의 그 요구에 따라 채병덕은 떨어지고 미국에 가있던 정일권이 소환되여 괴뢰군총사령관겸 참모총장으로 임명되였다.

맥아더는 이날 오후 6시 15분에 수원비행장을 리륙하여 하네다로 날으고있는 《바탄》호안에서 미지상군의 공식투입을 요구하는 편지초안을 썼다.

《…
현재의 전선을 유지하며 나아가서 실지를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조선전선에 미지상군을 투입하는것이다.…즉시 보병 전투련대를 파견하며 이미 일본에 주둔하고있는 군대가운데서 2개 사단을 증강하여 반격전을 전개하고싶다. 이 지리멸렬된 지역에 미국의 륙해공군을 충분히 리용할 준비를 갖추지 않는다면…최악의 경우 우리들의 사명이 완전히 실패로 끝날지 모른다.》
맥아더의 편지전보문을 받은 트루맨은 즉시 1개 련대병력을 조선전선에 투입할데 대하여 승인하고 이어 애치슨, 존슨. 브래들리 등을 백악관 각료회의실에 불러다놓고 미륙군의 조선전선투입문제를 토의하였다.
그리하여 맥아더는 자기 지휘권안에 있는《병력을 사용할 전권》을 받게 되였으며 그 즉시로 미24사단을 조선전선에 출동시켰다.
미제침략군 24사 사단장 띤은 조선전선에 출동할데 대한 명령을 받은 그날로 21련대 1대대를 조선전선에 급파하였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조선전선에 투입된 미제침략군의 최초의 선견부대를 이 스미스대대로 알고있으며 또 미제도 그렇게 선전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스미스대대는 미제침략군 륙군에서 조선전선에 파견된 첫 부대가 아니였다.
맥아더가 전용비행기《바탄》을 타고 수원에 날아들기전에 507자동대공포부대가 수원에 배치되여 대공전투에 참가하고있었으며《항만, 비행장 및 상륙지점 확보》라는 명목으로 다른 륙군부대들도 부산지역에 투입되여있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수원에서 대공전투에 참가했다가 조선인민군비행기의 기총사격에 의하여 부상당했던

미군병사가 증언했으며 또 워싱톤행정부의 대변자였던 페이지도 1950년 7월 5일에 오산에서 박살난 스미스대대는 《교전한 최초의 미국보병이였으나 전선에 나간 최초의 지상군은 아니였다.》고 말하였다.

맥아더가 수원을 떠나면서 그처럼 간곡히 수원《사수》를 당부했건만 그것은 한갖 당부로 끝나고말았다.

그것은 맥아더가 수원을 떠난후 이곳에서 벌어진 추태와 관련된다.

그 즈음에 괴뢰군놈들이 미군비행기 한대를 쏴떨구었던것이다.

적들은 인민군대의 땅크를 《사냥》하라고 전투기 4대를 날려보냈다.

인민군대의 땅크《사냥》을 위하여 출격한 미군비행기들과 오스트랄리아비행기들은 인민군대의 땅크가 아니라 수원—오산 도로를 따라 남으로 줄행랑을 치는 30여대의 괴뢰군승용차들을 공격하였다. 또 평택역에 있는 9차량의 탄약차를 목표로 폭탄을 던지고 기총소사를 해댔다. 미군비행기의 이러한 습격으로 모두 200여명의 괴뢰군이 살상당하였다. 이에 격분한 괴뢰군들이 눈먼 미군비행기에 사격하여 1대를 쏴떨구었던것이다.

한편 《전방지휘소》를 책임지고 수원에 기여들었던 처치는 맥아더로부터 미공군의 선견비행대가 도착할 때까지 수원비행장을 고수할 명령을 받았으나 그것을 수행해내지 못하였다.

6월 30일 오후였다.

정찰비행을 하고 돌아온 비행사로부터 《인민군대의 종대가 수원》에 육박하고있다는 보고를 받은 처치는 오산의 전화중계소에 전화를 하려고 달려갔다.

그 사이에 적들속에서는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철길쪽에서 붉은 섬광이 번쩍이는것을 본 한놈이 《적

이다, 적에게 포위되였다.》하고 소리질렀다. 그러자 《비행장으로 뛰라.》, 《장비를 파괴하라.》하는 소리가 혼잡을 이룬 적의 무리속에 날아들었다.

그 바람에 《전방지휘소》의 사병들은 앞을 다투어 비행장으로 달려갔다. 맥아더사령부와의 유일한 무선결속소의 통신병들은 무선결속설비들을 폭파해버리고 비행장으로 도망쳤다.

비행장에 모여든 오합지졸들중에는 미국대사관의 참사관과 해군무관을 비롯한 대사관놈들도 있었다.

그 오합지졸들속에서 누구인가 《대전으로 가는것이 좋겠다.》고 하자 놈들은 앞을 다투어 대전으로 향했다. 자동차들이 서로 앞서겠다고 짓좋으며 다투는 때에 전화중계소에 갔다가 비행장으로 돌아온 처치가 그 광경을 보게 되였다. 처치는 노발대발하여 《추태다.》라고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사람들을 멈춰세우려고 발악했다.

그러나 이미 흐르기 시작한 사람들의 물결을 막을수가 없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처치자신도 수원을 포기하고 전선지휘소를 대전으로 옮겨가고말았다.

수원《시찰》을 마치고 도꾜로 돌아간 맥아더는 6월 30일 트루맨으로부터 1개 련대전투단의 조선전선투입을 허락받은 즉시로 8군사령관 워커를 통하여 규슈의 고꾸라에 사령부를 둔 미24사에 출동명령을 내렸다.

워커를 통하여 띤에게 내려진 맥아더의 명령은 다음과 같다.

《 ①2개 소총중대에 42인치박격포 2개 소대와 75미리 무반동총 1개 대대를 증강하여 대대장지휘하에 남조선으로 공수할것이며

②사단본부를 즉시 비행기로 부산에 이동하고

③사단 주력은 해상으로 수송할것이며

④공격작전을 위한 기재를 설치하라.》
맥아더의 명령을 받은 띤은 미24사단 21련대의 1대대에 선견대의 임무를 주었다.
선견대의 임무는 《될수록 북방에서》 인민군의 전진을 저지시키며 24사단의 작전전개를 보장하는것이였다.
7월 1일 새벽 3시에 일본의 구마모도를 떠난 《스미스특공대》는 2일 8시에 대전에 도착하였다.
대대장 촬스 비 스미스는 1941년 12월 초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격할때 중대장으로서 바바즈에서 방어전에 참가했고 그후 가는곳마다에서 주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고 재물을 략탈하는데서 남다른 《솜씨》를 보여 띤의 총애를 받는놈이였다.
7월 1일 새벽 3시에 구마모도에서 100여대의 화물차에 나누어타고 이다쯔께공군기지에 도착한 《스미스특공대》는 여기에서 다시 《씨－54》대형수송기 6대에 나누어타고 일본을 떠났다.
이날 이 6대의 수송기들은 이다쯔께—부산사이를 열번이나 왕복하면서 증강된 《스미스특공대》를 부산으로 날랐다.
사단장 띤은 일본을 떠나는 스미스에게 사단의 《명예》가 당신들에게 달려있다고 하면서 《부산에 도착하면 곧 대전으로》 가며 《될수록 대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북쪽에서》 인민군대의 전진을 막으라고 훈시했다.
대전에서 스미스를 만난 《전선지휘소》 책임자 처치는 오산계선에 진을 칠것을 명령하면서 《땅크를 보고도 도망치지 않는 군대》가 되며 《땅크소리만 들어도 도망치는 병사》는 필요없다고 을러멨다.
오산북쪽계선에 방어진지를 구축한 스미스는 인민군대가 제놈들을 《보기만해도》 《도망칠것》 이라고 큰소리를 쳤다.

과연 스미스의 그 《선견지명한 예언》대로 사태가 발전할것인가.

스미스《특공대》의 운명

선견대의 임무를 띠고 조선전선에 파견된 스미스《특공대》는 오산북쪽 금암리계선의 118고지를 비롯한 철길연변과 도로주변에 진지를 구축하였다.

한편 괴뢰군 제1군단장놈은 참모장교들을 모아놓고 미군이 인민군대의 땅크를 격퇴하는 《모범》을 배워오라고 하면서 그들을 스미스《특공대》에 보냈다.

《모범전투》는 7월 5일에 진행되였다.

밤새 내리던 비는 아침 10시가 되여도 멎지 않고 그냥 구질거리며 내렸다.

드디여 미군병사들이 《생포》하려고 기다리던 인민군땅크 8대가 전연에 나타났다.

미군병사들은 《모범전투》에 출연한 군인으로서의 《기개》를 살려 75미리무반동포와 로케트포, 바쥬카포를 쏘아댔다.

그랬으나 《인민군땅크는 끔쩍도 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면서 놈들에게 불벼락을 들씌웠다.

급해맞은 스미스는 전화로 포병대대장 페리에게 뭘하는가고 호통쳤다.

스미스의 호통에 바빠난 페리는 105미리곡사포에 대전차포탄을 장진하고 마구 쏘아댔다. 그랬으나 인민군땅크들은 도서 《미국은 패하였다》(구월서방, 1952년판)가 지적했듯이 《단 한대도 격파》되지 않고 적들을 짓뭉개버

렸다.

로케트포조장 얼바솔과 그의 부하들은 인민군땅크포화에 맞아 넘어지는 전주에 깔려 즉사했고 포병대대장 페리는 오른쪽다리에 파편을 맞고 부상당했다.

뒤미처 전투에 진입한 땅크들까지 합쳐 33대의 인민군땅크들이 적보병진지를 짓뭉개버리고 포진지에로 육박했다.

그바람에 100여명의 적들이 죽고 포탄창고에 불이 달려 300여발의 포탄이 우뢰소리를 내며 터졌다.

인민군땅크의 불같은 돌진에 적들의 52야포대대는 일대 혼란에 빠져버렸다.

인민군땅크들은 앞의 보병들을 고립시키고 뒤의 포부대를 무자비하게 짓조겨댔다.

고립된 적보병들은 700～1,200메터의 원형진지안에 포위되였다.

인민군포병들의 강력한 지원포사격에 뒤이어 적참호에 육박한 인민군보병들은 적진속에 수류탄벼락을 들씌우고 기관총사격을 맹렬히 해댔다.

미군의 《모범전투》를 참관하러 왔던 괴뢰군 참모장교들은 일찌기 꽁무니를 뺐고 118고지의 《비중대》의 미군은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놈들은 고지좌측에 중기관총을 배치하고 미친듯이 사격해댔다.

고지익측으로 우회한 인민군군인들은 수류탄으로 적중기관총을 족쳐버렸다.

어떤 놈들은 벌써 진지를 탈출하고있었다.

스미스는 《병사들아 진지로 돌아가라! 그것때문에 너희들은 급료를 받지 않느냐.》하고 소리치며 도망치는 병사들을 권총으로 쏘아눕혔다. 그랬으나 병사들은 총을 버리고 앞을 다투어 도망쳤다.

그때 포병부대의 통신병들이 헐떡이며 지휘소에 뛰여

들어 포진지들이 모조리 파괴되고 대부분이 살상 되였으며 전방언덕너머에도 인민군대가 나타났다는것을 보고하였다.

더는 형세를 수습할수 없게 된 스미스는《어물거리다가는 그야말로 전멸된다. (후퇴)의 썰물때는 지금이다.》라고 중얼거리더니 드디여 대대에 퇴각명령을 내렸다. 그때는 오후 2시 30분이였다.

《모범전투》에 출연했던 미군병사들은 개활지대로 냅다뛰였다.

그러자 인민군대의 중기관총이 개활지대에 나타난 적들을 모조리 소멸해버렸다.

방금전까지 그곳으로 도망치는 놈들을 쏘아대며 전호로 돌아오라고 소리지르던 스미스는 제놈이 앞장에 서서 개활지대로 들구뛰였다.

옆에서 뛰던 병사들이 퍽퍽 쓰러졌다. 스미스는 병사들이 쓰러지건말건 젖먹던 힘까지 다하여 논판을 벗어났다. 숲속에서 포병대대장 페리를 만난 스미스는 그와 함께 안성으로 빠지는 달구지길에 들어섰다.

이러한 실태에 대하여 외국출판물들은《…인원을 파악해보니 185명뿐》이였고《…비중대는 바도나중위이하 13명이 겨우 살아남았다.》고 썼다.

그 살아남은 놈들도 절반은 부상당한 놈들이였고 대부분은 무기를 집어던진 알몸뚱이들이였다.

스미스《특공대》의 파멸은 미제침략군의 패전사의 서막이였다.

34련대는 어떻게 되였는가

7월 6일, 천안으로 달려간 띤은 미 제34련대 련대장을 철직시키고 맥아더사령부가 《유능》한 지휘관이라고 선발하여 일본에서 건너보낸 마팅을 련대장으로 임명하였다.

원래 34련대는 21련대와 함께 안성, 평택, 천안 일대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희생을 무릅쓰고 최대한의 반격과 지연 작전》을 진행할 임무를 받고있었다.

그런데 오산북쪽에서 스미스《특공대》가 여지없이 녹아났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34련대 병사들은 겁에 질려 벌벌 떨다가 인민군군인들이 나타나자 총 한방 제대로 쏘아보지도 않고 퇴각해버리고말았다. 련대장자신이 지휘부를 천안으로 옮기고말았으니 어느 병사가 죽기를 각오하고 인민군대의 진격을 막기 위하여 전호에 엎디여 있었겠는가.

띤은 처음에 34련대의 지휘부가 천안으로 옮겼다는 정보를 믿지 않았다. 그러다가 34련대가 성환으로부터 천안으로 지휘부를 옮긴것이 사실임을 안 띤은 성이 머리끝까지 치받쳐올라 《상승사단》의 《공적》있는 련대장을 눈 한번 까딱하지 않고 철직시켜버렸던것이다.

새로 미24사단 34련대 련대장으로 임명된 마팅은 《솜씨》를 보일 때가 왔다고 쾌재를 부르며 이를 갈았다.

그러는 마팅을 보고 띤은 《새로운 진지를 확보하고 억척같이 싸우라! 본인은 래일 하루면 진지가 확보될것으

로 믿는다.》고 하면서 마팅의 요구를 다 풀어주었다.

마팅은 띤에게 반땅크지뢰를 충분히 보장해줄것을 요구하였는데 띤은 사단이 보유하고있던 반땅크지뢰는 물론 주변에 있던 괴뢰군부대들이 보유하고있던 반땅크지뢰까지 몽땅 걷어들여 차량으로 실어다주었다.

마팅은 인민군땅크의 전진만 저지시키면 천안의 사수는 문제없다고 장담하면서 천안전연에 류례없는 반땅크지뢰원을 만들어놓았다. 놈은 도로는 물론이고 철도주변과 땅크가 통과할수 있는 모든곳에 땅크무한궤도의 너비로 반땅크지뢰를 2중, 3중으로 묻게 하였다. 마팅은 이 지뢰원은 그 어떤 땅크도 돌파하지 못할것이라고 장담했다. 그 장담의 안식속에 묻혀 마팅은 그날밤 술판을 벌려놓고 곤드레만드레가 되도록 마셨다. 술을 실컷 마시고 녹초가 되여 자빠져 자던 마팅은 지축을 울리는 땅크소리에 잠에서 깨였다.

처음에는 미군의 엠24땅크의 동음인줄로만 알고 다시 자리에 자빠졌다.

(인민군땅크병들이 아무리 용맹스럽다고 해도 무슨 수로 감쪽같이 형성해놓은 반땅크지뢰원을 통과한단말인가.)

자리에 자빠져 다시 잠을 청하던 마팅은 소스라쳐 일어났다.

땅크의 동음이 귀에 설었고 울려오는 방향이 가늠되였던것이다.

그때에야 술에서 깨여난 장교들은 옷도 입지 못하고 맨발로 뛰여다니며 《이게 어찌된 일인가.》고 아우성을 쳤다.

천안시내에 돌입한 인민군땅크 6대가 땅크포를 쏘아 목표물들을 소멸해치우며 적유생력량을 중기관총사격으로 소멸해버리고있었다.

그 광경을 보는 마팅은 미칠지경이였다.

(공산군은 귀신이란말인가? 귀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미군이 형성해놓은 반땅크지뢰원을 극복할수 있단말인가.)

건물안에서 미친놈처럼 돌아치던 마팅은 그래도 《상승》의 24사단 34련대장이라는 지각이 들어 로케트포를 인민군땅크에 돌려대고 조준했다.

바로 그때 날아온 인민군땅크포탄이 마팅을 두동강내버렸다.

그리하여 맥아더사령부에서 선발하여보냈고 미24사단 34련대장으로 임명받았던 마팅은 3일만에 즉사하고말았다.

그때 마팅이 죽는것을 목격한 미군병사는 후에 이렇게 말했다.

《한대의 공산군땅크가 포문을 우리들이 있는 건물에 돌리였다. 마팅련대장은 로케트포로 공산군땅크를 조준했으나 그 땅크의 85미리포탄이 먼저 마팅을 두동강내고말았다.》

적들은 후에 《그 진상을 지금도 모른다.》고 인민군대의 땅크돌입작전에 대하여 실토하면서 인민군의 신출귀몰한 행동은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그 진상은 간단한것이였다.

미군의 작전적기도를 미리 간파한 인민군공병들이 밤새 적들의 반땅크지뢰원에 땅크들이 돌입할 통로를 개설해놓았고 인민군땅크들은 그 통로를 따라 천안으로 돌입하였던것이다.

결국 34련대도 인민군대의 진격을 《저지》시키지 못하고 격파당하고말았다.

《참나무훈장》의 대가

1950년 10월 5일, 트루맨은 특별보좌관 해리맨, 륙군장관 페스, 합동참모본부 의장 브래들리, 태평양함대사령관 래드포드를 거느리고 태평양의 외진 웨이크섬으로 갔다.

그것은 11월 23일 《감은절》전으로, 아니면 12월 25일 《크리스마스》전까지는 조선전쟁을 끝내겠다고 큰소리를 쳐치며 공화국북반부지역 깊이에까지 《전진》한 맥아더를 《표창》하기 위해서였다.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도꾜를 떠나 웨이크섬에 간 맥아더는 트루맨이 자기 목에 걸어주는 《참나무훈장》을 보며 야릇한 미소를 지었다.

(트루맨이 진정 나의 공적을 평가하여 이처럼 칭찬하는것일가.)

남달리 직위욕과 공명심이 강하였던 맥아더에게는 트루맨이 직접 목에 걸어준 《참나무훈장》이 도저히 마음에 차지 않았다.

맥아더는 더 큰것을 바라고있었다.

그의 이러한 속심을 일본의 한 출판물은 비행장으로 나가는 차안에서 있었다는 트루맨과 맥아더의 대화를 통하여 까밝혔다.

맥아더는 비행장으로 달리는 차안에서 《대통령, 지나친 질문인데 다음번 대통령선거에 당연히 재선을 희망하고계시겠지요?》 하고 물었다.

뜻밖의 질문을 받은 트루맨은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천천히 《그렇다면 당신도 출마할 희망을 가지고있는가?》고 반문했다.

트루맨과 맥아더사이에 있은 이 짤막한 대화는 트루맨과 맥아더와의 알륵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이날 트루맨은 웨이크섬에서 맥아더와 만난데 대하여 《우리의 회담은 지극히 만족할만한것이였다. …우리는 완전히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말하였지만 속으로는 대통령자리를 노리는 맥아더를 매우 아니꼽게 생각하였다.

한편 웨이크섬에서 트루맨과 헤여져 도꾜로 돌아온 맥아더는 대통령이 자기를 찾아왔댔다고 내놓고 말하며 교만하게 행동하였다. 그 언행속에는 자기는 3천키로메터를 날아 웨이크섬을 찾아갔지만 대통령인 트루맨은 6천키로메터가 넘는 거리를 날아 자기를 만나러 왔댔다는 속대사가 숨어있었다.

그러나 맥아더의 그 우쭐거림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략전술적방침에 따라 적의 공세를 좌절시킨 인민군부대들은 전전선에서 반공격을 개시하였다.

적들은 청천강반과 장진호반에서 인민군부대들의 포위섬멸전에 들어 그야말로 괴멸되였다.

적들이 당한 패배가 얼마나 심각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일화가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1950년 10월도 다 지나가던 어느날, 맥아더가 제1기병사단의 5기병련대 에프중대를 사열하였다.

위엄을 돋구며 중대를 사열하고난 맥아더는 대렬앞에 뒤짐을 지고서서 《전쟁초기부터 있던자가 있으면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했다.

두명의 병사가 제식동작으로 앞으로 나갔다.

뒤이어 세명의 병사가 느릿거리며 맥아더의 앞에 나

셨다.

《더는 없는가?》

맥아더가 물었으나 어느 병사도 답변을 안했다.

이 사실을 두고 어느 한 출판물은 이렇게 썼다.

《…단지 5명뿐, 그중에서도 3명은 부상을 당해있었다. 96일전에 이들이 조선전쟁에 최초 참가했을 때는 200여명이 되였으나 처참한 전화는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을 앗아간것이다.》

이것은 미1기병사단 5기병련대 에프중대에만 국한된 패전이 아니였다.

미제침략군 24사단, 1해병사단 1기병사단, 25사단, 7사단, 5사단, 2사단, 3사단, 40사단, 45사단, 9사단을 비롯하여 조선전선에 투입되였던 모든 《정예사단》들과 해병과 공군이 당한 패전이였다.

그러니 그 참담한 패전에 대한 책임한계가 론의되지 않을수 없었다.

처음에는 존슨이 파면당했고 다음엔 애치슨이 파면당했다.

그것으로 좀 즘즉해지는가싶던 패전의 책임에 대한 문제가 다시 열을 띠기 시작했으며 공격의 화살은 트루맨과 맥아더에게 집중되였다.

맥아더의 지지자들인 공화당계 국회의원들은 트루맨의 무능력을 걸고들면서 로골적인 공격을 들이댔고 트루맨의 지지파인 민주당계 국회의원들은 그들대로 펜타곤의 정책에 불충실한 맥아더에게 패전의 책임이 있다고 떠들어댔다.

맥아더는 매사에 《워싱톤으로부터 행동의 지침으로 되는 훈령을 사전에 받아본적이 없다.…언제든지 뒤로 밀고 결과가 좋으면 칭찬했고 나쁘면 비난했다》고 하면서 트루맨을 공격했다.

트루맨은 또 그대로 맥아더는《정책에 불찬성하고있을뿐아니라…도전하고있으며 그의 최고사령관(트루맨을 말함. 필자)에 대한 공공연한 반기를 들고》있다고 분기를 터쳤다.

트루맨은 국방장관 페스를 도꾜에 파견하여 맥아더의 뒤조사를 시켰으며 한편 국회에서는 트루맨의 그릇된 정책을 론증하기 위하여 상원의원 마그나숀을 맥아더에게 보냈다.

그무렵, 맥아더는 조선은 세계적으로 패권을 잡기 위한 싸움의 승패를 결정할 극히 중요한 지점으로서 자기는 조선에서 무기를 들고 싸우고있는데《거기서는 외교관들이 아직도 말싸움만하고있다》고 트루맨을 신랄히 비난하는 편지를 상원의원이며 공화당의 지도자인 죠세프 마틴에게 보냈는데 그것이 그만 4월 6일부 신문에 공개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트루맨은 오래동안 끌어오던 암투를 끝장내고 맥아더를 단호히 철직시킬 확고한 결심을 다지고 그것을 곧 실천에 옮겼다.

트루맨은 마샬, 브래들리, 해리맨을 자기 방에 불러다가 맥아더의 철직에 대하여 발표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일본에 가있는 페스에게 알리여 페스가 맥아더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 사실이 공화당계 신문《시카고트리뷴》지에 실렸고 약삭바른 일본인들이 그것을 방송으로 내불었다.

그 방송을 맥아더의 부관인 하흐대좌가 듣고 맥아더의 녀편네에게 전달하였다.

맥아더의 녀편네는 오찬석상에서 마그나숀과 담화를 하고있는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녀편네를 통하여 자기의 파면소식을 들은 맥아더는

《괘씸…》하고 말끝을 씹으며 의자를 밀어젖히고 일어섰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맥아더는 마그나손을 보고 자기는 어디까지나 본국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을뿐이며 《…할수 있는 모든 가능한것을 다했다》고 하소했다.

그러는데 부관 하흐가 전보문을 쥐고 방에 들어섰다.

맥아더는 그것을 나꾸채서 눈으로 읽었다.

《나는 아메리카합중국 대통령이며 아메리카 군사최고사령관으로서…귀관을 교대시킬 의무를 지녔다.…귀관의 후임인 마슈 비 릿지웨이에게 이양하시오.…》

맥아더는 트루맨의 이러한 처사에 대하여 이때처럼 《굴욕을 당해보기는 처음이였다》고 분격을 터뜨렸다. 그리고 자기의 회상록에 다음과 같이 썼다.

《유사이래 사령관의 변경은 때로는 기분주의로, 때로는 정당한 리유에 의해서 몇번이고 진행되여왔다.…그러나 나의 해임과 같이 그렇게 지독한 방법으로 진행된 례는 력사상 없다. 청문도 없고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과거경력에 대한 고려도 없었다.…

내가 받은 해임명령은 사실상 나를 감금상태에 둘 정도로 지독한것이였다. 사무소의 급사나 심부름군이라고 하여도 이렇게 례절을 짓밟는 방법으로 해고당하는 일은 없을것이다.》

결국 맥아더는 웨이크섬에서 받은 《참나무훈장》의 대가를 해임으로 보상받았다.

조선침략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미제우두머리들의 암투는 이처럼 심한것이였고 그 암투속에서도 조선침략정책은 검질기게 수행되여갔다.

깨여진 신화

미국의 어용기자 하긴즈는《조선전쟁은 아메리카가 얼마나 약한가를 보여주었다.》고 개탄하였다.

114차례의 전쟁에서 한번도 패한적이 없다고 쭐렁거리며 《극동침략계획》의 첫 단계인 《A》계획에 따라 전쟁을 도발한 미제는 조선전쟁에서 심대한 정치군사적참패를 당하였다.

미제는 전조선을 강점하고 나아가서 씨비리와 중국을 침략할 목적으로 조선전선에 자기 나라 륙군의 3분의 1, 공군의 5분의 1, 태평양함대의 대부분과 그리고 15개 추종국가군대들과 괴뢰군을 포함한 200여만의 대병력을 투입하였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조선전선에 투입된 병력이고 비공개적으로는 일본인들도 조선전쟁에 참전하였다.

미군의 선견대로서 오산북쪽계선에서 인민군대와 맞다들었다가 괴멸된 미24사단의 스미스《특공대》의 시체들속에는 30여놈의 일본인들도 속해있었다. 조선전선에 참전한 일본인들은 지상부대에서만 싸운것이 아니라 소해부대를 조직하여 미해군의 작전을 적극 도왔으며 세균전에도 주동이 되여 참전하였다. 가장 중요한것은 가와베, 아리스에, 다나까, 오노, 하또리를 비롯한 이전 일본군참모인원들이 조선전쟁도발계획작성에 중심이 되여 참여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보면 미제의 추종국으로서 조선전선에 군대를 파견한 나라는 15개가 아니라 16개이다. 그러니 투입된

병력수도 200여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것이다.

미제는 조선전선에 미 제24사단을 비롯하여 지상무력만도 10여개 《정예사단》들을 투입했으며 미국에서 《명성》을 떨쳤다는 맥아더, 릿지웨이, 클라크, 워커, 밴플리트, 무어, 띤, 알몬드, 카이져, 스미스를 비롯하여 한다하는 놈들은 모두 동원하였다.

그러나 미제는 40만 5천 498명의 미군을 포함하여 156만 7천 128명을 살상포로당하였으며 1만 2천 224대의 비행기를 격추격상로획당하였다. 또한 땅크와 장갑차를 파괴 또는 로획당한것은 3천 255대이며 564척의 각종 함선을 격침격파당하였다. 자동차를 파괴로획당한것은 1만 3천 350대에 달한다.

미제는 태평양전쟁에서 소모한 군수물자의 11배에 달하는 군수물자를 조선전선에 쏟아부었다.

조선전선에서 미제침략군이 당한 패배는 참으로 참담한것이였다.

미국의 한 신문은 이에 대하여 《…미군의 손실은 미국인이 다섯번의 대전쟁 즉 독립전쟁, 1812년전쟁, 메히꼬전쟁, 미서(미국과 에스빠냐)전쟁 및 필리핀전쟁에서 입은 손실을 다 합친것보다 2배이상 더 많다.》고 썼다.

미제의 이러한 패전의 몰골에 대한 평가는 클라크의 말이면 될것이다.

클라크는 《…나는 나의 정부가 시키는대로 했기에 말년에 뚫어진 밀짚모자를 쓰게 된셈이다.…집에 돌아가 낚시질이나 할수 있겠는지. 지금의 나의 심정은 오직 맥아더, 밴플리트, 릿지웨이나 알아줄것》이라고 하며 탄식하였다.

또 클라크의 에미는 패전의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마중하기 위하여 비행장에 나

갔다가 비행기에서 내린 아들(클라크)의 몰골에 대하여 《그 당당하던 기개도 위풍도 간곳없이 사라지고 그의 얼굴에는 두줄기 눈물만이 흘러내렸다.》라고 말했다.

클라크의 기개이자 미국의 기개이고 클라크의 신세이자 미국의 신세이다.

미국은 114차례의 침략전쟁에서 살쪄왔으므로 저들의 《기개》를 자랑했었고 저들의 《강대성》을 코에 걸고 위세를 돋구었다.

그러나 피를 즐기는 승냥이는 포수의 총탄에 죽기마련이고 미친개는 몽둥이에 맞아 죽기마련이다. 이것처럼 침략자는 응당 조국을 지켜 일떠선 인민들의 정의의 총에 맞아 쓰러지기마련이다.

미제는 저들이 마치도 세계평화를 위하여 조선전쟁에 참전한듯이 세계를 속이려들었지만 침략전쟁만 일삼아온 미제가 진실로 평화를 바란다고 그 누가 믿겠는가.

깨여진 미제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 그것은 미제야말로 조선전쟁의 도발자이고 침략자이며 인간의 탈을 쓴 야수이라는것을 폭로해주고있다.

그것은 미제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는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전쟁을 통하여 생겨났고 굳어졌기때문이다.

객관의 목소리

조선에서 전쟁의 포성이 멎은지도 40년이 넘었다.

그 기간 조선전쟁에 대하여 취급한 수많은 도서들이 집필발행되였으며 수많은 신문, 잡지들이 조선전쟁과 관련한 자료들을 지면에 실었다.

이 출판물들은 공정하게도 객관적립장에서 조선전쟁도발자가 미제침략자들이라는것을 락인하고있다.

그러나 미제와 남조선괴뢰들, 일본반동들은 엄연한 력사적사실을 무시하고 조선전쟁도발의 책임을 남에게 넘겨씌우려 하고있다.

이제 객관의 목소리를 빌어 그 흑막을 헤쳐보자.

조선에 대한 침략은 미제의 정책

미국도서 《아메리카현대사》는 《실지에 있어서 월가의 조선인민에 대한 전쟁은 그 장군들이 남조선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1945년 9월에 시작되였다.》고 미제의 침략정책에 대하여 폭로하였다.

미국도서 《일본일기》는 1946년에 서울에 와있었던 한 고위미국인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우리들은 해방군이 아니였다. 우리들은 점령하기 위

하여, 조선인이 항복조건에 복종하는가 안하는가를 감시하기 위하여 왔다. 상륙 첫날부터 우리들은 조선인을 적으로 보고 행동하였다.》

미국의 남조선에 대한 강점상륙은 38도선이남의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한다는 명목밑에 감행되였다. 그러나 우에서 본바와 같이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 강점상륙한 진짜 목적은 조선인민을 정복하기 위한것이였다.

남조선의 전략적가치문제에 대한 견해를 정립하기 위하여 트루맨이 남조선에 파견한 웨드마이어가 남조선에 대한 사찰을 마치고 《현실적인 행동지침》이라는 보고서를 트루맨에게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 일본도서 《미국의 극동군사전략》은 《…〈조선의 통일과 독립은 미국의 전반적리익에 중대한 위협으로 되므로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 군사적점령의 범위도 전조선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안된다.〉

웨드마이어보고서의 결론은 실천에 옮겨졌다. 이것이 조선전쟁이였다.》고 폭로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아세아전략의 전초기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무렵, 미제의 우두머리들속에서는 구라파중심주의자들과 아세아제일주의자들간에 정책적문제를 가지고 론의가 분분하였다. 여기에서 아세아정복을 목에 피대를 돋구어가며 부르짖군한 맥아더는 《나는 항상 조선을 무한한 가치가 있는 군사적전초기지로 인정하였다.》고 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미국신문

《뉴욕타임스》는 1957년 2월 4일부에 게재하였다.

1946년 초여름에 북남조선을 시찰한 트루맨의 특사 에드윈 폴리는 6월 22일에 트루맨에게 《조선정세에 관한 견해, 결론 및 권고》라는 보고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 미국도서 《트루맨회고록》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있다.

《솔직히 말해서…조선은 아세아에 있어서 미국이 성공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이 걸려있는 이데올로기의 싸움터입니다. 이곳은 무너진 봉건주의에 도전하여 민주주의(미제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필자)체제가 수용될수 있겠는가 아니면 공산주의가 보다 강해질것인가를 시험하는 장소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아세아전략의 전초기지》로서의 조선의 《가치》에 대하여 미국무성 정보조사국의 극비문건 제4,849호에는 《동북아세아에서 조선이 차지하고있는 지리적위치로하여 조선과 그 인민을 좌우하는것은…〈극동에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 다른 어떠한 국가〉에 있어서도 가치있는것이며 〈미국이 조선을 장악하는것은 일본에 있어서의 미국의 지위를 상당히 강화하는것으로 될것〉이므로 〈정치적으로 조선이 미국에 대하여 가지는 중요성〉은 물론 의심할바 없다.》고 지적되여있다.

미국은 왜 괴뢰군을 조직하고 무장장비를 제공해주었는가

미국도서 《아메리카현대사》는 미국이 《5억딸라를 들여 장비시킨 남조선군》은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공격준비가

되여있었다》고 썼다.

당시 조선전쟁 이전 미국주재 남조선괴뢰대사 장면은 리승만역도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편지를 보내여 미국의 대조선정책에 대하여 알리였다.

1949년 4월에 장면이 리승만역도에게 보낸 편지에는 《…전면적침공시에는 우리는 미국의 원조를 응용할수 있습니다.》라고 썼고 7월 13일에 보낸 편지에는 《국방군과 치안군을 합하여 적어도 10만의 상비군, 5만의 예비대, 5만의 경찰대, 20만의 민병을 장비시키는데 필요한 충분한 무기를 공급할것》을 요구하였다고 썼다.

미국도서 《미국과 조선전쟁》에는 《1949년 10월 6일 트루맨대통령은 상호방위원조법에 서명하였는데 거기에는 남조선을 위한 1천 20만딸라가 포함되여있다.》고 지적되여있고 도서 《조선전쟁사》에는 《미측의 공식자료에 따르면 1949년 미군은 원가 5천 6백만딸라(당시 환산가격 1억 1천만딸라)에 상당하는 장비를 남조선군에 넘겨주었는데 이것은 〈5만병력을 무장시키는데 충분한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소총 10만정에 실탄 5천만발을 비롯하여 로케트포 2천문, 각종 차량 4만대, 다소의 경포와 박격포 및 그에 달린 포탄 7만발 등이 포함되였다고 하며 그후에 다시 8천 7백만딸라이상의 군사지원이 추가로 제공되였다고 한다.》고 지적되여있다.

이러한 사실은 미제가 왜 남조선괴뢰군을 조직하였으며 막대한 량의 군사적원조를 주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미군사고문단의 정체

미제는 토이기에 두고있었던 군사고문단을 제외하면 남조선에 가장 큰 규모의 군사고문단을 두었다.

이에 대하여 일본도서 《침략자는 누구인가》에는 《1949년 6월 5일부 〈뉴욕 헤랄드 트리뷴〉지에 실린 서울특파원의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주둔 미군사고문단 단장 로버트는 5백명이상의 미국군사고문들을 가지고 북조선을 공격하기 위하여 남조선군을 열심히 훈련시키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세납자들은 조선에서 우리 나라(미국을 의미함—필자)의 투자를 지키는 훌륭한 번견인 군대를 가지고있으며 이것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올리는 힘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로버트는 또한 〈…남조선군의 매개 사단에 적어도 13～14명의 미군장교들이 배속되여있다.〉고 하였다.》라고 까밝혀 지적되여있다.

일본도서 《조선전쟁》은 《미군사고문단은 1949년 6월부터 군사훈련을 시킨것이 아니다. 미군사고문단의 첫 배치는 1946년 9월 〈국방군〉의 전신인 〈국방경비대〉때부터이다.》라고 썼다.

도서 《맥아더의 수수께끼》는 맥아더사령부의 군사전문가들은 저들이 무장을 대주고 미국식으로 훈련시킨 남조선괴뢰군이 《아세아에서 제일의 군대》라고 추어주면서 《북조선군대 같은것은 문제없이 섬멸할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썼다.

도서 《중국인이 본 조선전쟁》은 《미국경제협력국 조선분국 국장 죤슨은 1950년 5월 19일 미국회 하원예산위원회에서 〈미국무기로 장비되고 미군사고문단에 의해 훈련된〉 남조선괴뢰군 〈10만명이 이미 준비가 완성되였고 언제든지 작전에 들어갈수 있다.〉고 증언했다.》고 미군사고문단의 정체를 까밝혀놓았다.

미군사고문단 단장 로버트는 여러 기회에 남조선괴뢰군은 《…현재 수준으로 보아 외국의 동등무력의 2~3배의 병력을 물리칠수 있는 실력이 있는것으로 본다.》고, 남조선괴뢰군은 《미국밖에 있는 군대중에서 가장 훌륭한 군대》라는 등으로 말하였다고 적출판물들이 보도하였다.

공격을 위한 무력배치

1945년 9월 8일부터 남조선에 강점상륙하기 시작한 미제침략군은 38도선일대에 무력을 배치하였으며 저들이 조작하고 키웠으며 길들인 남조선괴뢰군의 무력도 공격을 목적으로 배치하였다.

미국도서 《조선전쟁의 력사》는 맥아더사령부의 정보부장이였던자의 글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전쟁이 박두한 때에 동양을 방문중이였던 죤포스터 덜레스는 남조선〈국방장관〉과 동행하여 38도선에 서게 되였다.

리승만군의 거의 대부분은 벌써 실제적으로 38도선을

따라 배치되여있었다.》

오지리신문 《폴크스 슈팀메》지는 1990년 7월 16일호에 《맥아더는 해임된후 자기의 진술서에서 전쟁전야에 미국은 북조선을 공격하기 위하여 모든 물자와 무기들을 38선지역에 총집결시켰다고 실토하였다.》라는 글을 실었다.

미국도서 《조선전쟁은 누가 일으켰는가》는 맥아더가 1951년 5월 3일부터 14일 사이에 있은 미국회 상원청문회에서 증언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었다.

《남조선군은 그 보급품이나 장비를 38도선에서 멀지 않은곳에 놓아두고있었다. 그들은 종심진지를 만들고있지 않았다. 38도선과 서울사이의 이르는곳마다가 모두 병참지였다.》

《종심진지를 구축하지 않았다는것은 부대들이 전선에 전개되여 공격태세에 있었다는것을 의미한다.》

미국도서 《조선전쟁》은 적들의 공격을 위한 무력배치정형에 대하여 《남조선군 제6사단 제7련대는 춘천북방의 릉선에 배치되고 콩크리트참호와 진지에 들어박혀있었다.… 사병들은 불평이 대단하였다. 사단장 김종오가 주말외출을 금지했기때문이다.》라고 폭로하였고 일본도서 《조선전쟁》은 《38도선에는 5개사단이 제1제대로 전개하였으며 3개사단은 작전예비대로서 서울부근에 집결되여있었다.》고 폭로하였다.

미군은 왜 작전준비를 다그쳤는가

도서 《미제의 극동침략정책과 조선전쟁》(사회과학출판사)은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의 침략적작전준비책동에 대하여 《해군과 극동공군의 전투력은 더욱 현저히 강화되였다. 1950년 상반년안에 제7함대에 항공모함 2척, 순양함 2척, 구축함 6척이 증가되고 재일공군에 〈B26〉, 〈B29〉 폭격기 3개 련대와 추격기 6개 련대, 수송기 2개 련대가 보충되였다. 이렇게 급속히 증강된 전투기부대는 조선전쟁직전인 6월 23일에 규슈에 집결되였다.》고 폭로하였다.

미제가 왜 이처럼 작전준비를 다그쳤는가.

일본도서 《조선전쟁》은 이에 대하여 《개전직전에 재일미공군은 제트기를 포함하여 전투기 375대, 야간전투기 40대, 폭격기 80대, 수송기 50대, 련락기 50대, 합계 595대를 준비하였다.》고 쓰고 《맥아더는 이 극동공군이 출동하면 조선전쟁은 간단히 끝날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폭로하였다.

또한 미국도서 《조선전쟁은 누가 일으켰는가》는 《북조선에 대한 침략계획에 적응하기 위하여… 미륙해공군은 어느때나 조선령토에서 군사행동을 취할수 있게 하기 위하여 비행장을 건설하였다.

리승만〈정부〉는 자진하여 남조선의 여러 항구들을 미해군기지로 리용하도록 제공하였으며 지난 시기 일본의 해군기지였던 진해를 미국의 해군기지로 전환시키고 이

것을 비밀기지로 하기로 제안하였다.》고 폭로하였으며 일본도서 《미국은 패하였다》는 《미국방장관 로얄, 맥아더사령부 외교국장 시볼트는 서울을 방문하여 〈북조선정복에 즈음하여서는 일본에 있는 미국 군함과 비행기가 남조선측에 서서 전쟁에 참가하게 될것이다.

때문에 해군과 공군에 관하여서는 당신들은 아무것도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고 미국의 작전준비의 목적에 대하여 폭로하였다.

그리고 미국도서 《아메리카현대사》는 《전쟁개시에 있어서 이번 전쟁처럼 완전히 준비하고있은적은 우리들의 력사에서 처음이다.》라고 썼다.

완성된 침략전쟁계획

미제는 아세아대륙의 정복을 위하여 《극동침략계획》을 작성하였다.

《A》, 《B》, 《C》 계획으로 나뉘여진 《극동침략계획》에서 《A》계획이 탐욕나는 《비게덩어리》를 베여낼수 있는 《단검》이며 대륙진출의 《건늠다리》인 북반부에 대한 침략계획이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한 잡지 1964년 9월호는 《이전 일본군참모본부 차장이였던 가와베(K)를 비롯하여 아리스에(A), 다나까(T), 오노(O) 등 주요 참모들로 구성된 〈까또(KATO)〉기관과 이전 대본영륙군부 작전과장 하또리의 〈맥아더사령부 력사반〉 등은 북벌계획을 작성제공한 주되는 비밀단체였다. 이들은 북벌계획작성을 위하

여 〈남조선군의 제복과 미군제복을 입고 외국인으로 출국하였다고 한다.

이들이 만든 북벌계획은 우선 38도선에 남조선군, 미군 10개 사단을 집결시켜 중부와 서부의 2개 작전지대를 만들었다. 서부전선은 곧바로 평양으로 진격하고 여기에 호응하여 평양북방에 해공군이 협동하여 상륙작전을 진행하도록 되여있다. 동부전선은 우익은 양덕, 좌익은 원산을 향해 평양과 원산을 련결하여 진격한다. 여기서도 원산북방에 해군부대의 상륙작전을 진행하도록 되여있다.》고 미제의 침략계획을 폭로하였다.

인도신문 《크로스 로드》지 1950년 12월 22일부는 《미국의 계획은…미륙해공군의 원조에 의하여 조선의 38도선 이북지역을 점령하는것이였다.…

조선의 동부 및 서부 해안에 군대를 상륙시키려던 미국의 계획은 6월 25일 군사작전개시이전에 철회되고 38선돌파계획에 집중되였다.》고 폭로하였다.

미국신문 《뉴욕타임스》지 1964년 4월 13일부는 《미국은 조선전쟁이 발발한 경우 취해야 할 〈특별행동〉에 관한 〈엔에스씨—68〉전략계획을 세웠다.》고 쓰고 계속하여 《이 계획은 1950년 1월 미국대통령 트루맨의 지시에 따라 미국무성과 미합동참모본부 련합회의에서 작성합의되고 4월 2일 미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비준된 조선전쟁도발과 관련한 계획이였다.》고 로골적으로 폭로하였다.

미국도서 《조선전쟁은 누가 일으켰는가》에는 《미국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리승만군대의 북조선공격준비는 1950년 5월에 일체 끝났다.

이렇게 하여 북조선공격을 위한 군사작전계획은 완전히 수립되였다.

서울을 해방하였을 때 인민군대의 손에 들어온 지도에 이것이 기입되여있을뿐아니라 리승만〈정부〉의 비밀문서

고에서 발견된 영화필림에 의해서도 덜레스가 남조선을 방문하였을 때 이 지도를 구체적으로 연구하였다는것이 실증되였다.》고 지적되여있다.

연막은 왜 쳤는가

일본도서 《조선전쟁》의 필자는 전쟁을 앞두고 미제와 그 괴뢰들이 벌린 연막전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폭로하였다.

《남조선측이 일시적이나마 계엄상태를 해제할 여유를 가진것은 선제공격을 위한 준비때문이다.》

《경계태세를 해제하고 병기공장조업식을 선행시킨것은 위장이다.》

《남조선군은 6월 11일(1950년)부터 비상경계령이 내려져 극도로 긴장되여있었다. 그런데 전쟁개시 전날인 6월 24일에 룡산에서 무기공장의 조업식이 진행되기로 되였기때문에 륙군참모총장 채병덕은 미군사고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선부대의 비상경계태세를 해제하였으며 동두천, 개성 방면의 부대장교들에게는 휴가를 주어 조업식에 참가시켰다고 한다. 이것은 김상규가 〈오늘의 조선〉에서 쓴것인데 이에 대하여서는 륙상자위대간부학교의 전쟁력사교관이 집필한 〈조선전쟁사〉에도 〈자유국가들측의 자료〉에 근거한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6월 24일(토요일)밤 남조선군의 고관들과 미국고문단은 룡산무기공장조업식축하연에 참가하고있었다. 연회가

끝난것은 밤이 깊은 때였다. 서울의 번화거리에서는 낮에 있은 조업식에 참가한 제1선부대인 제1, 제7 사단의 장병들을 포함하여 여느때보다도 많은 장병들이 주말을 즐기고있었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각 사단들에서는 〈래일은 즐거운 날이기때문에 규정외의 휴가, 외박을 허용하여도 좋다.〉는 전보가 와서 춘천정면의 제6사단 이외의 부대는 여느때보다도 많은 장병들을 외출시키고있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소개한 김상규는 〈38도선의 긴장성을 충분히 알고있으면서도 일부러 서울로 통하는 관문의 방위를 늦추고있〉은 조치에 대하여 미국과 남조선이 쏘련과 북조선을 속이고 유인해내려고 만들어놓은 함정이 아니였는가고 의심하고있는것이다.》

《역시 남조선〈정부〉의 위장을 증명하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리승만의 25일 아침의 행동에 관한것이다. 그것은 낚시질을 즐기는 리승만이 경무대에서 그리 멀지 않은 비원의 호수에서 낚시줄을 드리우고 〈이제부터 편안히 일요일 오전을 즐기자〉고 하려는 때에 북조선군 전면공격의 첫 보도가 날아와 경무대에 되돌아갔다고 하는 이야기다.

…전쟁도발의 첫 소식은 아침 5시 30분에는 서울에 도착했을것이다. 잉어잡이는 새벽에 하는것이 좋다고 하더라도 로인(당시 76살)인 리승만이 5시 30분전부터 낚시질을 하였다고는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위장이 아닌가.》

《6월 15일 로버트는 소환되고 그의 후임은 아직 오지 않고 대리하는 참모장은 가족을 바래우기 위해 도꾜로 가고 차장도 전쟁발발당일 일본에 가있었다.

언제 불이 붙을지 모르는 극동에서도 위험한 지역이였

던 남조선의 군사고문단 단장이 후임이 올 때까지 일을 하지 않고 귀국한다는것이 있을수 있겠는가. 이것은 위장이다.》

《당시의 긴박한 정황하에서 설사 본국에서 이동명령이 있었다 해도 군사고문단 단장이라는 중요한 직위에 있던 사람이 후임의 도착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위치를 뜬다는것은 있을수 없다.》

미국도서 《미국과 조선전쟁》의 필자는 6월 25일 아침(조선시간)의 트루맨의 행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6월 24일(토요일, 미국시간) 아침 트루맨은 고향 미주리주에서 처, 딸과 같이 조용히 주말을 보내기 위해 전용기 인디펜던스호를 타고 워싱톤을 떠났다.》

이에 대하여 미국도서 《조선전쟁:대답없는 질문》은 다음과 같이 트루맨의 주말휴식에 대하여 폭로하였다.

《동아세아문제담당차관보 딘 러스크는 서울로부터의 보고에 접하자 저녁식사를 하다말고 사무실로 달려갔다.

그는 중간급관리들을 여러명 호출했다.

그러나 국무장관 애치슨이나 대통령 트루맨에게는 조선에서의 위기가 즉시에 전달되지 않았다.

메릴랜드근처의 자기 농장에 있던 애치슨은 몇시간후에야 이 소식을 전달받았다.

미주리주의 고향을 방문중에 있던 트루맨대통령은 이 소식을 더 늦게 전달받았으며 그가 서둘러서 워싱톤에 돌아올 필요가 없다는 권고까지 받았다.

그것은 이상야릇한 일이였다.

미국이 싸운 세번째로 값비싼 전쟁전야에 미국의 립장을 대변해야 할 대통령과 국무장관 둘 다가 외출하였던 것이다.

국무성에 모여온 중간급의 관리들은 정책작성자들이 아니라 장관급의 명령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였다.

후에 미국은 이것을 뜻밖의 놀라운 일로 접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초기행동들로 판단해볼 때 여기에는 확실히 음모적인데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남조선괴뢰군에 복무했던자들의 증언을 더 고찰해보자.

남조선괴뢰군 17련대의 참모장교였던 한수한은《1950년 6월 24일 토요일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교들은 외출이 금지되고 전쟁명령을 대기할것이 지시되였다. 24일밤에 25일새벽을 기하여 38선을 돌파하여 북조선에 대한 군사행동을 개시할데 대한 비밀명령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괴뢰군 17련대 3대대 12중대 1소대 선임하사 박황대는 17련대의 미군사고문은 자신에게《우리들(미군과 괴뢰군—필자)은 북조선을 일대타격해버리는것이》라고 작전설명을 하였다고 증언하면서《25일 미명 우리들은 침략의 긴급명령을 받았다.》고 고백하였다.

남조선괴뢰군 제8사 사단장이였던 리성가는《저희는 그때 비상사태에 있었습니다. 외출도 금지되였고 6월 25일새벽부터 그냥 전투에 들어갔습니다.》라고 고백하였다.

모략문서

《유엔안보리사회는 유엔조선위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국무성의 성급한 요구에 의하여 소집되였다. 미국무성의 요구는 〈그 일부분이 남조선주재 미군사고문단 야전고문에 의하여 확인중에 있는 보도〉와 〈6월 25일 이른아침 4시경 북조선군이 공격을 개시하였다고 하는 남조선정부의 성명〉에 기초하고있는 유엔조선위원단의 전쟁보고를 근거로 하고있는것이다.》(미국도서《조선전쟁은 누가 일으켰는가》)

미국도서《조선전쟁의 력사》에는 유엔에서《조선문제에 관한 결의》를 채택한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 있다.

《전쟁에 관한 무쵸대사의 전보는 미국동부시간으로 토요일(24일) 오후 9시 26분에 국무성에 전달되였다. 5시간반후인 일요일 오전 3시 딘 러스크가 지도한 국무성전문가들의 재밤중의 긴급토의에 이어 뉴욕에서 미국의 유엔대사는 유엔사무총장 트루그베 리를 황급히 잠자리에서 깨웠다.

그로스대사는 무쵸보고의 신중하게 선택된 부분에 북조선의 〈선전포고에 관한 정보〉를 첨부하여 트루그베 리에게 읽어주었다. 이른새벽에 유엔사무총장의 팔을 비틀어올린것은 어처구니없는 속임수였다.

국무성에 보낸 무쵸의 불확실한 보고는 겨우 171개 단어밖에 안되였는데 그로스가 트루그베 리에게 한 설명은

새 자료를 첨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37개 단어였다. 이 생략된 보고는 북조선측의 〈평화의 파괴와 침략행위〉라고 하는 무쵸자신의 비난과 〈북조선정부의 지배밑에 있는 평양방송이 6월 24일 미국동부시간으로 오후 9시에 남조선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였다고 전해졌다.〉라는 내용으로 되여있다. 그리고 그로스는 〈나의 정부의 긴급요청에 의하여〉 〈유엔안보리사회 회의를 즉각〉 소집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신문의 조간지는 서울발 〈에이피통신〉을 게재하였는데 그것은 〈북조선의 선전포고〉에 관한 보도는 리승만의 집에서 나왔다고 전하였다.

이러한 야밤과 새벽녘에 있은 일들에 대하여 저절로 나오는 의문은 국무성이 왜 5시간반이나 토의에 집중하고 그로스를 통하여 이러한 〈긴급〉소집을 유엔사무총장에게 제기하였는가 하는것이다. 그리고 사무총장이 안보리사회 회의를 (쏘련대표가 결석하고있는 때에) 소집하도록 잠자리에서 불리워나간 다음에도 왜 이처럼 중대한 행동(조선에서의 군사행동)의 근거와 그 보도가 부분적으로 확인된데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무총장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아이. 에프. 스토운은 다음과 같은 날카로운 의문을 제기하고 사태의 본질을 찔렀다. 〈서울주재 미국대사가 전쟁발발에 대한 남조선의 정보는 남조선군에 복무하고 있는 미국인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확인되였다〉고 하는것은 무슨 뜻인가? 남조선측설명의 어느 부분이 확인되고 어느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는가?…

전쟁이 일어난 원인이 신용할수 없는 리승만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말살하려고 하였다는것은 리해된다. 그러나 그때문에 미국은 적어도 국제적사기의 의식적인 공범자로 되고말았다.》

미국도서 《조선전쟁의 력사》는 유엔의 결의에 대하여 자기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워싱톤이 조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회를 얻으려는 생각을 하고있었다는것은 명백하다. 일대 란투속에 뛰여들려고 무분별하게 돌진하면서 워싱톤은 유엔사무총장에게 사기적인 증거의 한 토막을 제공하는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엔의 대표자들—전쟁의 불을 지른 자들이 직면한 기본적문제는 무시되였다. 스토운은 다음과 같이 썼다. 〈도꾜에도 서울에도 의문은 있었는데 그 의문은 유엔에서 감추어졌다.〉》

《유엔의 기발밑에 진행되는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지식으로써가 아니라 그 명의만을 빌리는 유엔(군사감시단)이 도착하였다. 이 도착은 오래동안 계속된 국제적도박에 비싼 박돈을 지불한 전형적인 실례이다.

1949년 10월 유엔은 미국이 제출한 남조선에서의 군사활동을 시찰할데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코뎬커는 자기 저서 〈유엔과 조선의 평화통일〉 204페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미국은 그 당시 공격에 관한 사찰기능을 특히 강조하였으며 그 사찰권한에 의하여 유엔은 일어날지도 모를 분쟁과 관련한 필요한 온갖 정보를 정당하게 구성된 기관으로부터 입수할수 있다고 말하였다. 1950년 6월의 공격에 비추어볼 때 이 견해는 선견지명이 있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의 군사사찰원이 남조선에 도착한것은 1950년 5월중순이 지나서였다. 그들은 오스트랄리아사람이였는데 항공대 대장인 랜킹과 륙군소좌 피치였다. 현지에서는 일정도 조직되여있지 않았고 동료사찰원도 상급장교도 없었기때문에 두 사람은 일시 태평양의 빠리인 도꾜에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비행기좌석표를 얻지 못하였다. 코뎬커에 의하면 도꾜에 가기전에 〈무엇인가

를 얻기 위해〉 그들이 사찰려행을 하도록 미지의 인물들로부터 시사를 받았다.

이리하여 랜킹과 피치는 38도선을 따라 려행할 권한을 받았다.

려행을 끝내고 6월 23일 서울에 도착하였다. 24일날 그들은 보고를 썼다.

그이튿날 오전 4시경 북남조선사이에 전면전쟁이 일어났다. 보고가 29일까지 안보리사회에 도착되지 않았다는 것은 의미심장한것이다.

북조선이 침략자라는것을 지지하기 위하여 인용되게 될 이 사찰단의 보고는 실제에 있어서는 그러한 증거를 주지 못하고있다.》

《서울 중앙정보부의 수신국은 북조선과 쏘련의 씨비리 라지오방송국이 방송하는 말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있었으나 이 〈소문〉을 확인할수는 없었다. 그 리유는 〈에이피통신〉이 후에 전한바와 같이 이 소문이 리승만의 집으로부터 나온것이기때문이였다. 유엔조선위원단은 리승만의 이 근거없는 말을 확인할수도 부정할수도 없이 뉴욕본부앞으로 보낸 지급전보에 북이 남에 〈비렬한 공격〉을 가했다고 하는 리승만의 성명을 삽입하였던 것이다. 유엔조선위원단은 그 전보에서 전쟁발발의 책임을 누가 질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시사도 하지 못하였고 유엔에서의 심의에 도움이 될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군이 〈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해낼것〉이라고 하는 무쵸의 견해를 삽입하였던것이다.

…

이처럼 발발된 전투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최우선적으로 입수할 임무를 받은 위원단은 전투행위의 발발에 대한 책임을 확정하는데 필요한것은 아무것도 보고

하지 않았던것이다.》

미국신문 《뉴욕타임스》지 1950년 7월 16일부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있다.

《국무성에서는 유엔회의 소집준비와 유엔에 제출할 미국결의안작성작업이 계속되였다. 그 결의는 심사숙고된것이였으며 매 마디가 다듬어진것이였다. 그것은 정전을 요구한다는 명목밑에 북조선에 침략자의 락인을 찍을데 대한 첫째 목적을 달성하려는것이였다. 야밤중에 애치슨은 미주리주의 트루맨에게 재차 전화를 하였는데 대통령은 그의 일련의 행동제안을 승인하였다. 12시반경에 트루그베 리유엔사무총장은 전화에 불리워나왔으며 정황을 듣게 되였다. 일요일 오전 2시 04분까지 딘 러스크와 그의 동료들은 유엔안보리사회 회의를 소집하도록 요청하였으며 트루그베 리사무총장에게 보낼 공식문서의 초안이 완성되였다.

이러한 미국정부와 유엔의 첫날밤의 노력을 총괄하여 〈뉴욕타임스〉워싱톤지국의 냇트 휘니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미국과 유엔의 직원들은 밤새 전략상의 두가지의 방침 즉 하나는 만일 쏘련이 안보리사회회의에 출석하는것을 계속 거절하는 경우에 취할 방침과 다른 하나는 쏘련이 갑자기 안보리사회 보이꼬트를 그만두고 거부권으로 의안토의를 방해하기 위하여 다시 출석하는 경우에 취할 방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땀을 흘리면서 일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모략문서조작을 위하여 미국무성관리들이 그야말로 조심스러우면서도 작전적으로 움직였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다》는 조선속담과 같이 미제는 사실을 가리고 진실을 외곡하며 극히 조심스럽게

행동하였지만 결국 송곳끝은 자루밖으로 삐여져나와 침략자로서의 미제의 행적은 세상에 드러나고야말았다.

《북조선의 유죄를 증명하기 위하여 미국이 벌린 가장 중요한 깜빠니야는 〈로획한 문건〉을 폭로한것이였다.

1951년 5월 2일 유엔주재 미국대표인 워렌 오스틴은 조선주둔 유엔군사령관 릿지웨이가 유엔사무총장 트루그베 리에게 보내는 특별보고를 전하였다. 거기에는 북조선군으로부터 빼앗았다고 하는 두개의 문건이 들어있었다.

〈정찰명령 제1호〉라고 하는 첫 문건은 유엔군이 서울시에 들어갔던 10월 4일에 발견한것이라고 하였다. 이 문건은 1950년 6월 18일 북조선첩보기관 책임자가 북조선군 제4보병사단 사단장에게 보낸 문건이라고 하였다.

1950년 6월 22일부로 되여있는 〈작전명령 제1호〉라는 두번째 문건은 1950년 7월 20일 대전가까이에서 로획한것이라고 하였다. 이 문건은 북조선군 제4보병사단 사단장이 만든것이라고 하였다. 릿지웨이는 조선어로 된 이 두 문건이 미국정부의 수중에 있다고 하였다.

릿지웨이는 1950년 6월 18일과 6월 22일에 북조선부대들에 하달된 이 두 문건이 〈1950년 6월 25일 남조선을 반대하여 개시된 침략〉이 남조선을 전복하기 위한 의도적인 사전계획에 따라 면밀히 준비되고 행동에 옮겨진것이라는데 대한 〈명백한 물질적증거〉라고 강조하였다.

문건들이 진짜인가?

그러나 문건들을 조사해보면 그 진실성여부에 대하여 납득이 가는것보다도 리해되지 않는것이 더 많다. 유엔군사령관은 그 문건들이 북조선군 지도자들에 의하여 면밀히 준비된것이라고 선포하였지만 나는 누가 그 문건들을 만들었는가에 대하여 의심하게 된다. 실례로 〈정찰명

령 제1호>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릿지웨이는 로획한 문건의 영어번역문을 유엔에 제출하면서 원본은 조선어로 되여있다고 하였다. 그후 얼마 안있어 북조선사람들은 조선지명들에 대한 <원본>의 영어발음 특히 <정찰명령 제1호>의 영어발음이 일본말식으로 되였다는 근거를 가지고 문건의 진짜여부를 론의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의 고유어를 일본식으로 부르는것은 1947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비법화되였다고 한다. 한달후 유엔주재 미국부대표 어네스트 그로스는 북조선의 주장에 대하여 불신을 표시하였다. 그는 정찰명령의 <원본>은 진짜 조선어로 되여있으나 실지 로획한 문건은 조선문원본을 로어로 번역한것이였다고 <밝혔다.> 로어로 번역한 목적은 정찰명령을 <조선어를 잘 모르는 로어에 정통한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것이였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조선어를 로어로 번역한 사람이 조선도시이름을 일본식으로 표현한것은 로씨야인들이 그런데 습관되여있기때문이라고 했다.

물론 이러한 설명의 정확성여부는 그로스가 지명을 조선어로 정확히 표현한 조선어로 된 원본을 내놓을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원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로문판은 <조선어로부터 번역한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조선문판이 없는 조건에서는 문건이 남조선군에 의해 위조된것이라고 믿을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것은 남조선군인들도 그 당시 로씨야사람들처럼 조선의 지명에 대하여 일본식으로 표기하는데 습관되여있었기때문이다.

보다 명백한것은 미국이 자기가 로획하였다고 하는 문

건 〈로문으로 된 정찰명령 제1호〉를 그것을 요구하는 학자들앞에 내놓지 못한 사실이다.》

미제가 《증거》라고 내놓은 두 문건에 대하여 남조선잡지 《신동아》 1990년 7월호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원본들은 결코 발견되지 않았다. 미국정부의 여러 기관들이 수년동안 원본을 찾았지만 허사였다는 이야기를 나는 두 기록관으로부터 들었다.》

(이 내용은 미국력사학자 부르스 커밍스가 쓴 책 〈조선전쟁을 누가 일으켰는가〉를 인용한것이다.)

《…

제4보병사단 사단장의 작전명령이 1950년 7월 16일 대전에서 로획되였다고 말해준다.

그것은 6월 22일자로 되여있지만 6월 24일 새벽 5시에 수령되였다. 이 명령문의 조선어본은 연필로 희미하게 씌여있고 사단장의 이름은 문서의 나머지부분과 같은 식으로 적혀있다. 거기에는 어떠한 서명이나 개인적봉인도 없다. 따라서 그것은 입수할수 없는 원본에서 조선어로 베꼈던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므로 실증될수 없는것이다.》

도용당한 이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채택하였다는 유엔의 《조선문제에 관한 결의》는 안전보장리사회가 구성되지도 않는 조건에서 미국의 일방적이며 강압적인 요구에 의하여 《채택》된것이다.

그 《결의》라는것의 초안은 미국무성에서 작성하였으며

안전보장리사회는 자기 이름만 도용당하였다.

객관의 목소리를 통하여 사실여부를 따져보자.

미국도서 《조선전쟁은 누가 일으켰는가》는 이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까밝히고있다.

《조선에서 전쟁이 시작되여 몇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무력침략〉이라는 구실로 대담하게도 북조선을 비난하였다. 이 비난은 북조선의 행위는 〈완전히 불법이며 또한 완전한 기습〉이라고 강조하였다.

쏘련이 참석하지 않고… 안보리사회의 성원국들은 미국의 주장에 따라 급기야 〈남조선에 대한 북조선군의 무력침략을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할〉데 대한 결의를 통과시켰다.

그 이후의 모든 간섭은 북조선에 죄가 있다고 하는 이 근원적인 가설로부터 출발하고있는것이다.》

《미국무성의 〈백서〉에는 6월 27일 오후 대통령이 〈합중국의 공군과 해군에 남조선군에 지원을 주도록 명령〉한것은 6월 25일의 안보리사회의 결의에 따른것이라고 되였는데 그것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

알고있는바와 같이 25일의 안보리사회의 결의는 전투행동을 중지할것을 요구하고있을뿐이고 남조선을 원조할데 대한 결의가 통과된것은 27일 회의때였다.》

《유엔의 결정이 성원국들에 무력침략을 격퇴하고 조선에서 국제평화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요구하기전에 이미 미국은 조선에서 군사행동을 개시하고있었다.

맥아더의 파면과 관련한 국회상원외교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증언은 계속되였다.

브래들리(합동참모본부의장)—6월 26일 맥아더는 38도선 이남의 북조선군에 대한 미국 륙해군의 사용을 준비

하고있던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지령을 받았습니다.

버드(상원의원)—사실 우리 군대는 유엔결정이 있기전에 행동하고있었습니다.

브래들리—우리 륙해군은 유엔결정이 있기전에 우리 동포들의 철수를 돕기 위하여 출동한것입니다.

버드—그러나 〈38도선 이남에 대한 미해공군의 사용에 관한 지령〉은 우리 동포들의 철수에 대하여서는 아무것도 언급하고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해공군이 곧바로 전쟁에 돌입하였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브래들리—아니, 그것은 틀립니다.

버드—미국은 유엔결정이 있기 12시간전에 행동하였습니다.

브래들리—그것은 우리 동포들의 철수를 돕기 위하여 필요하였던것입니다.

버드—글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제 당신이 우리는 유엔의 결정에 의하여 조선에 들어갔다고 한 증언과는 어긋납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즉 당신은 유엔에서 결의가 채택되기 하루전에 북조선군과 실제적으로 전투를 하고있었습니다.》

미국도서《조선전쟁의 력사》상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있다.

《유엔이 미국의 지배를 은페하는 얇은 너울에 지나지 않는다는 또하나의 증거는 1951년에 대통령이 맥아더를 해임한후 워싱톤에서 있은 장시간의 청문회에서 한 맥아더의 증언에서 찾아볼수 있다.

랏셀(상원의원)—당신은 명백하게 해줄수 없겠습니까? 조선에서 미군사령관이면서 동시에 유엔군사령관이기도 하였던 당신의 지위에 대한것인데.

맥아더—랏셀의원, 나와 유엔과의 관련은 대체로 명목적인것이였습니다. 나의 지휘권 또는 내가 하는 모든것

에 대하여서는 우리자신의 참모부가 전반적인 관할권을 가진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내가 작성한 유엔에 대한 보고는 언제나 우리 국무성과 국방성의 검열을 받았습니다. 나는 유엔과 직접적인 관련을 전혀 가지고있지 않았습니다.

랏셀—유엔에 대한 당신의 통보가…실제로 검열되였습니까?

맥아더—그렇습니다.…국무성과 국방성은 내가 보낸 모든 보고에 많은 수정을 가하였습니다. 그 수정의 일반적요점은 내가 말한것처럼 유엔의 여러 나라들을 다스리는데서 유리하다고 국무성이 믿는 정치적태도를 보이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합니다.》

《〈뉴욕타임스〉지에 의하면 2주일후에 말리크(유엔주재쏘련이전대표)는 자기의 견해를 이렇게 전개하였다.

〈미국정부는 유엔의 비합법적결의가 채택되기도전에 조선인민에 대한 무력침략을 개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름아닌 미국대표 오우스틴씨가 확인하였다. 8월 10일 안보리사회에서 오우스틴씨는 미국대통령이 6월 27일 낮 12시에 미해공군에 남조선을 원조하도록 명령하였다고 언명하였다. 미국대표는 미국의 부당한 조선침략을 은페하기 위하여 소집된 안보리사회에서 이 비합법적인 결의를 강요하였는데 그 회의는 같은 6월 27일 오후 3시에 소집되였다. 이 사실은 공식기록에 의해서도 명백하다. 따라서 미국정부가 안보리사회의 소집보다 몇시간 앞질러 비법적으로 그리고 제멋대로 조선침략을 시작하였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유엔과 전세계 앞에 조선에 대한 침략을 기정사실로 되게 하였다. 반박할 여지가 없는 력사적사실이다.

6월 25일의 안보리사회의 비합법적결의에 대한 미국대표의 론거는 전혀 리치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결의가 아무런 군사적제제도 결정하지 않았으며 또 그러한 제제의 권리를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기때문이다.

이상의 모든 사실로부터 나오는 유일한 론리적결론은 미국정부가 먼저 침략행위를 감행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유엔의 행동이라는 딱지를 붙여 그 침략행위를 은폐하려고 기도하였다는것이다.》

미국도서《비사 조선전쟁》은 미국이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제멋대로 침략책동을 확대강화한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폭로하였다.

《최후의 마무리는 유엔군부대를 맥아더의 지휘밑에 두면서도 맥아더를 유엔의 지휘밑에 두지 않게 하는것이였다. 이것은 7월 7일 영국, 프랑스의 공동결의안으로 실현되였다. 이 결의는 일반적으로 유엔군사령부를 설치한 결의로 인정되고있으나 결코 그런것은 아니였다. 이 결의는 〈통일사령부〉를 설치하였고 그 사령부는 유엔기발을 사용할 권한을 받았으나 결코 유엔의 명령에는 구속되지 않았다.

이 사실은 결의문에서 볼수 있다. 결의가 권고하고있는것은 조선에 관한 안보리사회의 결의에 따라 〈군대, 기타 원조를 제공하는 유엔가맹국이 그러한 군대 기타 원조를 미국의 지휘하에 있는 통일사령부에 제공〉한다는것이다. 결의는 〈이러한 군대의 사령관을 임명〉할것을 미국에 요청하였으며 그 군대에 유엔기발을 사용할 권한을 주었다. 이 군대에 유엔이 조금이라도 감독권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유일한 조항은 막연하게 유엔이 〈미국에 대하여 통일사령부밑에서 취해진 행동의 진행상태에 대하여 적당히 안보리사회에 보고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마지막 조항뿐이다. 〈통일사령부〉는 정기적으로 또는 그밖의 형식으로 유엔과 협의하거나 유엔에 보고할 의무가 없었다. …유엔은 맥아더에게 백지위임장을 수여

하였던것이다.

…

도꾜의 총사령부는…리치상으로는 통일사령부였지만 실제로는 맥아더왕국이였던것이다.》

프랑스의 월간잡지 〈레스플리〉 1950년 8호의 기사를 보자.

《미합중국은 현재 유엔이라는 겉옷을 입고는 있으나 미국인들이 지금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을 비난하고있는 그 범죄를 자신은 범하지 않고있는듯이 행동하게 해서는 안된다.…미국에 군사적사명을 위임한 유엔은 벌써 유엔의 이름을 입에 담을 립장에 있지 않다. 유엔은 5대국에 의하여 창립되였다. 미국이 중국에서 일어난 정부의 변화를 인정하는것을 거부하고 또…로씨야가 결석한 때로부터 안보리사회의 결정은 불가피하게 무효로 되였다. …미국은 의문스러울 정도의 신속성으로 유엔을 리용하여 저들의 리기적인 리익에 너무도 밀착시킨 결의안을 날조하였다. …이리하여 유엔은 국제기구로서의 영예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으며 유엔의 약점은 너무도 명백하게 되였다.》

조선문제에 관한 《유엔결의》의 본질

이 문제에 대하여 1950년 8월 2일부 《뉴욕타임스》지는 다음과 같이 썼다.

《쏘련대표 말리크가 안보리사회에 제출한 전쟁종결을 위한 제안은

1) 안보리사회의 행동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중국대표를 참가시킬것.

2) 조선에서 즉시 정전할것.

3) 그에 이어 모든 외국군대가 철수할것.

4) 북조선과 남조선 쌍방의 대표를 조선정세토의에 참가시키기 위하여 안보리사회에 초청할것이였다.

미국대표는 이 계획을 맹렬히 반대하였으며… 각국은 조선에 원조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자기들의 제안을 토의할것을 주장하였다. 본질적으로 말하여 쏘련의 제안은 전쟁을 종결시키려는것이며 이에 대한 미국의 계획은 전쟁을 〈국지화〉하여 계속하려는데 지나지 않았다.》

쏘련대표 말리크가 제기한 제안에 대한 미국대표와 영국대표 발언에 대하여 미국도서《조선전쟁의 력사》상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있다.

《1950년 8월 4일…조선전쟁을 끝장내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베이징과 평양 대표들을 초청하여야 한다는 쏘련의 제안은 부결되였다. 미국대표 오우스틴은 쏘련의 제안을 당면한 임무로부터의 리탈이라고 공격하였으며 영국대표 글래드윈 제브는 북조선대표를 초청하여 그들에게 자기들이 침략의 희생자라고 주장하게 하는것은 혼란을 초래하는것으로 된다고 하였다.》

1950년 12월 1일 《유피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유엔본부에 있는 〈유피〉기자에 의하면 쏘련대표 말리크가 안보리사회에 다시 참석하는데 대비한 〈전략회〉가 미국, 영국, 프랑스 대표단사이에 열렸다.

〈유엔안보리사회의 다수파인 비공산주의나라들은 조선에서의 유엔의 전쟁노력에 대한 로씨야의 그 어떤 방해계획도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작성하기 위하여 금요일 비밀회의를 열었다. 그다음 조선전쟁계획의 빈구멍을 메

우는 마지막 기회를 서방측 다수파나라들에 주기 위하여 월요일에 회합을 가질것을 예정하였다.〉》
도서《중국인이 본 조선전쟁》은 유엔《결의》가 어떻게 채택되였으며 그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블레어하우스에서 작성한 모든 획책이 유엔안보리사회에서와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되여 트루맨의 바램이 실현되였다. 교묘하게 안보리사회에서 쏘련의 거부권을 피했고 6월에 유엔조선위원단의장이 장개석의 대표인것을 교묘하게 리용하고 〈안보리사회결의〉를 동맹국들에 사후에 동의시켰고 교묘하게 국회의 말썽을 피하여 블레어하우스에서 만들어낸 기정사실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미국인들앞에 내놓았다.
그러나 덮어놓고 교묘하다고만 할수는 없다. 교묘하기는 했지만 트루맨의 조선침략발동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은폐할수는 없다. 이 〈교묘〉는 여기저기에서 파탄되기 시작하였다. 우선 유엔기구는 일국의 두개 집단간의 충돌문제를 토론해서는 안되며 그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유엔헌장은 규정하고있다. 그러므로 안보리사회의 6월 25일, 27일, 7월 7일의 결의와 그후 같은 수법으로 날치기로 통과시킨 일련의 결의는 모두 유엔헌장을 직접 유린하는 행동이다. 만일 트루맨이 조선전쟁발동에 목적을 두고있지 않았다면 6월 27일 결의를 통과시키기전에 왜 안보리사회에서 유고슬라비야가 제기한 조선북남쌍방의 화해를 중재하자는 제안을 부결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트루맨이 상기(미해공군을 동원할데 대한)명령을 내린것이 먼저이고 안보리사회 6월 27일 결의는 그후이다. 다시말하면 미국이 그 회원국으로서 유엔의 결의를 집행한것이 아니라 안보리사회가 트루맨의 명령을 집행한것이다.》

맺 는 글

력사는 바로 미제야말로 조선전쟁도발자이며 침략자이라는것을 부인할수 없는 사실적자료들로 증명해주고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북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이였던 인디안들의 피로 젖은 땅, 그들의 시체로 뒤덮인 산야에 일떠선 야수의 나라이다.

미국은 력사적으로 114차가 넘는 침략전쟁을 감행하여온 나라이며 그 전쟁을 통하여 살찌고 제국주의의 두목으로 등장한 나라이다.

침략으로 이골이 난 미제의 본성은 변할수 없다.

미제는 오늘도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간섭 책동을 끊임없이, 더욱 파렴치하게 감행하고있다.

우리는 책을 통하여 이것을 더욱 명확히 알게 되였다.

이 책에 리용한 모든 력사적사료들은 바로 미제가 조선전쟁의 도발자이며 조선전쟁은 미제의 《극동침략계획》의 첫 단계로 감행되였다는것을 확인해주고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는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들씌웠다.

우리는 조선전쟁의 도발자인 미제는 조선인민의 철천의 원쑤이며 침략자인 미제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것을 명심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세워주시고 가꾸어오시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향기 그윽한 화원으로 꽃피워주시고 풍만한 열매로

무르익혀주시는 내 나라, 내 조국을 더 부강하게, 더 굳게 다져나가려는 불타는 마음안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을 결사옹위해나갈 총폭탄으로 자신을 더욱 튼튼히 준비해나가야 할것이다.

조선전쟁도발의 흑막

필자 황재헌 편집 김광수
장정 한명신 교정 박춘선

낸 곳 **금성청년出판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2**
인쇄 1995년 5월 15일 발행 1995년 5월 20일

ㄱ-5554